

1-1-2018

EPIC Discipleship Model for the Korean Millennials Through a Hybrid Program

Young-Hoon Jin
yjin14@georgefox.edu

This research is a product of the Doctor of Ministry (DMin) program at George Fox University. [Find out more](#) about the program.

Recommended Citation

Jin, Young-Hoon, "EPIC Discipleship Model for the Korean Millennials Through a Hybrid Program" (2018). *Doctor of Ministry*. 312.
<https://digitalcommons.georgefox.edu/dmin/312>

This Dissertation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Theses and Dissertations at Digital Commons @ George Fox University.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Doctor of Ministry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George Fox Universit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olfe@georgefox.edu.

GEORGE FOX UNIVERSITY

EPIC DISCIPLESHIP MODEL FOR THE KOREAN MILLENNIALS
THROUGH A HYBRID PROGRAM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PORTLAND SEMINAR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HOON JIN

PORTLAND, OREGON

JANUARY 2018

Portland Seminary
George Fox University
Portland, Oregon

CERTIFICATE OF APPROVAL

DMin Disserta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Min Dissertation of

Young-Hoon Jin

has been approved by
the Dissertation Committee on February 18, 2019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Semiotics and Future Studies

Dissertation Committee:

Primary Advisor: Roger Nam, PhD

Secondary Advisor: Sunggu Yang, PhD

Lead Mentor: Leonard I. Sweet, PhD

Expert Advisor: Roger Nam, PhD

DEDICATION

To Jaehee, David, Veronica, and Ariel: that we, as a family, would adventure together with joy, laughter, love, and childlikeness .

ACKNOWLEDGEMENTS

먼저는 이 과정 가운데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Dr. Loren Kerns 와 Dr. Cliff Berger 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린다.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그만두었을터였다. 그들의 인내와 응원 덕분에 끝을 볼 수 있었다.

나의 멘토인 Dr. Leonard Sweet 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책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을 그와 함께 한 시간들, 특별히 자택인 Orcas Island 에서 보낸 순간들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본 논문을 지도하고 여러가지 말로 격려해 준 Dr. Roger Nam 께도 감사드린다. 함께 짧은 시간을 보내어도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보고 그 가능성들을 일깨워주는 말과 표정들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Second Reader 로 기꺼이 섬겨준 Dr. Sunggu Yang 께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Oral Defense 때 진심어린 말들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준 것이 내내 마음에 남았다.

링컨시티한인교회 성도들과 옆에서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이상현 전도사 가정, 전승아 자매, 이호준 형제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또한 멀리 오리건 어촌마을까지 잊지 않고 찾아와 사랑과 추억을 나누어 주었던 나성영락교회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사랑하는 겐, 민, 솔이와 아내 재희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이들과 함께한 오리건에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특히 재희의 지혜롭고도 사랑어린 말들과 격려, 이해와 응원이 없었다면 이 과정을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어머니 김경애 사모와 살아계셨을 때 보셨으면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을, 지금은 사모하시던 주님과 함께 계신, 아버지 진희성 목사께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Table of Contents

DEDICATION	i
ACKNOWLEDGEMENTS.....	ii
ABSTRACT	iii
SECTION 1: THE MINISTRY NEED/PROBLEM/OPPORTUNITY	1
가나안 성도.....	1
가나안족과 미셔넬족.....	6
청년들의 탈교회.....	11
SECTION 2: OTHER PROPOSED SOLUTIONS	16
대형교회 청년부	16
청년연합사역과 단체들	18
한국교회 제자훈련	19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 끼친 영향과 부작용	22
제자훈련과 청년들	27
이머징교회.....	30
SECTION 3: THESIS.....	34
조각 맞추기.....	34
제자훈련	35
구약에서의 제자	36
헬라-로마에서의 제자도	37
유대사회의 제자도	38
예수의 제자도	40
예수의 제자훈련 원리.....	44
소수선택의 원리.....	45
나눔과 삶의 모범을 통한 시범의 원리.....	45
파송과 현장 실습의 원리	46
재생산의 원리	46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게 함.....	47
제자훈련을 위한 필수과정.....	47
필수요소들	48
요약 및 결론.....	50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셔넬교회.....	51
복음이란? 교회란?	51
포스트모더니즘	52

미셔널교회	58
기독교후기사회(Post-Christendom)	59
삼위일체 하나님, missio Dei,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63
미셔널교회의 특징	65
EPIC 모델	68
들어가는 글	68
배움의 다양한 방법들: 래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모델	69
경험적인 교회	70
참여적인 교회	72
이미지 중심적 교회	74
연결되어 있는 교회	76
하이브리드 모델	79
인터넷 개인교습	79
하이브리드 목회학 박사과정 Hybrid D.Min. Course	82
결론: EPIC 원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제자훈련 커리큘럼	84
SECTION 4: 결과물 기술(ARTIFACT DESCRIPTION)	89
SECTION 5: ARTIFACT SPECIFICATION	91
목표	91
범위 및 내용	91
SECTION 6: POSTSCRIPT	94
APPENDIX A: ARTIFACT	96
TalkingBush Website	96
TalkingBush Podcast	98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 Page)	100
Alignment Gathering	101
Alignment Booklet	107
Alignment 후기	110
Zoom 온라인 미팅	130
BIBLIOGRAPHY	131

ABSTRACT

This dissertation purpose to develop a hybrid discipling model through EPIC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mmunal) approach that includes listening, teaching, coaching, meeting, sharing, studying and empowering through both online and offline will be an effective and working tool for younger generation. Cohort learning, individualized mentoring, personalized resources will meet the needs for each person in their process to grow as disciples of Jesus in their own settings and circumstances overcoming barriers of location, time, denomination, and anonymity.

SECTION 1: THE MINISTRY NEED/PROBLEM/OPPORTUNITY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교회 안에서, 주로 목회자들에 의해 많이 통용되게 된 것은 불과 십 여년에 불과하다. ‘가나안 성도’의 ‘가나안’이란 ‘안 나가’를 뒤집은 것으로 기독교인이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흔히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 믿으십니까?’라는 말보다 ‘교회 다니십니까?’라는 질문을 더 많이 던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이란 표현은 다소 모순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꾸준히 제시되는 통계수치와 제기되는 문제의식들을 생각할 때 가볍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현상은 결코 아닐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가나안 성도’에 해당하는 이들의 수가 무시할 수 없다는 자료와 현실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해결책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자훈련의 성격과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기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 큰 위기감으로 맞고 있는 성도이탈의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들여다 보고자 한다. 배에서 물이 새고 있다면 그 내부구조와 카펫을 바꾸고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새롭고 다채롭게 한다해도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것은 무교회 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함석헌 선생의 저서였다.

황금이 무엇인가? 이미 있는 질서, 제도, 권력의 심볼이다. 한국 가톨릭 2 백년, 개신교 백 년 역사에 한 가지 환한 사실은 올 때는 밀충 사회의 불쌍한 민중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지금은 중류계급의 종교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중류에는 중류의식이 있다. 언젠지 모르게

현상유지를 원하는 기풍이 교회 안을 채워버렸고 그러니 가나안의 소망이 ‘안 나가’의 현상유지로 타락해 버렸다. 이상하게도 ‘가나안’이 거꾸러지면 ‘안나가’가 되지 않나? 오늘 한국 교회의 특징을 말한다면 ‘안 나가’는 부대다. 그들은 사회악과 겨루는 역사의 싸움에서 뒤를 빼고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둘러앉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발가락인 아래층 사회가 교회에서 빠져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내쫓은 것이다.¹

그의 글에서 처음 사용된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쓰는 뜻과는 다르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도 하겠다. 교회라는 네 벽 안에 갇혀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기보다 자기들만의 안락과 편안함, 권력과 인정만을 추구하며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의 가나안 성도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염증을 느껴 교회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성도로 표현되는 현상이 지금 교회 안팎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한국교회 성도수의 23.3 퍼센트가 스스로를 가나안 성도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비율을 2015 년에 있었던 센서스² 결과치에 반영해 보면 한국교회에서 가나안 성도의 수는 약 이백만명에 이르게 된다.³ 이같은 통계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과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본 논문에서

¹ “가나안 성도,” 리브레위키, last updated December 15, 2016 and accessed June 30, 2018, https://librewiki.net/wiki/가나안_성도.

²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Pastors, *Korean Christianity Analysis Report*, (Seoul: URD Pub, 2018), 79.

³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약 10%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 그럼 대략 100 만에서 120 만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1200 만명 성도 수에서 120 만명을 뺀 수치에서 다시 2005 년 정부 인구 센서스 결과인 860 만명을 빼면 약 220 만명 정도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인구로 볼 수도 있으니 대략 일치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년층에서 보이는 탈교회 현상이 가나안 성도 현상과 겹쳐지는 교집합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라는 곳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선지식과 선경험이 없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접점을 가지는 것도 요원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점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아직 기독교인라 칭하면서도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된 것인가? 종교놀음에 지쳐서인가? 연일 신문지상이나 미디어에 폭로되는 교회내 여러 스캔들에 실망한 탓인가? 교회성장과 개인의 번영만을 강조하는 듯한 교회내 문화는 또 어떤가? 혹은 사회정의나 사회참여에 무관심하고 스스로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모습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일까?

정재영 교수에 따르면 많은 가나안 성도들은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듯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 같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다고 한다.⁴ 오히려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이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집사와 장로로 임직받았던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응답자들 중 약 90 퍼센트 가량이 교회를 떠나기전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고 답했다. 그들을 교회 쇼핑하는 이들이라고 쉽게 라벨을 붙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 중 45.7 퍼센트가 한 번도 교회를 옮긴적이 없다고 답했고 단 6.1 퍼센트만이 가나안 성도가 되기 전 다른 교회들에 적을 옮긴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놀랍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신앙이 없는 소위 날나리 신자들이라기 보다 교회생활과 사역에 깊이 관여했고 비교적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 충격으로 다가온다.

⁴ 늘어나는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Should We Do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Ganaan Christians?” Jung Jae Young, Last modified August 31, 2018, accessed October 2, 2018,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2636/.

그렇다면 그들은 왜 떠나는 것인가? 2013 년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30.3%), 2) 목회자에 대한 불만 (24.3%), 3) 교인들에 대한 불만 (19.1%), 신앙에 대한 회의 (13.7%) 등으로 그 이유를 밝혔다.⁵ 정재영 교수가 가장 최근에 한 설문조사결과는 1) 교회출석 욕구 부재 (31.2%), 2) 개인적 이유 (18.8%), 3)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13.9%)로 나타났다. 앞선 조사에서 나왔던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 ‘교인들에 대한 불만,’ 또는 ‘지난친 헌금 강조’ 등의 이유는 5~6%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⁶

위의 두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의 변화도 감지된다. 2013 년에 있었던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가 될 수 있다. 먼저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와 ‘신앙에 대한 회의’에서 보여지듯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불만이 큰 부분 (44%)을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불만, 즉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또 다른 한 축(43.4%)을 차지한다. 즉,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불만과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가장 주된 이유가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교회출석 욕구 부족’ ‘개인적 이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약 64%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제는 교회 내부분제에 대한 고민이나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만족보다 개인의 편의나 생각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 중 가나안 성도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들은 90%이나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의견은 55%에 불과했다.⁷ 이러한 응답들을 종합해 볼 때 가나안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며 반드시 교회와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한 좀더

⁵ 조성돈, 정재영 교수팀의 공개세미나 “가나안 성도, 갈 길을 잃은 현대인의 영성” (명동청어람, 2013 년 4 월 25 일).

⁶ 가나안 성도 신앙생활 탐구 ‘Part 1 가나안 성도 신앙의식 및 신앙생활 조사발표’ 정재영, 2018 년 11 월 30 일. 14.

⁷ Ibid., 7.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중 66.9%는 ‘출석했던 교회에서 개인의 다양한 신앙관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답했고, 62.1%는 ‘출석했던 교회는 전통에 얽매인 분위기’라고 응답했다. 틀에 박힌 신앙의 모습과 기준만을 획일적으로 강조해온 교회의 분위기가 개인이 가진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 뒤를 잇는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신앙에 대해 어떤 질문이든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2.5%에 달함을 볼 때 이러한 분석이 상당부분 신뢰를 얻는다 하겠다. 즉,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 (Unity in diversity) 보다 획일화된 통일 (Conformity)을 강조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숨막히게 다가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영 교수는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가 불편하고 교회라는 틀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이들은 교회를 이탈하기 전 출석한 교회에 대해 ‘신앙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좀더 깊이 있는 분석과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나 본 논문에서 다 다루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소위 ‘가나안 성도’로 지칭되는 이들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조사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미 떠났으며 그 행렬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2) 가나안 성도들은 신앙이 얇은 소위 명목상 신자 (nominal Christian)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사역에도 참여했던 이들도 상당 수 있다. 3)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단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고민과 교회자체에 대한 불만족 등 좀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과 답변들을 대하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변화가 오게 되었다. 즉,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라는 질문보다

교회라는 그 자체를 자기들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나 조건으로 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더 우선적이라는 생각 말이다.

가나안족과 미셔넬족

가나안 성도로 대변되는 현재 한국교회 성도이탈현상에는 한 두가지 이유만 있을 수는 없다. 당연히 여러가지 상황과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으리라. 하지만 전체 기독교인구의 적어도 1/5에 해당되는 수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의 밑바탕에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보고서 분석에 의하면 가나안 성도 현상을 일으킨 세 가지 주요 원인들에 대해 분석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 세속화, 그리고 교회 염증이다.⁸ 송인규 소장에 따르면 한국은 본디 유교적 가족주의 형태의 공동주의를 지향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개인주의적 경향이 심화되며 준(準)집단주의, 탈(脫)권위주의, 그리고 선(先)자아주의 등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무(無)집단주의와 반(反)권위주의, 그리고 과(過)자아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⁹ 그렇기에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 속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하기 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에 놓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짙어졌기에 교회 또한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요인 중 하나일뿐 개인이 얼마든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인식이다.

⁸ Ibid. 가나안 성도 신앙생활 탐구 'Part 2 교회는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송인규, 2018년 11월 30일. 87.

⁹ Ibid., 88.

두 번째 원인인 세속화란 “어떤 개인의 관심이 궁극적(종교적) 사안으로부터 준궁극적 사안으로 크게 바뀌는 관심사적 전환 (shift of attention)”¹⁰을 의미한다고 한다. 영원이나 초월적인 존재 혹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가치와 목적에 더 큰 의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기에 신앙 또한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의식에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원인은 교회 염증으로, 교회 내부에서 경험되고 목도되는 불합리와 갈등, 문제와 병폐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좀 더 자세한 이유로는 “목회자와 연관해서는 그릇된 목회 태도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로 인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 부족한 자질 [신학적 깊이와 리더십 부족, 언행 불일치, 소통 및 공감 능력 부족], 잘못된 목회 목적 및 교회 구조 문제 [영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경영자, 연예인, 개그맨을 닮아 가고자 함]가 거론되었고, 성도들의 경우에는 정체성 상실로 인한 이원론적인 삶, 기복 신앙과 물질주의, 자기 편의적 신앙 생활추구, 듣기 좋은 설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¹¹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송인규 소장의 견해로는 이미 개인주의와 세속화로 교회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교회 염증이 가나안 성도 현상을 더 가속화 시킨 요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자체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지만 좀 더 사회문화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채 방법론에만 매달린다면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¹⁰ Ibid.

¹¹ Ibid., 89.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해 꾸준히 연구 조사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정재영 교수의 또다른 글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를 하나의 족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의 글 ‘탈현대 시대에 소속 없는 신앙인, 가나안족’에서는 가나안 성도를 단지 교회 내에서의 갈등과 불만족 때문에 반응적으로 이탈하는 부류로 보기보다 더욱 근본적인 사고와 인식의 변화로 인해 다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교회를 떠나가는 새로운 성격의 구성원으로 분류하고 있다.¹²

이미 서구에서도 “제도권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현상 faith outside institution”이라든지 “소속 없는 신앙 believing without belonging,” “교회 밖 그리스도인 unchurched Christian”¹³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해 온 것처럼, 어쩌면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정재영 교수는 이 가나안족의 문화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강요받는 신앙에 대한 부담감 2) 소통 단절의 문제 3) 신앙과 삶의 불일치 4) 자기식으로 표현되는 신앙.¹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것은, 정재영 교수가 이야기하는 가나안족과 일반적인 가나안 성도는 다르다는 점이다. 가나안족은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고백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채 다른 대안을 찾아 교회를 떠난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들을 위의 네 가지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심지어 ‘구원의 확인’에 있어서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강요받는 데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앙에 대해 누군가가 천편일률적인 공식만을 강조하고 획일적인 방식만을 강요하는 것이 숨막히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소통의 단절 문제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¹² 물론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전체 가나안 성도를 이런 범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비판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나안족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

¹³ 양희승,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4), 11.

¹⁴ 정재영, *탈현대 시대에 소속 없는 신앙인, 가나안족* (서울: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정기세미나, 2013), 6-11.

있다. 개인의 목소리, 다양한 방식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소리만을 모두 내도록 강요하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데에서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며 결국 마음을 열지 못한채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 문제 역시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즉,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원론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실망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며,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소위 본회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만 존재할 뿐 진정 ‘따름과 복종’이 없는 얕팍한 모습에 실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앞서 열거한 원인들은 마치 가나안 성도 현상을 기성교회나 그 구성원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듯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난, 떠나고 있는, 그리고 떠날 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좀 더 이해하자는 측면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살펴보려한다.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인 ‘자기식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어찌면 위의 세 가지 원인들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해결을 교회 내에서가 아닌 교회 밖에서 찾고자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으며, 이것이 아마도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특성이자 교회가 이해하고 다가가며 함께 삶과 복음을 나누어야 할 새로운 유형의 대상일 수 있겠다.

박양식 교수는 이들을 아예 ‘새로운 종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여러 새로운 구성원들이 생겨나는 예¹⁵를 들며 이러한 변화가 교회 내의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들 가운데서도 소위 “‘포스트모던 교회,’ ‘이머징교회,’ ‘유기적교회,’

¹⁵ 상위 1%에 맞서기 위한 서민들의 자발적인 대안으로서의 지역 합동조합이나 자급자족적 공동체 시스템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의 참여를 저널리즘에 통합시키며 블로그와 뉴스의 만남을 표방하는 ‘히핑턴포스트’ 같은 매체를 예로 들기도 한다. 박양식, *길 잃은 교회와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인 부족: 미셔널족의 출현과 전망을 중심으로* (서울: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정기세미나, 2013), 44.

‘관계적교회,’ ‘교회 안의 교회,’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어쿠아교회,’ ‘리퀴드교회,’ ‘카페교회,’ ‘미셔널교회’ 등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¹⁶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인 ‘정글의 법칙’의 예를 들어 소위 ‘병만족’과 같은 새로운 족속이 교회 내에 생겨나고 있음을 주장한다.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이유에는 병만족이 “원초적인 삶의 조건으로 대표되는 정글의 법칙을 터득하며 어떤 조건에서든 적응하여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⁷는 면이 현시대 사람들에게 공감과 도전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교회 내부에서도 본능적으로 영적인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정글의 법칙을 터득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들이 있음을 박양식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고찰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해 오던 논의가 “교회 형태의 변화”에만 대한 것이었지 “교회 구성원에 대한 논의”로까지 전환되지 못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¹⁸

사실 앞서 예로 들었던 여러가지 형태와 성격의 교회들은 각각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종교사회적인 고찰 가운데 나온 대안들이었다. 마치 베이비 부머들을 타겟으로 하는 구도자중심예배 (seeker-sensitive worship)와 같은 것들 말이다. 종교사회학적으로 본 베이비 부머들의 대략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서 성장했으나 많은 경우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교회경험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난 이들이다. 1946 년에서 1964 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근대문화시기(cultural period of modernity)에 마지막으로 형성된 세대이다.¹⁹ 그렇기에 이들을 전도하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월로우 크릭교회나 새들백교회로 대표되는 구도자중심교회들이 강대상을 치우고, 가운을 벗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식의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최대한 교회의 종교성을 제거하며

¹⁶ Ibid.

¹⁷ Ibid.

¹⁸ Ibid., 45.

¹⁹ Eddie Gibbs and Ryan K. Bolger, *Emerging Church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21.

다가가 교회로 들어오는 턱을 낮추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사회학적인 고찰과 분석 없이 많은 한국교회들은 그 예배들의 형식만 들여옴으로 소위 ‘열린예배’라는 유행만이 한때 교회들을 휩쓸고 갔으나 정작 불신자들의 전도와 정착이라는 열매는 적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만 예배형식의 변화를 통해 그간 획일적이고 전통적인 형식에 눌러 있던 이들에게 새롭고 자유로운 예배와 찬양을 경험케해 숨통을 트여준 순기능은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 성도들의 수평이동이라는 부작용도 낳았음을 인정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던 이들과 교회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던 목회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라는 부정적인 결과 또한 나타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베이비부머들과는 전혀 다른 X 세대에 대한 종교사회적 고찰 없이,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그저 이머징처치(Emerging Church)를 본 따 카페교회를 한다든지, 예전(liturgy)과 상징(symbol)을 강조하는 예배형식의 변화만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가져온다면 앞서 경험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하게 될뿐이다. 이머징처치에 대한 고찰은 이후 Section II Other Propose Solution 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이들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와 분석, 고찰과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가나안 성도들 중 청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년들의 탈교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위 가나안 성도라 일컫는 이들 중에는 자기들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갈등 끝에 교회를 떠나게 된 이들이 많다. 물론,

계중에는 교회나 신앙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조차 없는 이들,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류는 현재 자신의 신앙상태나 교회의 모습에 대해 계속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는 이들, 그 중에서도 청년에 해당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래야만 구체적인 타겟그룹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에서 천 명의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017 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중 15%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밝혔으며 그들 중 28.3%가 소위 가나안 성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니까 대략 1/3 정도의 대학/대학원생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심각할 정도의 수치임은 분명하다.

바나그룹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십대부터 청년들까지, 그리고 부모들과 청소년 사역자들, 담임목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들의 타겟그룹은 십대때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청년들로 15 세 이후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들을 샘플로 삼았다. 바나그룹은 그들의 응답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다음과 같다.

1) 교회가 지나치게 과잉보호(overprotective)하려고 한다. 2) 십대와 이십대들의 기독교 경험이 피상적(shallow)이다. 3) 교회가 과학에 대해서 적대적(antagonistic)이다. 4) 성과 관련된 젊은 크리스천들의 교회 경험은 주로 단순(simplistic)하고 판단적(judgmental)이다. 5) 그들을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에 힘들어 한다. 6) 신앙적인 질문들을 가지는 것에 대해 교회가 우호적이지 못하다.²⁰

미국 교회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한국 교회 안에서의 청년들은 어떠한가?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신교 학생 비율이 15%였으며 그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는

²⁰ "Six Reasons Young Christians Leave Church" Last modified September 27, 2011, accessed October 2, 2018, <https://www.barna.com/research/six-reasons-young-christians-leave-church/>.

28.3%였다고 한다.²¹ 이 수치는 바나그룹이 미국인 대학, 대학원생들 같은 인원을 조사한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청년위원회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가 그들의 설문조사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청년의 교회/종교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의 백서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성공지상주의: 하나님께 실망하다. 2) 개인화된 신앙: 공동체는 필요 없다. 3) 폐쇄성: 고립된 교회, 떠나는 청년. 4) 권위주의: 교회개혁을 가로막다.²²

미국 기독교청년들과 한국 기독교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각 응답들 아래에 흘러가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는 있다. 첫째는, 교회가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에 점점 더 무관한 것이 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빨리 여러 다양한 관점들과 아이디어들에 노출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표현되고 적용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시대적 문제들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기 원하며 또 나누기 원한다. 하지만 23%가 응답한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교회 밖의 모든 것들을 악마화(demonize)해 버리고 진짜 세상의 문제들은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다.²³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 청년들로 하여금 함께 성장하고, 훈련받고, 준비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가능한 많은 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올 생각만 할 뿐 이들을 훈련시키고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어 그들 각자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장과 번영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개인주의를 강화시켰으며

²¹ “대학생 중 개신교인 15%, 그중 28.3%는 ‘가나안,’” Last modified October 31, 2017, accessed November 2, 2018,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61>.

²² EYCK & NCCK 청년위원회 엮음.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 (서울: 동연, 2017).

²³ “Six Reasons Young Christians Leave Church” September 27, 2011, accessed October 2, 2018, <https://www.barna.com/research/six-reasons-young-christians-leave-church/>.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영성의 알파함만 더욱 가중시켜왔다. 세 번째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스타일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솔직한 고민과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질문은 믿음의 부재로 여겨지거나 반항의 모습으로 비쳐졌으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결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당면한 현실적 질문들을 교회 안에서 던지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못했으며 그들 믿음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적인 의심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현상과 원인, 그리고 청년들의 응답과 그들의 좌절들을 살펴보면서 가나안 성도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도 조금은 달라졌으리라 기대한다. 멀리서 보았을 때 가나안 성도들은 그저 교회가 못마땅해서 혹은 그들의 믿음 정도가 약하고 미숙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다 못해 하찮게 여겨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발걸음을 끊어버린 배교자들 혹은 문제아들처럼 여겼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본다면 좀 더 철저한 신앙교육이라든지, 일대일로 책임지는 바나바 사역이라든지, 교회와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강조하는 성경공부 등을 그 대안으로 내놓으려 할 수 있겠다. 결국 그 방법이라는 것은 다시금 교회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의 틀 안에 적응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설득하거나 감동시키려는 목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가까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생각과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문제와 실수를 그들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교회를 떠난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떠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고 있는 목회자들과 내부자들의 자기반성과 고찰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실제로 어떤 가나안 성도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표현이 끝자락에 등장한다.

질문자: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응답자: 저에게 왜 떠났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들은 왜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제가 떠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성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저에게 설득력 있는 답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할 사람과 대답할 사람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²⁴

여운이 많이 남는 말이 아닐 수 없고, 약점을 찔린 것처럼 아픈 말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인터뷰 대상자의 고민과 결정이 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정답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신앙과 현재 교회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선입견으로 쉽게 재단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될 것이다.²⁵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대상자들에 대한 심도있고 폭넓은 이해와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인 ‘다른 대안들’ 부분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²⁴ 양희송, 34.

²⁵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실제 교회생활도 청소년기에 성실하고 꾸준히 했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기독단체에 몸담고 캠퍼스 담당 간사 및 본부 행정으로 수 년간 섬긴 사람이다. 하지만 작금의 교회행태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 끝에 말하자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 교회를 떠난 (leaving church to follow Jesus)’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SECTION 2: OTHER PROPOSED SOLUTIONS

대형교회 청년부

교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 교회 안의 부자는 더 부요해 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 진다는 뜻이 아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해져가고 작은 교회일수록 더 힘들어져 간다는 의미이다. 무슨 뜻인가?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수가 많으며, 교육부가 잘 갖춰져 있고, 여러가지 사역과 훈련의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교회에는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꾸준히 몰려든다. 반면, 자체건물도 없어 오후에 예배당을 빌려 예배드리고, 교육부 전도사를 둘만한 재정도 없어 제대로 갖추어진 교육부도 없으며, 다수에 묻혀 익명성을 즐기며 조용히 예배만 왔다갔다 하기에는 너무도 눈에 띄고 빈자리도 크게 보여 부담을 느끼며 교회를 다닐 수 밖에 없는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게 무언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켜 놓으면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혹은 자신의 신앙성장을 위한다는 이유로 주변 대형교회로 수평이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종종 볼 수 있던 모습이다.

필자는 이민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로 십여년간 섬기는 가운데 전통적인 교회, 개척교회, 분규가 있던 교회, 대형교회 등을 두루 경험했다. 그렇기에 각각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행태들을 직접 목격할 기회들이 있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이민오는 사람들을 공항에서부터 픽업해서 아파트와 자녀들 학교등록, DMV 라이선스 획득과 취업알선 등 거의 사회복지사(social walker) 이상의 수고를 다한다.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다해 교회에 정착시켜 놓으면 어느정도 이민생활도 적응이 되고 주변상황도 파악이 될 즈음에 더 큰 교회로 옮기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따질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저 속으로만 가슴앓이를 하며 몇 안되는 성도들마저 떠나갈까 노심초사 뛰어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또한 필자는 미국에서 가장 교세가 크다는 한인교회 중 하나에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처음 부임했을 때도 그 교회의 한어청년부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부임시 250 여명이었던 청년들이 약 4 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500 여명 이상으로 성장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그 이유와 비결에 대해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별히 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자기 발로 찾아왔다. 예배 후 새가족 1 주차를 내가 진행했기에 매주마다 새로 오는 이들을 만나며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나의 기억으로는 단 한 주도 새신자가 없는 주일이 없었다. 많을 때는 한 주에 십여명에서 이십여명 가까이 온 적도 여러번 있었다. 왜 그랬을까? 작은 교회들은 청년들이 없어 고민이라는데 왜 그 교회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청년들이 차고 넘쳤을까? 아마도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이민교회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며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하며 알게 된 이유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형교회일수록 인적, 물질 지원이 더 뒷받침되기에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청년들이 찾게 된다. 특별히 청년들만의 자체 주일예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민교회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필자가 섬겼던 교회는 주일날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가 드려지는 거의 유일한 한인교회였다. 이것은 청년들에 맞추어진 메시지와 찬양, 예배 형식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 청년부 자체 찬양팀과 새가족부서, 양육과 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회 안의 교회(church in church)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대형교회의 안전한 울타리(boundary)

안에서 청년들에 맞추어진 또 다른 작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청년들의 필요에 더욱 직접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3) 청년의 때는 만남과 교제에 대한 필요가 클 수 밖에 없다. 특별히 이민 혹은 유학생활동을 하고 있는 한어권 청년이라면 같은 한인들, 그것도 크리스천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야하는 시기에 있다보니 크리스천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대형교회 청년부만큼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만날 수 있는 다른 이상적인 조건도 없을 것이다.

이 밖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모으고 또 붙잡아두기에는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대형교회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형교회 청년부가 앞서 언급한 가나안 성도 현상을 막거나 혹은 대안을 제시할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우선 대형교회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요 모든 교회가 대형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일시적으로 청년들을 교회에 묶어둘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한 청년들의 탈교회 현상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중 대형교회에서도 청년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청년연합사역과 단체들

미국에서 한인 청년들을 위한 사역 단체들은 여럿 있었다. 그 중에서 필자가 주로 사역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가주에만해도 대표적인 한인청년사역단체로 네 개를 꼽을 수 있다. HYM (Here am I, Young Christian Movement), 미주기독교청년연합회 (KAYAC), R 제너레이션, 그리고 파이어 크루세이드 (Fire Crusade)가 바로 그것인데, 그 중에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HYM 과 파이어 크루세이드 밖에는 없다. 한 때 전성기를 구가하며 연합집회에 많은 청년들이 모이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고 한다. HYM 의 더글라스 김 대표는 처음 집회가 시작되었던 1999 년을 떠올리면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 집회를 열면 각 교회로부터 청년들이 1000 명 넘게 몰렸다. 하지만 지금은 이틀간 열리는 집회를 모두 합해도 200 여 명이 채 안된다.”²⁶ 이 인터뷰가 실렸던 기사가 2015 년에 작성되었기에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볼 때 지금은 더욱 사정이 좋지 않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사에 의하면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의 모판이다. 미주 한인교계도 한국처럼 청년 사역이 활기를 띠었다. LA 지역에는 1990 년대 후반 청년층을 위한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었다. 인기는 대단했다. HYM 과 청년 사역자 모임인 ‘카약’이 구성된 것도 이때쯤이다. 카약은 이후 ‘R 제너레이션’이란 이름으로 바꿨다. 당시 R 제너레이션은 남가주 지역 중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들을 수차례 개최했다.”²⁷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다가 2000 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앞서 열거했던 대부분의 사역들이 없어졌으며 HYM 과 파이어 크루세이드 정도만이 꾸준히 정기 집회를 가지고 있지만 모이는 인원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청년연합사역단체나 집회 또한 이민교회내 가나안 청년성도들에 대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교회 제자훈련

가나안 성도 현상을 접하면서 교회 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자성의 목소리들 중 하나는 ‘교인들’ 만드는데 집중한 나머지 ‘제자들’을 세우는데 실패했다는 고백이었다.

²⁶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한인교계 위기감” Last modified Apr. 14, 2015, accessed Oct 2, 2018,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07675.

²⁷ Ibid.

교회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무조건 교회로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교세를 늘리기만 했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제자훈련은 지난 40 여년간 한국교회에서 유행처럼 많은 교회들이 시도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의 주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제자훈련이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섹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충분한 대안으로서의 제자훈련을 다루어야 하기에 한국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과 평가에 좀 더 집중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교계에 제자훈련이 처음 도입된 것은 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들을 통해서였다. 그 중에서도 네비게이토선교회(Navigators)의 역할과 기여가 컸다. 네비게이토선교회는 1960년대 초반부터 ‘제자삼기(disciple-making)’를 사역의 주축으로 삼아 미국네비게이토에서 만든 여러가지 교재들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실시하였다. ‘제자’ 혹은 ‘제자삼기’라는 용어 자체가 생경했던 한국 교회에 이러한 개념과 용어가 확산되게 된 데에는 네비게이토선교회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²⁸ 그러던 것이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학생성경읽기(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생선교회(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그리고 기독학생회(IVF, Inter-Varsity Fellowship) 등의 선교단체들도 일대일 혹은 소그룹 성경공부의 형식을 통해 제자훈련을 캠퍼스 사역에 적극 활용하며 강조해 나갔다.²⁹ 이러한 캠퍼스사역단체들이 제자훈련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며 향후 이러한 제자훈련을 경험한 이들이 목회자가 되면서 지역교회로 좀 더 대중화 시키는데

²⁸ 송인규, *제자도와 제자훈련 커리큘럼*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9), 415.

²⁹ Ibid., 416.

이바지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교회에 있어서 제자훈련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정착하게 된 데에는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를 빼고 말할 수 없다.

1978 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옥한흠 목사는 개척초기부터 “소그룹을 중심으로 평신도들을 육성하여 전 교인을 제자화하여 하나의 작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³⁰을 제자훈련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매진하였다. 소위 ‘평신도를 깨운다’는 캐치플레이즈는 옥한흠 목사 제자훈련의 타이틀이기도 하며 그의 제자훈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은 평신도만 깨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깨운 자극제가 되었다. 결국 목회자들 의식의 변화와 주도가 없이는 개 교회에 제자훈련이 소개될 수도, 정착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은 한국교회내 평신도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평신도는 전문 목회자들이 제공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의 수혜자로서 주로 받기만 하는 쪽으로 인식이 되었었다. 즉, 교회 내에서 사역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교역자들의 몫과 책임이었고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에 따라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본분(주일성수, 헌금생활, 교회봉사 등)만 다하면 되었다. 하지만 옥한흠 목사는 “교역자의 중요한 역할은 누구를 대신하거나 대표하는데 있지 않고 평신도가 참 제사장으로서 그 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하는데 있는 것이다.”³¹고 주장하며 종교개혁 이후로 그저 구호처럼만 외쳐왔던 만민제사장설의 실제적인 적용을 강조했던 것이다. 즉, 경기로 치자면 평신도들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며 목회자는 코치나 감독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옥한흠 목사는 이러한 제자훈련을 다른 교회들에

³⁰ 이중표, *제자훈련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국제제자훈련원, 1999), 39.

³¹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1998), 58.

소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1986 년에 설립된 국제제자훈련원을 통해 정기적인 세미나를 제공해오고 있다.³²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 끼친 영향과 부작용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영향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평신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그 전의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교회 공동체의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이다.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도 둘(성직자와 평신도)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는 엄연히 교회의 주체이며 교회라는 공동체 그 자체인 것이다.”³³라고 옥한흠 목사는 일갈하며 평신도 교회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자훈련으로 인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공부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일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다만 신앙의 정도와 훈련의 시차가 있기에 다같은 제자임에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³⁴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주로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 복음주의 4 인방이라 불리는 옥한흠, 하용조, 홍정길, 이동원 목사 모두 제자훈련을 개교회에 적용하여 보급시킨 대표적인 이들이다. 그렇기에 한국교회에 전해지고 실시되어온

³² “국제제자훈련원은 최근 100 기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99 기까지 CAL 세미나를 수료한 사역자가 국내 1 만 8,482 명(65 회), 미주 2,225 명(21 회), 일본 521 명(8 회), 브라질 777 명(4 회), 대만 118 명(1 회) 등 총 2 만 2,123 명이며, 수료생 중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2,083 명의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재영,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한국 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사회학적 검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6), 165.

³³ 옥한흠, 41.

³⁴ 옥한흠,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26.

제자훈련은 복음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⁵ 한국에서의 복음주의는 신학적 보수주의는 받아들이면서도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추구했다.³⁶ 그러기에 전통적인 교회들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무관심과 방관의 자세를 보일 때 복음주의 교회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논리성이 약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전통의 주입식 교회 교육에서 탈피해 소그룹으로 모여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의 적용 및 실천을 중시하는 소그룹 중심의 새로운 교육 방법”³⁷을 가르치고 활용함으로 기존의 교회 교육에 식상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지만 부작용 또한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별히 최근에 와서 제자훈련의 한계와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한 반서의 목소리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이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은퇴교수인 송인규 교수의 지적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 제자도와 관련해 여전히 신학적 조망이나 성찰이 약하다.
-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대한 안목이나 아이디어가 크게 결여되어 있다.
- 제자훈련 내용 가운데 공적 제자도(public discipleship)에 대한 가르침이나 훈련이 거의 전무하다.
- 제자훈련이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 제자도가 제자훈련 프로그램[1:1 양육 프로그램, 전도 훈련 등]으로 환원(축소)되었다.

³⁵ 물론 예수전도단(YWAM)이나 셀사역, G12 사역등 카리스마적 배경을 가지는 제자훈련 줄기도 있지만, 대체로 제자훈련을 도입한 한국교회들은 성경에 바탕을 둔 복음주의를 기본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³⁶ 박용규, *한국 복음주의의 태동* (신학지남 256 호, 1998 년 가을), 292.

³⁷ 정재영 2016, 169.

- 제자훈련가가 기계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학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제자훈련이 정해진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과 단계별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양 착각한다.³⁸

한국교회 제자훈련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인규 교수의 평가와 진단은 크게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1) 신학적이고 전인적인 고찰과 적용이 부족하다는 것과, 2) 제자훈련이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성경공부 과정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 그리고 3) 훈련의 방법이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일률적이고 메뉴얼적인 스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점이다. 이런 요인들은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공헌한 여러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병폐와 부작용 또한 가져오게 된 이유들이 되었다. 먼저는 앞서 미국에서의 사례들을 형식만 빌려 옴으로 한국교회에서 그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살리지 못했던 예들과 같이, 목회자들 가운데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교회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유행 혹은 수단으로만 생각해 그 본질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깨워서 그들이 교회의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교회론을 중시했던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여전히 성도들을 어르고 달래어 성경공부 과정과 사이클에만 묶어두게 된 것이다. 무엇인가 숨가쁘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로서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밖 삶의 터전에서도 제자답게 살아가며 변화와 변혁을 이루는 목적과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제자훈련을 실행하고 또 추구하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전통적인 목회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아무래도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배가 또는 증식의 논리와 전도에 대한 강조 때문이기도

³⁸ 송인규,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6), 139-140.

하겠다. 또한 제자훈련의 좋은 예로 알려지고 소개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라는 점도 이러한 경향을 무게를 더한다.³⁹

또한 ‘광인론’을 주장하며 한 사람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강조했던 옥한흠 목사님의 기치와 다르게 제자훈련의 과정을 수료했는지, 언제 수료했는지, 나를 가르친 사람과 내가 가르친 이들이 누구인지 등만이 관심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 본래 가고자 했던 길을 계속 순례해 나가기 보다 도상에서 누가 크고 작은지만 따지는 현실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한다. 그래서 평신도의 사도적 교회론이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많이 낳게 된 것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무래도 제자훈련은 헌신된 소수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오랜 기간 진행되는데다 과정을 수료한 자들을 교회내 리더로 세우게 되다 보니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심어 주고 그렇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상대적인 열등감을 주어 교인들 가운데 위화감을 조성함으로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게 된 때문이기도 하겠다.⁴⁰ 또한 옥한흠 목사가 생전에 강조하고 경고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이끌기보다 인도자의 제자로 만드는 우를 범하다보면 교회 내에서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계파들이 생겨날 위험이 컸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다단계 사업에서 강조하는 피라미드 구조와도 같아서 교회 내에서 누구의 라인이며 계파인지를 은연중에 비교하고 따져서 위계체계를 형성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또한 유교적인 한국문화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보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형성으로 인해 전인제자, 전인제사장 의식 가운데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지체요 형제, 자매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만들게도 한다.

³⁹ 정재영, 178.

⁴⁰ 허남기, “한국 교회 제자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교회 203 호, 1993), 10.

이 모든 것이 제자훈련을 교회 안의 프로그램으로 혹은 교회의 양적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볼 뿐 예수께서 주신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을 따라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격려하고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온 부작용들이라 생각된다. 아래 정재영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과거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은 ‘자기 사람 만들기’ 식의 훈련으로, 주일에조차 지역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려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속 단체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충성심을 보이지만, 단체 밖의 사회나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탈사회적 활동만 강조했다. 따라서 교회마다 제자 사역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성장이나 자신의 신앙 성장, 심지어는 기독교 왕국(Christendom) 형성을 위한 도구들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⁴¹

목적과 수단이 도치되어 버린 것이 가장 큰 병폐이다. 제자의 길은 일평생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하는 여정이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수료해야 할 한 과정으로만 치부해 버린다면 성화의 과정에 대한 초점과 의미를 잃어버릴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또한 교회 밖 실제 터전 속에서 삶으로 살아져야 할 제자도가 교회 내부 사역만을 위한 조건 혹은 수단으로만 여겨진다면 오히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데이빗 왓슨은 그의 책 ‘제자도’에서 “제자도는 한마디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⁴²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세운다는 제자훈련이 그들을 마냥 교회로만 불러들여 교세를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정착수단으로만 사용된다든지, 교회 안의 사역들만을 위한 소모품을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 되어버린다면 제자도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 될 것이다.

⁴¹ 정재영, 179.

⁴² 데이빗 왓슨, *제자도* (서울: 두란노, 2004), 7.

제자훈련과 청년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제자훈련과 가나안 청년들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앞서 살펴본것과 같이 한국교계에서 제자훈련의 도입과 정착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캠퍼스선교단체들이었다. 즉, 기독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들 중 선교단체들을 통해 제자훈련을 받고 리더로 세워진 이들이 다른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이클을 계속해서 만들고 확산시켜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졸업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개교회에도 제자훈련을 접목 정착시켜 나간 이들 또한 많았다. 사랑의교회등을 통해 한국교회에도 제자훈련이라는 용어와 방식이 널리 알려지고 도입되면서 많은 교회 대학부, 청년부에서도 이러한 제자훈련 방식을 적용하여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적어도 리더쉽훈련의 필수과정으로 삼는 케이스도 일반화 되었다. 시중에는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하는 제자훈련교재와 일대일양육교재를 비롯해 수많은 귀납법적 성경공부 교재들이 출간되었고, 캠퍼스선교단체에서 사용되던 교재와 자료들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아래의 도표는 대표적인 청년사역자 중 한명인 고직한 선교사가 쓴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⁴³에 실려있는 훈련과정도식이다. 이 도식에도 쓰여 있듯이 이것이 대학청년훈련 과정의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⁴³ 고직한,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홍성사, 200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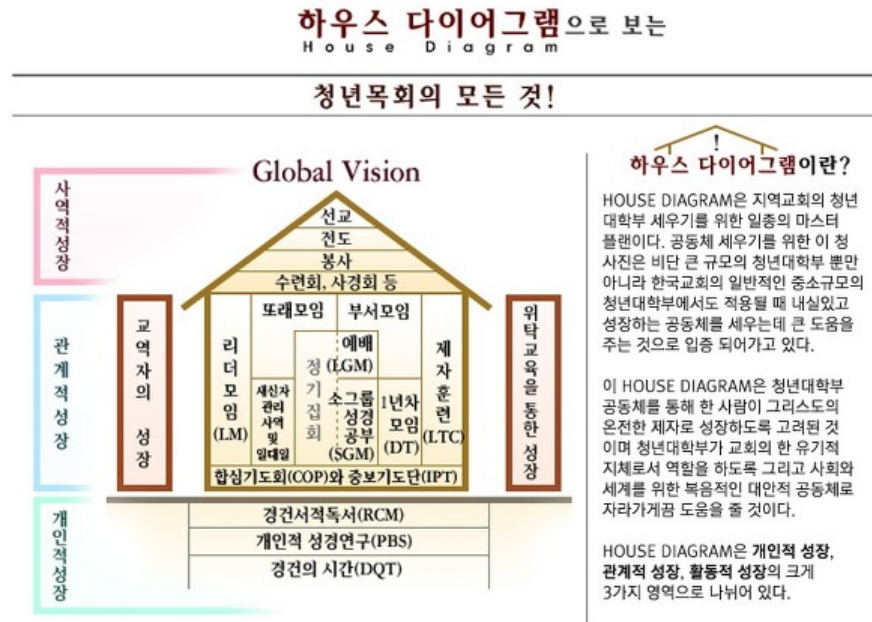


Figure 1-청년훈련과정 하우스다이어그램

단계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그림과 체계가 대부분 대학청년부에서 지향하는 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청년들은 이런 양육과정 혹은 훈련과정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고 역시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대학청년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내에서 대학부나 청년부의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 수평이동 조차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인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예전에 제공되던 제자훈련 과정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가? 제자훈련이라는 유행이 이미 지난버린 것인가? 섹션 1에서 제기했던 대상의 변화와 그에 대한 이해는 잠시 미뤄두고 한국교회 내에서 일고 있는 제자훈련 자성론에 비추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 하나의 프로그램화 되어버리고 수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게 된 부작용이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대학청년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소그룹을 강조하고 원하는 대학청년부의 분위기상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필요한 상황과 맞물려 제자훈련은 말그대로 리더훈련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젊은 청년세대이면서도

기계적인 주입식 방식이 강조되고 강요되는 분위기 또한 열정 있는 이들 외에 초신자나 처음 교회를 접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부담감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문제는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학부를 졸업하여 떠나게 되고, 청년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청년부서를 자연스레 떠나게 되니 리더수급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었고 관심없는 일반 청년들을 설득하여 훈련시키기보다 당장 급한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훈련에만 매진하다보니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열심있는 청년들은 제자훈련받고 리더로 섬기기 바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오히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채 교회만 다니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게다가 교회에서 청년은 항상 가용 일군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교회만 오면 헌신 봉사를 강요받기 일수였고, 게다가 작은교회 청년들은 공급받는 것은 거의 없이 열정봉사만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교회생활 자체에 지치고 질려버리는 부작용도 많이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관심사가 맞는 교회 밖 동호회 모임이나, 개인적인 취미활동 내지는 자기계발 기회들에 더욱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서 교회생활은 자연스레 소원해 지게도 되었다.

아직도 근대적인 권위주의적 문화가 교회내 팽배한 것도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게 된 요인이 되었고, 삶의 실제적인 고민과 문제, 이슈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없이 오히려 신앙적인 질문들을 믿음 없음으로 치부해 버리고 정답만을 받아들이고 외울 것을 강요당하는 분위기는 수많은 다양성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였을 것이다. 특히나 3 포세대⁴⁴라 지칭되는 20~30 대 젊은이들에게는 딱딱하고 소망없어 보이는 현실에 대한 당면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없이 예배출석과 헌신봉사만을 강조하는 메시지와

⁴⁴ “N 포세대,” N 포세대라고 불리며, “N 가지의 것들을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다...처음에 나온건 삼포세대였다. 삼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신조어다,” 최종수정시간 2018 년 12 월 21 일,
<https://namu.wiki/w/N%ED%8F%AC%EC%84%B8%EB%8C%80>.

문화에 더 숨이 막혔을것이다. 아무튼 여전히 청년들의 탈교회는 계속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청년사역 메뉴얼을 만들고 대학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전문사역단체를 표방한 Young2030의 페이스북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포스팅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기에는 이런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 온 QTzine 이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종이 잡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청년 사역의 부진으로 발행부수가 감소하면서 누적되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하게 2018년 12월호를 끝으로 월간지 제작을 중단합니다.”⁴⁵

이머징교회

2004년 11월자 크리스챤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서는 ‘The Emergent Mystique’라는 타이틀과 ‘Ministry fashion statement or the church’s future?’라는 부제와 함께 커버페이지로 소위 이머징교회(emerging church) 현상을 다뤘다. 기사의 머릿글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머징교회가 기독교내 새로운 하나의 운동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유행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머징교회 사실상의 영적인 리더로 간주⁴⁶되는 브라이언 맥라렌 또한 그것을 운동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라고 주장했다. 폴러신학교 에디 깁스(Eddie Gibbs) 교수 또한 이머징교회 현상이 뚜렷한 대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상 자체도 응집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운동이라 부르기를 주저했다.⁴⁷ 그렇다면 이머징교회란 무엇인가?

⁴⁵ 2018년 12월 30일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y2080/>.

⁴⁶ Andy Crouch, “The Emergent Mystique” in *Christianity Today*, Nov. 2004: 38.

⁴⁷ Eddie Gibbs, “Signs of an Emerging Church” in *Focus* Spring 2004. 4.

앞서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고민과 전도열정으로 구도자 중심 예배가 등장했다고 소개했던 것처럼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영미권을 중심으로 2000 천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이머징교회 현상은 엑스세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선교적 접근에서 비롯되었다. 엑스세대라는 말은 더글라스 커피랜드의 소설 'Generation X'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성세대인 베이비부머와 상당히 이질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마땅히 정의할 용어가 없다는 의미에서 엑스라는 용어가 붙여졌다고 한다. 이 세대는 주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며 자기중심적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세대이다.⁴⁸

이 젊은 세대들은 베이비부머들과는 달리 기독교적인 배경이 거의 없는 세대이다. 그러다보니 기독교나 교회가 종교성을 띠고 다가가는 것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머징교회들에서는 양초나 향 같은 것을 피우기도 하고, 십자가나 기독교의 상징성을 가지는 많은 심볼들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Emerging Church, Emerging Worship 이라는 책들의 저자이기도 하며 북가주 산타크루즈에 있는 빈티지웨이스교회(Vintage Faith Church)에서 사역하고 있는 댄 김볼(Dan Kimball)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즉, 1980년대 말 산타크루즈 지역의 청소년들 사역을 맡게된 댄은 그 당시의 유행과 추세에 따라 윌로우크릭이나 새들백과 같은 교회를 찾아 다니며 그들의 접근방식과 스타일을 배우게 되었고, 그 배운 것들을 직접 자신의 사역에 적용했다고 한다. 김볼 또한 이러한 방식을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여 아주 큰 성과를 보았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쯤 11명의 고등학생들로 시작한 사역이 250~350명 규모의 사역으로

⁴⁸ 1999년 10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세대 구분에 있어서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Z세대, N세대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나눌수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엑스세대를 대표하는 계층은 시기나 연령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젊은 세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발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김볼은 이로부터 몇 년 뒤 어떤 거슬리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흥미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 전전긍긍하던 중 김볼은 이러한 변화가 프로그램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는데, 예전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을 이제는 그런 말 뒤에 “그런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거죠?”라는 질문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사고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미국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사역자들과의 대화 중 자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역자들도 비슷한 유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볼은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엠티비에서 어떤 밴드가 어쿠스틱으로 연주하는 것을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보통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전자악기를 사용한 시끄러운 음악일거라 생각했는데 김볼이 엠티비를 통해 보았던 밴드는 전자악기를 배제한(unplugged) 어쿠스틱 악기로만 연주한 것이었다.

김볼은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즉각 실행에 옮겨 보았다. 화려한 무대조명을 떼내고 대신 촛불을 여러 군데 켜 두고, 시끄러운 음악 연주 대신 어쿠스틱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드라마와 동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대신에 아이들 몇 명이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성경 구절을 읽게 하였다. 평소보다 조용한 아이들의 반응에 실패를 직감했지만 모임이 끝난 후 평소 모임에 깊이 참여하지 않고 겉돌기만 하던 아이들 중 하나가 김볼에게 다가와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아주 좋았어요. 이건 매우 영적이었어요!” 김볼은 이 학생의 반응에 매우 놀랐다. 지금까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그토록 애써 왔었는데, 오히려 지금의 아이들은 종교적인 요소에 더 마음을 열고 반응한다는 것을 본 것이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 기독교가 가지는 종교적인 색채가 더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김볼이 깨달은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이었다.⁴⁹

물론 이머징교회는 위에서 묘사한 모습으로만 규정될 수 없으며 여러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댄 김볼의 예를 조금 자세하게 든 이유는, 젊은 세대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구조도 바뀌어 간다는 사실과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 이해와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이머징교회 현상은 그 이후 미셔널교회에 관련된 논의와 겹치며 실제로 운동 보다는 현상 내지는 대화에 그쳤고 오히려 교회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고찰 가운데 미셔널교회라는 좀더 큰 담론으로 옮겨져 온 듯 보인다.⁵⁰ 그렇기에 다음 섹션에서는 젊은 대상층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론에 근거한 성경적 제자훈련 대안을 위해 미셔널교회 논의 또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⁴⁹ Dan Kimball 의 책 *Emerging Church* 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Dan Kimball, *The Emerging Church: Vintage Christianity for New Generations*. (Grand Rapids: Zondervan, 2003), 21-38.

⁵⁰ 이머징교회는 한국교회에 그다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보다 “이런 현상을 주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접근이란 차원에서 하나의 하위문화(sub-culture)로 여기는 흐름으로…기성교회에 대한 신학적, 문화적 대항운동(counter-movement)으로 이해하는 흐름으로…그리고 포스트모던적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앙적 표현(new way of expression)으로 인식하는” 성찰과 질문들을 던지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양희송, ‘가나안 성도와 새로운 신앙의 방향’ posted on 2013 년 5 월 16 일, <http://ichungeoram.com/7134>.

SECTION 3: THESIS

조각 맞추기

이번 섹션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제자 및 제자훈련의 의미와 중요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과 영향, 기독교후기사회가 교회에 끼친 영향과 그 가운데 재발견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먼저 알아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초점은 교회이탈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특별히 방치되고 간과되고 있는 청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섹션 1에서는 가나안 성도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가운데 발견된 새로운 족속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다. 또한 그 모든 현상 속에서 가장 큰 영향과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들의 탈교회 이유와 그들의 필요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섹션 2에서는 청년들의 교회 정착 혹은 이탈 방지를 위해 그간 기울여 온 노력들과 대안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가운데 도달하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의 청년들과는 다른 문화사회적 인식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과거의 방법론은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하지만 또 다른 방법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보다 더욱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요구되는 정체성과 사명의 재발견일 것이다. 3)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며 예수께서는 대위임령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다른 이들을 제자삼는 일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4) 그렇다면 기존에 있어왔던 제자훈련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면 그 부작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새로운 보완책과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5) 또한 지금 현재 처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해하여 어떤 방식으로 본질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6) 그 고민과 숙고 끝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EPIC 모델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제자훈련이다.

앞에서 1), 2), 3)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번 섹션에서는 4), 5), 6)을 다루고자 한다. 즉, 제자와 제자훈련에 대한 좀더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고찰을 통해 그 본질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션교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금의 시대와 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론에 대한 고찰에서 나오게 된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취할 방법론의 방향과 성격을 정하고 확인 받을 것이다. 그런 후 EPIC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하며 왜 이것이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작은 조각들을 먼저 소개하겠다.

제자훈련

‘제자화(discipleship)’ 혹은 ‘제자훈련(discipleship training)’이란 표현은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들이겠지만 성경에 이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가 열 두명의 평범한 이들을 불러서 제자 삼고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사실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훈련을 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뿐이다. 그러기에 제자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제자에 대한 정의와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제자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고 영향을 받았을 구약시대의 제자도, 예수 당시 헬라시대의 제자도, 그리고 당시 유대사회의 제자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구약에서의 제자

구약에서 제자를 살펴보려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드리게 되는 뜻밖의 사실은 신약에서 사용된 제자(μαθητής)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헬라어로 기록된 칠십인역에서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유대교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사용되던 탈미드(תלמיד)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에 단 한번 밖에는 등장하지 않는데,⁵¹ 바로 역대상 25 장 8 절(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에서 발견될 뿐이다.

칼 렌스톨프는 제자라는 단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개념 자체도 구약에서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제자라기 보다는 곁에서 수종 들던 종의 위치에 더 가까웠다(수 33:11)고 볼 수 있다.⁵²

하지만 주로 예언서에서 여섯 번(사 8:16; 50:4; 54:13; 렘 2:24; 13:23)에 걸쳐 리무드(לִמּוּד)라는 용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우는 것,’ 혹은 ‘무엇에 익숙해 지는’ 등의 뜻으로 사용된 것을 두고 제자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도 한다.⁵³ 특별히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사 8:16~18)”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함에 있어서 제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제자도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도의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 간 스승-제자의 관계들은 예수님께서 이후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며 기대하셨던 관계들과 또한 부활

⁵¹ 마이클 월킨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신* (서울: 은성, 1995), 59.

⁵² K. H. Rengstorf,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V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67), 415-461.

⁵³ 마이클 월킨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신*, 60.

이후 세워질 교회 내에서 나누어지고 발전되어야 하는 관계들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클 월킨스는 그의 저서 ‘제자도(Following the Master)’에서 세 가지 관점을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구약에서 시작된 ‘가르침’의 형태가 신약에까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⁴ 2) “또한 이 가르침의 관계들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사역’에 방향을 맞춘다.”⁵⁵ 3) “그리고, 이 헌신 중심의 가르침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지향하는 지도자들을 준비시킨다.”⁵⁶ 이것은 흔히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으로만 제자도를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준다. 하지만,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위임령의 내용을 생각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과 ‘가서’라는 사역과 행동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게 된다.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인물들의 역할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예수를 쫓아 그의 영광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임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제자도가 예수의 제자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헬라-로마에서의 제자도

헬라어로 제자(μαθητής)란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선생을 모시고 있는 학생을 가리켰다. 그 일이 “옷감 짜는 일이든지, 악기 부는 일이든지, 의술이든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 선생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⁵⁴ Ibid., 73.

⁵⁵ Ibid., 74.

⁵⁶ Ibid.

말한다.⁵⁷ 그래서 제자화 과정에서 서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제자가 된다는 말은 공식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오히려 내적인 교제가 이루어짐을 뜻했다.

특히 헬라 철학자의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함으로뿐 아니라 그 생활양식을 따름으로 배웠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말보다 오히려 그의 성품으로부터 더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했다. 또한 많은 철학자를 길러낸 에피쿠루스도 함께 하는 공동생활을 통해 그의 제자들을 길러냈다고 했다. 즉 제자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가 따르는 스승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가 열두 제자와 함께 생활을 한 것도 이해가 되며 (막 3:13~19) 이들이 보여준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된 ‘제자’의 개념은 그러기에 따르며 닮아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헬라권에서 “‘제자들’이란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철학, 교육, 그리고 생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8~20; 행 14:21)를 완수하고자 할 때, 그들은 이미 보급되어 있는 선생-제자의 개념 위에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⁵⁸ 하지만 여전히 그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해되던 제자의 의미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차이는 예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더욱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을 것이다.

유대사회의 제자도

⁵⁷ K. H. Rengstorf, 416.

⁵⁸ 마이클 월킨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신*, 87.

마이클 그리피스(Michael G. Griffiths)는 유대사회 안에서 헬라의 문화적 제국주의와 부딪히면서 유대의 동질성을 지키려는 투쟁이 있었지만 헬라 문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랍비-제자의 관계의 어떤 측면은 헬라의 스승-제자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즉 랍비(רַבִּי)는 선생(διδάσκαλος)에 해당하고 탈미드(תלמיד)는 제자(μαθητής)에 해당했다는 것이다.⁵⁹ 이 둘은 다 선생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면에서 공통된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승의 말씀들을 배웠을 뿐 아니라 생활방식도 배웠다(막 2:18). 제자들은 스승이 앞에서 걷거나 나귀를 타고 갈 때 그를 문자 그대로 따랐으며 또한 도덕적으로도 따라서 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랍비주의의 강조점은 역시 토라였다.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스승 자신이 아니라 그 스승을 통해 토라를 알고 지킴으로써 의(righteousness)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 역시 예수의 제자도와 차이로 지적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맨슨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 대해 일반적인 תלמיד라는 용어 대신 חסיד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학습하고 공부하는 학생의 개념보다 실제적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행동으로 배우는 견습생의 개념으로 대하셨다는 것이다.⁶⁰ 아무튼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겉으로는 당시 사회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도는 독특한 면이 있었다. 물론 헬라 문화권 내 유대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들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그의 제자도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나 유대종교인의 제자도와 비슷한 면도 많이 있다. 특히 제자들이 스승의 모범을 따른다는 면에서는 다름이 없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의 제자도를

⁵⁹ 마이클 그리피스, *예수의 모범* (서울: 요단출판사, 1987), 23-27.

⁶⁰ T. W. Manson, *The Teaching of Jesus: Studies of Its Form and Conten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35), 239-240.

이해하면서 또한 다른 제자도에 비해 예수의 제자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제자도가 그 당시 유대교 내 존재했던 그것과 가장 달랐던 점 중에 하나는 유대교 랍비의 제자들은 선생들과 그들이 따르는 규범을 연결시킨 다음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은데 반해 예수의 제자들 경우에는 주도권이 철저히 예수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자기가 그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번 강조하기도 했다(요 15:16). 물론 예수를 그 당시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따라다닌 무리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해관계를 따라 예수를 떠나가고 말았는데 바로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자기에게 속한 제자의 여부를 결정한 것은 예수 그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요 6:60 이하).

예수와 제자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이었다. 예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말씀이 갖는 구속력은 제자들의 헌신이 바탕이 될 때 의미가 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게 된 것도 그가 준 강하고 직접적인 인상 때문이었다. 강조점은 항상 예수께서 하신 일이 베드로에게 미친 내적인 영향이었다(눅 5:1).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단순히 그의 가르침만을 전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눅 24:48). 이것은 랍비들을 찾아온 제자들이 랍비의 지식과 방법에 매력을 느끼고 모여들었던 것이나 헬라철학의 스승을 찾는 제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매료된 것과 대조가 된다.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는 랍비의 지식이나 능력에 대한 존경심에 좌우되는데 비해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그에 대한 믿음에 좌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택함을 받아서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원했고, 또 제자들이 실제로 보여주었던 제자도의 기본은 제자들이 예수의 모범을 본받았다는데 있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예수만의 독특한 제자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제자들에게 원했던 모범은 독특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였다. 인간 예수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었다. 성품이나 행동에서는(마 5:48) 물론 사역에서(요 5:17)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닮고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예수는 생애를 통해서 그 본을 주셨다(요 15:9~10, 요일 3:1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순히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의 본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이다(막 1:18, 20).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기에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랍비 학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아키바라는 랍비는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토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자손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요구한 내용은 비슷하나 그들의 권위는 그들이 가르치는 토라에 있는데 비해 예수는 그의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이다. 이때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게 순종했다.

예수의 제자들이 종으로도 비유되었던 것은(마 10:24, 요 13:16, 15:20) 유대주의에서는 낯선 일이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던 것이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랍비 세계에서는 별로 없었던 일이다. 이것은 예수가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좋은 예가 된다. 제자들이 랍비에게 배우는 것은 더 배우기 위한 일시적인 준비단계인데 비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더 나은 것을 약속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랍비의 제자들의 목적은 토라를 완전히 공부하는

일인데 비해 예수의 제자들의 일은 예수께 인침을 받은 후 그의 뜻대로 형성되는 것이었다.

흔히들 예수께서 제자들과 토론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께 반박을 해서 토론을 벌인 적은 없다. 예수의 토론은 예수의 대적자들이 반박하는데서 시작하곤 했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로 듣기만 했으며 다만 그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질문했을 뿐이었다(막 4:10),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의지로써 받아들이는 일이었다(마 7:24).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은 바로 자기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요 15:10). 예수의 제자도는 대화를 통해서 잘 깨닫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명하는 일에 순종하는데 강조점이 있었다.⁶¹

헌신과 순종은 쉽게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일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며 고난을 당하는 길이다. 고난에 대한 경고는 열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마 10:17, 요 15:18, 16:1) 제자 일반에게 주어진 경우도 있다(막 8:34, 눅 14:26).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강조한 것이나(벧전 2:21) 바울이 강조한 바(빌 1:29)가 다 크리스천의 고난이었다. 고난의 영역이나 강도는 사람이나 시대에 따라 다를지 모르나 고난을 기대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도의 핵심이다.⁶²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일을 나누어 할 사람을 부르셨다(마 4:19). 단순히 제자들의 마음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일을 맡기시기 위해 함께 지내면서 그 일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가 마지막 제자들에 게 남긴

⁶¹ 디이트리히 본회퍼, *나를 따르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26.

⁶² 데이빗 왓슨, *제자훈련*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261-270.

말은(마 28:19, 막 16:15, 행 1:18) 결국 그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했던 말과 똑같았다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인격적인(personal) 만남으로 시작이 되지만 개인적인(private, individualistic) 관계에 머물지 않았다. 예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삶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는 나중에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 이 공동체는 초대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었으며(행 2:4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가르쳤다(롬 12:4~5). 예수의 제자도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면서 그 교회공동체가 그의 존재와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의 역사에 참여한 자로서 구성요소에 있어서 당시 다른 그룹들과 대조가 된다. 대부분의 제자 그룹은 구성원이 동질성(homogeneity)이 있었는데 비해 예수의 제자들은 아주 다양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다는 사실보다 배반할 것을 알았던 유다를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당원과 세리가 함께 있었으며 헬라 이름과 유대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고 유대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함께 지냈다. 이 구성요소를 볼 때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 당시 유대사회의 축소판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요소는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나 유대 종교지도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다양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하셨던 것이다.

지금까지 제자 혹은 제자도에 대한 구약과 헬라문화, 유대문화와 예수님의 제자삼음의 배경과 성격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란 예수님의 열 두 제자와 같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선별된 소수의 리더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마이클 윌킨스는 “예수님의 제자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이라 시인하고, 그 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한 사람”⁶³으로 결론 지었다. 달라스 윌라드는 ‘제자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기독교 생활의 제 2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자가 바로 제자이며,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이 따르게 되는 것이 제자도 혹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다.⁶⁴ 그렇기에 제자도(discipleship)와 제자화(discipling)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한 인간생활을 하며 그의 형상을 닮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⁶⁵이다.

예수의 제자훈련 원리

우리는 제자훈련을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과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방법은 어떤 틀지워진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오히려 각 사람에게 맞는 유기적(organic)이고, 개인적(personal)이며, 그러면서도 공동체적(communal)이고 실제적(practical)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예수께서 사람 중심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셨던 원리들을 몇가지 살펴보고 한다.

⁶³ 마이클 윌킨스, *제자도 신학: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 황영철 역 (국제제자훈련원, 2015), 50-51.

⁶⁴ Dallas Willard,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264.

⁶⁵ 마이클 윌킨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신*, 405.

소수선택의 원리

예수는 수 많은 대중이 그를 따랐음에도 소수의 사람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예수는 세계를 품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넓고 큰 뜻을 가지고 계셨으나 소수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를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열둘을 부르시고 그 열둘을 중심으로 70 인 제자를 부르시고, 70 인을 통하여 120 인의 제자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120 문도를 통하여 500 여 형제들을 이끌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자신은 소수인 열둘을 부르시고 시간의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지내신 것을 볼 수 있다.⁶⁶

나눔과 삶의 모범을 통한 시범의 원리 (요 13:4~17)

예수는 자기를 비워서 모든 것을 제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셨고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요 13:1).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피와 생명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는 그가 하나님과 나누는 신앙의 영적인 모든 부요와 재산을 나누어 주셨으며 (요 15:15, 16:33, 17:33) 자신의 모든 생애와 생명을 아낌없이 그리고 풍성히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셨다.⁶⁷

또한 예수는 항상 모범으로 교훈하셨고 가르치셨다. 그의 기도생활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는 종종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 동산에 가서서 기도하셨다.⁶⁸ 나병환자를 피해가지 않고 만지시며 치료하심으로 긍휼을 보이고 가르치셨다. 그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치셨다. 예수는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전도와 양육의 실천과 시범을 통해서 장차 지상명령을 맡길 제자들을 훈련하셨다.

⁶⁶ 변태창, *작은목자훈련*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1), 81-82.

⁶⁷ Ibid, 61.

⁶⁸ Ibid, 74-75.

파송과 현장 실습의 원리 (마 10, 눅 10)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고 보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도록 파송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은 간단한 몇 가지 지침 뿐 우리가 생각하는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은 전혀 없었다. 몇 달, 아니 몇 주간에 걸친 성경공부와 교리공부도 없었다. 구체적인 메뉴얼과 상황에 따른 대처법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예수와 함께 지내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단순히 예수께서 주신 간단한 지침만 가지고 그들 스스로 실습하도록 하셨을 뿐이다. 사역 여행 후 그들이 경험하고 보고한 것들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주셨을 뿐 그 외의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후속 교육은 없었다.

재생산의 원리 (요 15:16, 마 28:18-20, 요 21:15-17, 딤후 2:2)

예수는 재생산을 기대하셨다. 가루 서말 속에 든 작은 누룩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가르치셨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전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다’고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신 후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부탁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재생산의 명령을 주셨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며 세계를 향한 재생산의 명령을 주셨다. 예수는 재생산을 위해 열 둘에게 그의 모든 생애와 생명을 쏟으셨고 자신을 주셨으며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시며 훈련하셨다. 그리고 재생산을 명하셨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게 함 (행 1:4-8, 눅 24:49)

부활하신 예수는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도 하셨다.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과 남겨두신 일들을 성령의 능력과 임하심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disciples), 예수의 추종자들 (followers)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제자훈련을 위한 필수과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적어도 한국교회 내에서 제자훈련을 이야기할 때 의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프로그램 혹은 성경공부이다. 하지만 제자는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쳤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공부 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또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순간 제자가 이미 되었다. 제자는 예수를 쫓아 그 말씀과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이며, 이 지상명령은 소수의 사역자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자답게 살아가며 성장해가기 위해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과정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제자로서 필요한 이 훈련은 틀에 박힌 것이기보다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지적인 성경공부 과정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법을 실천해가는 습관이 되어야 하며, 기계적인 교리학습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통신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제자훈련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랑의 교회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고 있는 필수 제자훈련과정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할 경우 약 86 주 정도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훈련과정까지 모두 합칠 경우 약 4 년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하게 된다.⁶⁹ 이것은 예수의 제자훈련 모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지나칠 뿐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만이 주된 목표가 되어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적용과 실습이 부족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위험이 크다.

오히려 예수의 제자훈련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뒤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실습토록 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예수 승천 이후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와의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엡 4:13)’에 이르도록 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성경공부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별 프로그램도 아니라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실습하고 적용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공동체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필수요소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두 기둥이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와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⁶⁹ Accessed Oct 12, 2018, http://www.idmi.org/menu1/menu1_2.php.

James Bryan Smith 는 그의 멘토들인 Dallas Willard 와 Richard J. Foster 의 영향으로 영성훈련 혹은 제자훈련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실습하며 가르쳐 왔다. 특별히 Dallas Willard 가 The Divine Conspiracy 9 장 ‘A Curriculum for Christlikeness(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것처럼, 제자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⁷⁰ 이에 James Bryan Smith 는 Dallas Willard 의 권유로 인해 ‘A Curriculum for Christlikeness’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책으로 다듬은 것이 ‘The Good and Beautiful God(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다.⁷¹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서술(narrative)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이 되어야 그 토대 위에 제자로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습들은 당신을 더 종교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의도는 없다. 오히려 예수께서 보셨던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이다...이 책의 제목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책의 주안점은 예수의 제자로서 평범함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데에 있다...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아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우리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⁷²

그렇기에 이 책의 구조는 우리의 잘못된 서술(false narrative)을 예수의 서술(Jesus' narrative)로 대체(replace)하여 예수께서 아셨고 관계하셨던 그 하나님을

⁷⁰ Dallas Willard, *The Divine Conspirac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 1998), 311-374.

⁷¹ James Bryan Smith, *The Good and Beautiful Go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13.

⁷² Ibid, 14-15.

우리도 알아가고 관계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다른 여러 제자훈련교제와 차별되는 접근방식이라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방법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법에 대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제자로서의 삶도 또한 그와 함께 바로 시작되게 된다.

물론 이것에 도움이 되는 책들과 교재들, 그리고 과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실제로 가지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reveal)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계획을 품게 하시며(align),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manifest) 보여주신다.

요약 및 결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요 19:30).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한 가지 당부와 한 가지 약속을 주셨다. 그것은 대위임령(The Great Commision, 마 28:16-20)과 성령에 대한 약속(요 14:16-17)이었다. 그렇기에 예수의 제자인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셨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며, 하셨던 일들을 이어갈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더욱 재생산해야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힘과 능력의 원천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의 교제에 있으며,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방법을 통해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것은 수많은 성경공부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제자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훈련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훈련은 끝없는 배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끝없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교재도, 함께 이루는 공동체도, 이 과정을 돕고 격려하는 멘토도 모두 이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하며,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이고 간단한 자료나 방법은 각 상황과 사람에 맞게 유기적으로 살핀다면 진정한 제자훈련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본 논문에서 타겟그룹으로 삼은 청년들에 맞춘 대안적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대상들에 대한 이해와 시대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신학적, 목회적 고민들의 한 대안인 미셔널교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셔널교회

복음이란? 교회란?

복음이란 무엇인가? 수 년전 폴리신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폴리신학교내 세 개의 대학원들(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심리대학원)의 교수들이 함께 던졌던 질문이었다. 복음이 진정 무엇이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분명하고 풍성한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였다. 놀랍지 않게도, 참여한 여러 교수들로부터 여러 다른 관점들이 나뉘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약 일 년여간에 걸친 논의와 대화 끝에 2004년 봄에 발행된 학교 출판물인 *Theology, News and Notes*에서 마리엔 마야 탐슨(Marianne Meye Thompson) 교수는 이렇게

고백했다. 복음의 본질과 그 의미를 찾는 여정은 결코 끝날 수 없으며 오히려 이같은 질문은 항상 우리 앞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⁷³

마치 복음에 대한 진술하고도 본질적인 질문들은 우리의 가변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뉘지고 또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또한 변화하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던지며 본질적이면서도 새로운 이해와 적용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무엇이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요소와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해 왔다. 왜냐하면 각 시대와 지역마다 그 공동체가 속한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며 각 현실에 맞는 적용과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겠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써 교회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마다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중의 하나가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미셔널교회이다. 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러한 응답이 나오게 된 좀 더 일반적인 원인이 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살펴보겠다.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말이 이제 더 이상 생색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조차 아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⁷⁴ 이처럼

⁷³ Marianne Meye Thompson, “Reflecting on the Gospel” in *Theology, News and Notes*. Spring: 2-3, 2004, 3.

⁷⁴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인 틀이 최초로 정립된 영역은 건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들은 해체이론(Derrida, Lacan), 정치학(Foucault), 사회이론(Baudrillard), 건축(Jencks), 문학(Barthes), 철학(Roty) 등의 분야에서 각각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또한 마이클 홀톤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건축가, 조각가, 화가, 혹은 소설가에게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고찰과 분석 없이는 그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제한적이겠지만 이 주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브라이언 맥라렌은 그의 책 ‘저 건너편의 교회(The Church on the Other Side)’에서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어떤 세계와도 다른 미지의 세계라고 말한다. 맥라렌은 그 미지의 세계를 ‘저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세계’라고 명명하며, 그 세계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 번의 냉전 저편에 있는 세계, 공산주의 저편에 있는 세계, 신학적 자유주의 저편에 있는 세계, 21 세기 저편에 있는 세계, 현대를 넘어 저편에 있는 세계”⁷⁵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건너편의 세계, 아니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는 지금껏 우리가 알아왔던 그 어떤 세계와도 구분되는 특이한 세계라는 것이다. 맥라렌이 정의하는 ‘저 건너편의 세계’란 바로 포스트모던의 세계이다.

맥라렌은 그의 책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가치를 다섯 가지로 말한다. 첫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확실성을 의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확실성을 의심하는 것 뿐 아니라 어떤 진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한다는 이야기다. 즉, 자기 자신을 포함한 어느 한 개인의 어떤 진리를 향한 온전한 지각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맥락, 즉 콘텍스트(context)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어떠한 맥락에서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International Style 과 High Modern Art 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될 수 있고, 정치 이론가에게는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철학자들에게는 데카르트 철학(Cartesian foundationalism)으로부터의 전환으로, 경제학자들에게는 산업경제에서 지식정보 경제로의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Leonard Sweet edit. *The Church in Emerging Culture* (Grand Rapids: Zondervan, 2003), 105.

⁷⁵ 브라이언 맥라렌, *저 건너편의 교회* (서울: 낮은 울타리, 2002), 10.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즉,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어떤 배경을 가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사건을 어떠한 방법과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비중과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해학적인 성향을 띠다고 한다.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절대화될 수 없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첫 번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느 누구도 어떤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두 유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것을 부인하고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절대화될 때, 더군다나 그 생각이나 견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일 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맥라렌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을 위해 죽음을 불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위해 다른 이를 죽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⁷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인들은 모든 견해나 생각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중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 하며, 그러한 지나친 진지함을 피하기 위해 유머감각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인 경험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여 포스트모던인들은 주관적인 경험 그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 신봉자들은 주관적인 경험을 경험 그 자체의 의미로 받아들일 뿐 그 경험을 이론화하거나 일반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⁷⁶ Ibid., 221.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희귀하고 소중한, 체험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 맥라렌은 이야기한다. 그들은 서로 공존하는 것을 어느 한쪽만을 주장함으로 편을 가르거나 그와 반대되는 주장들을 모두 일축해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다름에 대해 더욱 인내하고 관용할 것을 기대한다. 맥라렌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다원주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존에 대한 열망에서 나온 관용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맥라렌이 정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 한 가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상호 모순적이면서도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지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것이며, 경험을 중요시하지만 그 경험을 절대시하지 않는 등의 특성을 볼 때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중용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말장난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이론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분석하여 명확한 선을 긋기를 원하는 모더니즘의 교만과 편견을 인정하고 그 틀에서 걸어 나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겸손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게 되는 문제는 과연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독교의 적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본질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대화하며 관계해 나가야 하는 환경이자 수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일 것이다.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독교의 적으로 간주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나 기독교의 특성상 다원주의라고 하는 개념이나 접근방식 자체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포스트모던한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

앞서 설부른 판단을 쉽게 내려버린다면, 우리가 대화하고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대상들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맥라렌은 그의 책에서 기독교인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신봉자들은 절대적인 진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맥라렌에 따르면 포스트모던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진정한 속 뜻은 “물론 절대적인 진실은 저기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요. 다만 내가 의심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능력 혹은 제 능력입니다. 그 진실을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포착하고 이해하며 기억하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언어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하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합니다.”⁷⁷와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은 ‘절대적인 지식’일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만 그 절대적인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지 그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맥라렌의 말과 같이 절대적인 진실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 절대적인 진실을 절대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는 결코 없다고 주장한다면 절대적인 진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신봉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의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그들의 생각을 배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입장만을 강요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아가게 도울 수 있는

⁷⁷ Ibid., 225.

대화의 여지마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실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던 바울의 고백과도 배치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 것이다.

멕라렌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두 번째 잘못된 통념은 ‘포스트모더니즘 신봉자들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어떤 주관적인 것이나 개인의 한 견해를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진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으며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정직과 진실과 순수함의 의미”⁷⁸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신봉자들에 대한 우리의 깊이 있는 이해와 관찰이 전제된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자세적인 측면에서의 고착이 중요하게 되는데, 멕라렌이 언급한 것과 같이 오히려 포스트모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한 디모데후서 2:24~25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겸손하고 온유하여 그들 생각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⁷⁸ Ibid., 227.

미셔널교회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떤 성격과 영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떠한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 환경과 문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들과 변화의 모습, 그리고 방향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속에서 후기기독교사회(post-christendom)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하나의 성찰과 반응으로서의 미셔널교회에 대해 살펴보겠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이루는 근본요소는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에 따르자면 진정한 교회는 하나(one)이고, 거룩하며(holy) 보편적(catholic)이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apostolic) 교회라고 고백한다. 위의 요소들은 지난 교회사 가운데 참된 교회의 표(식별, the mark of true church)로 널리 알려지고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심플해 보이는 특징들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그리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았다. 게다가 베르까우어(G. C. Berkouwer)에 의하면 종교개혁 때에도 교회를 이루는 특징(*notae*)의 개수에 대한 많은 이견이 존재했었다고 한다.⁷⁹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그의 책 교회 DNA(*Decoding the Church*)에서 기존에 전통적인 교회의 표는 그 자체로 불완전하며 그렇기에 균형을 이루고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에 대한 대응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one)’에 ‘다양한(diverse)’을, ‘거룩한(holy)’에 ‘은사적인(charismatic)’을,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catholic or universal)’에 ‘지역적인(local)’을, 그리고

⁷⁹ G. C. Berkouwer, *The Church* translated by James E. Davison (Grand Rapids: Eerdmans, 1976), 14.

‘사도적인(apostolic)’에 ‘예언적인(prophetic)’을 추가하였다.⁸⁰ 스나이더가 기존의 특징들에 하나씩을 추가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시도하였지만 심지어 스나이더의 견해 또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목적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윌버트 쉥크(Wilbert Shenk)는 교회의 성격과 목적이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시기와 특정한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되어 왔다고 말한다.⁸¹ 쉥크의 주장으로는 이런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의 접근은 이십세기 말 교회가 처해있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써 선교학 분야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나오게 된 논의 중 하나가 미션교회(missional church)인데 이것은 단지 교회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교회의 본질을 찾고 또 실천하기 위한 고민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한다. 쉥크가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교회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대화에 참여할 때 교회의 성경적 토대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⁸²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옳다고 하겠다. 하지만 미션교회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고찰에 앞서 미션교회 논의가 비롯되게 된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다.

기독교후기사회(Post-Christendom)

데럴 구더(Darrell Guder)는 그가 편집자로 참여한 미션 교회(*Missional Church*)에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뉴비긴은 약

⁸⁰ Howard Snyder, *Decoding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22.

⁸¹ Wilbert Shenk, “New Wineskins for New Wine: Toward a Post-Christendom Ecclesiology,” MP620 Lecture Note. Pasadena, 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⁸² Ibid.

40 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후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 변화한 영국사회를 바라보며 “한 때 크리스텐덤이었던 사회는 지금은 분명한 후기기독교사회(post-Christian),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반기독교사회(anti-Christian)가 되었다.”⁸³라고 술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더는 ‘우리 연구의 기원(The Genesis of Our Study)’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새로운 교회론적 접근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후기기독교사회(post-Christendom) 현상임을 시사하고 있다.⁸⁴

크리스텐덤(기독교사회, Christendom)이란 “콘스탄틴 황제가 4 세기경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제정함으로 교회가 사회의 기둥이 되고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된것에 대한 이해(the understanding of church that developed after Emperor Constantine made Christianity an official religion of the Roman Empire in the 4th century so that the church became a pillar of society and Christianity the dominant religion)”⁸⁵라고 설명할 수 있다.

콘스탄티니아(Constantinia)이라든지 코퍼스 크리스티아눔(*corpus Christianum*)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며 Guder 가 설명하는 것처럼, “교회와 국가간 파트너십의 체제이며 문화적인 헤게모니로서 기독교가 보호받고 특권을 누리는 종교가 되고 교회는 그 종교의 제도적인 형식이 되는 것”⁸⁶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크리스텐덤적 인식은 교회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다스리는 능력을 지닌 종교적 기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에 맞춰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⁸³ Darrell Guder, eds,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drmans, 1998), 3.

⁸⁴ 물론 이 책에서는 북미의 맥락에만 집중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전환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좀 더 일반적이라 생각한다.

⁸⁵ Wilbert Shenk, “Key Words,” MP620, Lecture Notes, Pasadena, 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⁸⁶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6.

하워드 스나이더 또한 이런 크리스텐덤식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지만 교회 건물은 ‘머물러라’고 하고, 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잃어버린 이들이 교회를 찾게 하라’고 말한다고 지적한다.⁸⁷ 이러한 크리스텐덤은 종교개혁 때에 도전받기도 했지만 사회와 문화가 많은 변화를 경험할 때 적어도 서구기독교(Western Christianity)라는 영역에서는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되었다. 그렇기에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 교회는 크리스텐덤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목회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이 시대와 그 거주민들을 대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⁸⁸ 아마도 그 원인 가운데는 크리스텐덤의 법적인 시스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크리스텐덤(functional Chrstendom)’이라 부르는 강력한 전통들과 태도들, 그리고 사회적 구조들은 계속 그 유산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일거라 지적한다.⁸⁹ 하지만 구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기능적인 크리스텐덤’도 오직 서구 기독교 사회라는 영역에서만 간신히 유지되어 왔으나 점점 더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가게 되었다. 쉥크는 이런 오랜 전통들이 아직 개인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아직 흔적으로는 남아 있지만 어찌되었건 크리스텐덤은 이제 수명을 다한 문화적 세력에 불과하다고 첨언한다.⁹⁰

크리스텐덤의 몰락과 변화하는 환경에 새롭게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여러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적인 증인됨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칼

⁸⁷ Howard Snyder, *The Problem of Wineskin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5), 69–73.

⁸⁸ Wilbert Shenk, “The Culture of Modernity as a Missionary Challenge” in *The Church Between Gospel & Culture: The Emerging Mission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6), 72.

⁸⁹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6.

⁹⁰ Wilbert Shenk, *The Church Between Gospel & Culture*, 71.

바르트(Karl Barth)는 1932년에 있었던 브란덴부르크 선교사 회의(Brandenburg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으며, 다른 이들도 선교에 대한 관점으로의 논의를 시작했다.⁹¹ 그 이후에는 레슬리 뉴비긴과 같은 선교학자들이 서구사회에 존재하는 현저한 도전들에 대해 더욱 명료한 초점을 가지고 분석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며 그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는 애쓰는 가운데 교회의 선교적 중요성에 대해 점점 더 눈을 뜨게 되었다. 구더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련해 미셔널 교회(Missional Church)에서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대부분 서구의 선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 뿐 아니라 서구유럽문화적인 교회 이미지 가운데 태동되는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미묘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선교에 대한 이런 교회중심적(ecclesiocentric) 이해는 현 세기를 지나며 기독교 선교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중심적 재개념화(theocentric reconceptualization)로 대체되었다. 선교를 단지 교회의 활동 중 하나로 보지 않게 되었으며,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뿌리를 둔 하나님 주도의 산물로 보게 되었다.⁹²

선교를 이처럼 교회의 심장으로 보는 인식은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명(선교, mission)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선교라는 관점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⁹³

⁹¹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19.

⁹² Ibid., 4.

⁹³ Jurgen Mo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Margaret Khol trans. (New York: First Fortress Press, 1993), 10.

삼위일체 하나님, *missio Dei*,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몰트만(Moltmann)은 그의 책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에서 교회의 선교적인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열려있는 교회로 이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계하시는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삼위일체적 해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⁹⁴

구더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교란 그 단어 자체의 의미처럼 보내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수에까지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른 나라들에게 복이 되게하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세기에 걸친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예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육신적 구원으로 그 계시적 클라이맥스를 보였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는 오늘날에도 모든 문화권에 있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범세계적인 증인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때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⁹⁵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이어가야 할 대리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교회의 선교적 자기인식의 토대가 된다. 그렇기에 선교학자 데이빗 보쉬(David Bosch)는 그의 책 *변화하고 있는 선교*(Transforming Mission)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선교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선교는 교회론이나 구원론이 아닌 삼위일체 교리의 맥락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는 성부,

⁹⁴ Ibid., 11.

⁹⁵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4.

성자,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또 다른 움직임(movement)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다.⁹⁶

보쉬가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근접해 있는 개념이 바로 *missio Dei* 인데,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다. 그리고 구더의 말을 빌리자면 선교를 *missio Dei* 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선교에 대한 서구적인 이해와 실천을 상대화시켜버려 지금 서구기독교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굳이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⁹⁷ 즉, 서구에서 일어나는 크리스텐덤의 몰락에 낙심하거나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선교확장과 함께 그 또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제도적인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집중했던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문화 속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식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교회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문화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묵도하며 그 대리자와 동역자로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그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한 개념들에 대해 몰트만이 가장 명쾌하게 한 문단으로 요약 설명하고 있기에 아래에 그 인용문을 소개하며 정리하고자 한다.

만약 교회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성령을 보내신 것과 같은 틀 안에서 자신의 보내심을 이해한다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틀 안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기능을 발견하고 보게 될 것이다. 근대 카톨릭과 개신교의 선교신학이 교회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완성을 그 목표로

⁹⁶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1991), 390.

⁹⁷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20.

하는 missio Dei 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여기로부터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전세계적 선교를 이해하게 된다. 모든 활동과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교회의 영광이 아닌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한 성부의 영광이 그 목표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사적 개념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세상에 열린 곳으로 교회를 이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하셨던 역사를 교회의 삼위일체적 해석으로 이끌기 때문이다.⁹⁸

미셔널교회의 특징

쎅크는 미셔널교회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특징짓고 있다. 첫째로, 미셔널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우상의 능력에 매여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 다른 우상들을 분별하고 명명해야 한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에 깊이 헌신되어야 하지만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는 자신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것은 알지만 그에 복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긴장이 없다면 아마도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선교는 메시아이신 예수의 보범에 따라야 한다. 즉, 선교는 십자가이다. 이사야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고’ ‘증인되는 것’으로 성취된다. 십자가가 가장 중심이 된다. 넷째로, 미셔널교회는 종말에 대한 깨어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 온전한 성취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린다. 다섯째로, 교회의 조직과 구성은 세상에 대한 선교와 사명을 돕고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인류의 문화는 시간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다. 교회는 자신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나란히 머물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이미 낡아버린

⁹⁸ Jurgen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1.

형식들을 제거하여 선교적인 증인이 되는 것과 그 선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⁹⁹

또한 로이스 베릿(Lois Barrett)이 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물: 선교적 신실함의 패턴들(*Treasure in Clay Jars: Patterns in Missional Faithfulness*)에서 실제적인 미셔널교회의 예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미셔널교회의 8 가지 패턴은 다음과 같다.

패턴 1: 선교적 소명(Missional Vocation). 회중은 공동체의 선교적 소명을 함께 발견한다. ‘성공(success)’과 ‘생명력(vitality)’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신실함이란 맥락에서 새로이 정의하기 시작한다. 교회는 전체 공동체와 성도들 모두를 향한 구체적인 선교적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찾는다.

패턴 2: 성경적인 토대와 제자도. 이런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모든 교인들이 함께 배워가는 공동체이다. 성경이 교회생활에 있어서 규범이 된다. 성경적 토대와 제자도는 회중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패턴 3: 대조적인 공동체로서 위험을 무릅쓰기.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배워나간다. 교회는 주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교회의 문화적 유수(cultural captivity)에 대한, 종종 위협적이기까지 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며, 교회의 선교적 소명에 대한 윤리적, 체계적 영향들에 대해 씨름한다. 내부 및 외부적 저항을 어떻게 다뤄나가는지에 대해 배워간다.

패턴 4: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실천. 공동체로서의 교회적 삶의 패턴은 온 세상의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들에는 서로간의 돌봄, 화해, 사랑의 책임, 그리고 환대가 있다. 선교적 교회는 서로간에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 특징지워진다.

패턴 5: 공적 증인으로서의 예배. 예배란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된 미래에 대해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하는 중추적 행위이다. 그 예배로부터 회중의 공적인 증인된 삶이 흘러나온다.

패턴 6: 성령에 대한 의지. 선교적 공동체는 공동체적 기도의 특정한 실천에서 보여지는 방식을 통해 성령에 대한 의지를 고백한다.

⁹⁹ Wilbert Shenk, Class Note.

패턴 7: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을 불렀음을 이해한다. 또한 그 다스리심의 도구와 대리인, 그리고 증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패턴 8: 선교적 권위. 성령께서는 선교적 교회에게 다양한 방법과 기능들, 그리고 직책들을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 선교적 권위를 함께 실천해 가도록 하신다. 그 권위를 통해 선교적 소명을 분별하고 공동체의 삶 가운데 그 소명에 대한 실천을 의도해 나간다.¹⁰⁰

지금까지 미셔널교회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선교적인 만남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존재한다.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분의 교회도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 그러기에 어떤 변화와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당면한 문화와 대화해야 하고 참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 문화와 언어, 그리고 사람들 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앤드류 월스(Andrew Walls)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언어인 말씀을 다른 문화적 매체들로 재번역하는 이야기이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 다른 언어들과 문화들에 거하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¹⁰¹

지금까지 제자 및 제자훈련의 의미와 중요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과 영향, 기독교후기사회가 교회에 끼친 영향과 그 가운데 재발견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모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¹⁰⁰ Lois Y. Barrett, *Treasures in Clay Jars: Patterns in Missional Faithfulness* (Grand Rapids: Eerdmans, 2004), xii-xiv.

¹⁰¹ Andrew Walls, "Eusebius Tries Again" in *Enlarging the Story: Perspectives on Writing Christian History*. Wilbert Shenk Eds. (New York: Orbis Books, 2002), 19.

EPIC 모델

들어가는 글

이해 혹은 인지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 중 하나이다. ‘인지’를 통해 우리는 사물들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교육에서도 ‘지식’을 형성하고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지하는 여러 다른 방식들이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의 성격과 내용에 차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 자체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인지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뇌기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 지는 등 인지하는 행위와 기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왜 제자훈련 방식과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적어도 한국교회 상황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성경공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제자훈련한다는 말과 성경공부한다는 말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성경공부가 그저 지식의 전달만 있을 뿐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원래 목적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저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통전적인(holistic) 접근법을 가지느냐가 기독교 교육이나 배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의 의도는 제자훈련에 있어서 레더스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모델을 통한 좀더 다양한 인지 또는 배움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스위트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는 교회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칙들에 근거해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EPIC 모델을 소개하였다. EPIC이란 영어 단어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로 경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이미지 중심적, 상호적(Image-driven/Interactive), 그리고 관계적, 공동체적(Connected/Communal)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¹⁰² 이제 이 EPIC 모델을 통한 기독교적 배움에 대해 살펴보겠다.

배움의 다양한 방법들: 래너드 스윗(Leonard Sweet)의 EPIC 모델

교회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래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촉발되어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지각변동에 대해 진단한다. 스윗은 자신이 ‘소울 쓰나미’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적극적인 대처에 있어 혁명적인 전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프레임으로 EPIC 모델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EPIC 모델은 포스트모던적 해석학, 자연과학, 그리고 인지연구에 기반하여 만들었다고 한다.¹⁰³

먼저,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주된 특징들 중 하나는 참여-관찰자적(participation-observation)¹⁰⁴이다. 이것은 배움의 주체와 대상의 간격을 멀리하여 객관적인 사실에만 근거하고자 노력했던 근대적인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관계적이고 경험적이며, 이미지를 중시하고 공동체에 대한 강조점이 크다. 두 번째로, 자연과학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나 칼 포퍼(Karl Popper) 그리고 토마스 쿤(Thomas Khun)과 같은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학이 연역법적, 귀납법적 추론보다

¹⁰² 래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2), 22.

¹⁰³ Ibid., 202.

¹⁰⁴ Ibid., 203.

오히려 종교적인 상상력에 의해 더욱 진보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실재를 창조하는 신앙의 행위다”¹⁰⁵고 말한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참여는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 번째로는, 인지과학이 EPIC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와 같은 인지과학자들은 인지의 형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중 통제(control)에서 흐름(flow)으로, 추상적인 이성(abstract reason)에서 구체화되고 상상력이 풍부한 이성(imaginative reason)으로, 대리(representation)에서 참여(participation)로, 사실주의(literalism)에서 은유(metaphor)로, 고정된 것(fixed principles)에서 유동적인 것(fluid principles)으로의 전환을 보게 되었다.¹⁰⁶ 이러한 이론적 바탕 위에 Sweet 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흔들림에서 살아남는 것 뿐 아니라 더 번성할 수 있기 위해 이 EPIC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격려한다. 그렇다면 이 EPIC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경험적인 교회

근대를 지나면 사람들은 경험보다 설명에 더 많은 신뢰를 두어왔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가며 이같은 현상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다. 스윗은 “서구 기독교는 이성과 관찰의 신에 의해 지배를 받던 현대라는 세계 속에서 잠들어버렸다. 그리고 계시에 개방적이고 경험에 굶주려 있는 포스트모던의 세계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회는 포스트모던인들이 영적인 것을 기대하는 마지막 장소가 되어버렸다”¹⁰⁷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참된

¹⁰⁵ Ibid., 208.

¹⁰⁶ Ibid., 212.

¹⁰⁷ Ibid., 63.

것을 찾으려고 교회에 온다. 그들이 참된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은 결코 증명을 원하거나 진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험이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다. 삶에 대해서도 현대인들은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반면 포스트모던인들은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어한다.¹⁰⁸

같은 맥락에서 존 나이스빗(John Naisbitt)은 포스트모던 현상을 ‘경험경제’로 설명한다. “경제행위는 원자재가 상품으로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봉사로 포장되고 최종적으로 경험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 가치는 증가된다.”¹⁰⁹ 이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이 강조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보인다. 리얼리티 티비는 유행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시청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하비 콕스(Harvey Cox)는 경험주의를 영성의 새로운 모델로 인식하며 감정적, 공동체적, 이야기적, 희망적, 급진적 구현화가 새로운 모델의 특징들이 되었다고 한다.¹¹⁰ 스윗은 목회자의 역할이 단순히 좋은 교회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교회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¹¹¹ 또한,

총체적은 경험은 포스트모던 예배가 추구하는 새로운 목표다. 새로운 세계의 설교가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총체적 경험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쉐키나(Shekhinah)’의 경험들은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온 감각을 한데 묶어 진, 선, 미로 가득 찬 청상의 빛에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이 임재하시는 찬란한 광채 속으로 이끈다.¹¹²

¹⁰⁸ Ibid., 67.

¹⁰⁹ John Naisbitt, “Beyond the Service Economy,” *John Naisbitt’s Trend Letter* (Dec. 15, 1996), 2.

¹¹⁰ Harvey Cox, *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 Addison-Wesley, 1995), 319.

¹¹¹ Leonard Sweet, *Soul Tsunami* (Grand Rapids: Zondervan, 1999), 199.

¹¹²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78-79.

이것은 단지 5 감을 활용한 예배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기대하고 또 구해야 한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사건의 재현과 경험을 기대해야 한다. 빌 존슨(Bill Johnson) 목사의 말처럼, “성경적 경험 없는 성경공부는 무의미(Bible Study without Bible experience is pointless)”¹¹³하기 때문이다.

참여적인 교회

래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 문화를 ‘참여의 세대,’ ‘접속의 세대’로 정의한다.¹¹⁴ 도널드 밀러(Donald Miller)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교회들은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참여 정도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다고 한다.¹¹⁵ 또한 빌 이섬(Bill Easum)과 토마스 밴디(Thomas Bandy)는 “목회적 돌봄과 지도력에 있어서 성직자들에게 의존하는 회중들로부터 은사, 소명, 훈련된 평신도들을 의지하는 회중들로의 변화는 셀그룹의 성장 뒤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다”¹¹⁶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사역과 훈련에 대한 평신도들의 참여와 주도성은 마틴 루터에 의해 주창된 만민제사장설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재발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이 대리보다 참여의 문화를 더 선호한다고 말하며 그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¹¹³ Bill Johnson quote on the Facebook posting by Bethel Church in Reading, CA, Posted August 26, 2010, accessed September 5, 2018, <https://www.facebook.com/bethel.church.redding/posts/bible-study-without-bible-experience-is-pointless-bill-johnson/145675912130102/>.

¹¹⁴ 래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93.

¹¹⁵ Donald E. Miller, *Reinventing American Protestantism: Christianity in the New Millenniu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15.

¹¹⁶ Bill Easum and Thomas Bandy, *Growing Spirituality Redwood*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122.

대리문화는 다음과 같은 신념에 기초한다

- 사람들은 통제받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결정 내려주기를 원하고 요구한다.
- 리더십의 과제는 지침과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 사람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행동만 한다.
- 사람들은 사회나 조직에 봉사하는 일에 개인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참여문화는 이와 상반된 신념에 기초한다.

-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하며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싶어 한다.
-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있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 희생한다.
- 인간 조직은 자발적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다.¹¹⁷

제자훈련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던적인 문화에 더 익숙한 이들에게 통제된 형식과 과정 속에서 일방적인 지침과 가르침을 주기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고취시킨다면 더욱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결과들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훈련이라는 말의 사용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주고 있는 이미지들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주장과 질문에 귀기울여보자. “훈련에는 우선 교관과 훈련생이 있다. 훈련생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관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다. 훈련과 관련된 질문은 허용되지만 엉뚱하거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종과 반복,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훈련의 전제는 F.M.(field manual)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성경, 그리고 교재라는 완벽한 매뉴얼이 있으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반복하는 훈련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자훈련이란 명치에 들어 있는 함의다. 훈련은 규칙, 권위, 규율,

¹¹⁷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100.

통제, 반복과 순종을 의미한다. 21 세기의 신도들에게도 이런 개념이 먹힐까?”¹¹⁸

우리집 거실에는 내가 사다가 걸어놓은 양철판이 있다. 거기에 쓰여 있는 글귀는 다음과 같다. “나에게 말해 주세요 그러면 난 잊을겁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난 기억할겁니다. 나를 포함시켜주세요 그러면 나는 배울겁니다 (Tell me and I forget. Teach me and I remember. Involve me and I learn.)”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셨던 독특한 방식 중 하나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또한 그들도 질문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함께 하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중심적 교회

만약 현대 문화가 언어에 근거하고 있다면,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중심에 둔 지적 신앙을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신비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여겨져 무시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에게 이야기 전달자(storyteller)의 역할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교회는 이야기와 은유가 영성의 중심에 놓이게 된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스윗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미지,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 1:15)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 14:7, 9)이라고

¹¹⁸ 김지방,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제자훈련’*(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6), 251.

말씀하셨다”¹¹⁹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닌가?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형상에 대한 경이감을 놓쳐버렸다.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닌가? 제자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을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다. 제자도(discipleship)와 제자화(discipling)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암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한 인간생활을 하며 그의 형상을 닮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다.”¹²⁰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제자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9)”고 선포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 4:19)”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훈련의 지향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엡 4:13)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를 강조하고 그것이 언어가 되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많고 너무도 중요하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또 다른 특징들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상호적’이라는 것이다. 스윗은 전자문화가 그 수혜자들을 더욱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견해에 반박한다. 오히려 포스트모던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와 자신을

¹¹⁹ Ibid., 134-135.

¹²⁰ 마이클 윌킨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신*, 405.

연결시킬 때 “매혹(Fascination), 탐색(Exploration), 통합(Integration)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거친다고 말하며 이 세 차원 중 “첫번째 차원 매혹만 수동적이고, 탐색과 통합은 활동적이며 상호 작용적”¹²¹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제자훈련을 하는 방식 가운데 online 을 활용하는 것은 시간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과 동시에 그들의 언어와 도구로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

‘연결(connected)’이라는 말과 ‘공동체(community)’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애용되는 표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단어를 합쳐 ‘연결 공동체(connexity)’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고도 한다.¹²² 인간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이를 한명 키우는데에도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유명한 아프리카 격언이 있지 않은가? 포스트모던의 ‘나’도 존재하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현대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했다. 포스트모던 의식은 포스트모던이 있기 전 시대로 연결된다. 남아프리카의 조사(Xhosa) 족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말한다”¹²³는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관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religion)이 아니라 관계(relationship)이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것도 지옥가지 않고 천국가는 확실한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하셨던 모습으로의 회복이다. 본래의 창조목적 그리고 타락 이전의 창조모습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귄다와 교제가 있는 사랑으로의 초대였다.

¹²¹ Ibid., 96-97.

¹²² Ibid., 163.

¹²³ Ibid., 171.

예수께서도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고 답하셨다. 즉, 모든 율법,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수 많은 계명들을 두 가지 ‘하라’로 요약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다. 결국 관계에 대한 것이다.

스윗은 목회자들 중 $\frac{3}{4}$ 는 자신들의 은사가 가르침과 설교에 있다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회에는 설교, 가르침 뿐 아니라 치유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도덕적, 영적 변화가 공동체나 개인에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목회자는 치유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설교나 가르침에 들이는 노력만큼 치유의 능력을 갖고 닦아야 한다”¹²⁴고 권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목회에서 더욱 향상되어야 할 측면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들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힘일 뿐 아니라 자기의 혹은 공동체의 경험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¹²⁵라고 지적한다. 예수께서 보이신 가장 독특하면서도 당대의 랍비들과 가장 차이나는 특징은 바로 스토리텔링에 있다. 이러한 특징을 제자훈련에 접목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 중에 ‘내러티브 제자훈련(Narrative Discipleship)’이 있다.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앞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제자화 혹은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 가운데는 기독교 교육(Christian education), 영성훈련(spiritual formation), 기독교 상담(Christian counseling), 그리고 코칭이나 멘토링(coaching or mentoring)등

¹²⁴ Ibid., 174.

¹²⁵ Ibid., 177.

도움이 되는 수단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 내 제자훈련의 실수와 실패는 주입식 성경공부라는 획일적이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에만 의존한 탓이 크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권 아래서, 우리는 다시금 스토리텔링이 갖는 힘과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제자훈련”의 형식과 내용은 이성, 논리, 본질, 순자가 중요한 모더니즘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지금은 포스트모던의 스토리텔링을 가져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해야 한다.”¹²⁶는 제안이 설득력을 갖는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권에서 자라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가기를 돕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도 바뀌어야 하지만)도 바뀌어야 한다. 낡은 논리와 형식, 거추장스럽고 설득력 없는 권위는 버려야 한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에 마음을 쏟은 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이어져 더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작은 공동체가 되는, 그런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¹²⁷ 공동체, 연결, 경험, 참여, 스토리 등 레너드 스윗이 제안하는 EPIC 모델이 적용된 새로운 제자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내러티브 제자훈련에 대해 쓰고 있는 네이든 버드(Nathan Byrd)에 따르면 최근 기독교 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책으로 꼽히고 있는 두 책들, 윌리엄 영(William Young)의 오두막(*The Shack*)과 도널드 밀러(Donald Miller)의 천년동안 백만마일(*A Million Miles in a Thousand Years: What I Learned While Editing My Life*)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의 책은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일상과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밀러의 책은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펼쳐지는 각자의 이야기들을

¹²⁶ 김지방,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제자훈련’*, 253.

¹²⁷ Ibid., 254.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끌리는 책들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내러티브 제자훈련(Narrative discipleship)은 개인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프로세스 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가이드의 역할만 감당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즉, “내러티브 제자훈련은 한 개인의 신앙 이야기를 끌어내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에서 흘러가는 주제들과 줄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점을 연결해 주는 것(connect the dots)’이다”¹²⁸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인도자는 참여자가 개인의 삶을 여정을 볼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와 유사한 성경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즉 코치와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규범이나 교리로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쓰여지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찾고 부여할 아무런 훈련이나 도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모델

인터넷 개인교습

몇년전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매우 흥미로운 글을 접하게 되었다.¹²⁹ 앤써니 그린(Anthony Green)이라는 사람첫 인상은 여느 뉴요커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뉴요커들의 일상과 너무나 여유로워보이는 그의

¹²⁸ Nathan C. Byrd, III, “Narrative Discipleship: Guiding Emerging Adults to ‘Connect the Dots’ of Life and Faith” CEJ: Series 3, Vol. 8, No. 2 2011, 256.

¹²⁹ “Meet the Guy Who Makes \$1,000 An Hour Tutoring Kids of Fortune 500 CEOs Over Skype” Caroline Moss, Business Insider. Posted Aug. 26, 2014, accessed September 4, 2018, https://www.businessinsider.com/anthony-green-tutoring-2014-8?utm_content=bufferc61c5&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com&utm_campaign=buffer.

일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였다. 그린은 뉴욕에서 SAT 와 ACT 라는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준비를 도와주고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강하는 학생들이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부자집 아이들이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학원들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린은 여는 학원장과는 다소 차별되는 이력이 있다. 그는 어쩌면 가장 많은 시급을 받는 개인교사(tutor)일지도 모른다. 그린은 일대일 교습에 90 분당 \$1500 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번 맡게 되면 90 분짜리 세션을 적어도 14 번은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다른 곳이라면 웬만한 아파트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의 개인교습에 기꺼이 지불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뉴욕이라면 가능한 이야기다. 그의 학생 대부분은 소위 상위 1%에 해당하는 부호들의 자제들이다. 그들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많은 금액을 내고서라도 점수의 향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든 지불할 용의도, 능력도 있는 자들이다.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 일대일교습을 스카이프(Skype, 화상채팅용 프로그램)로 한다는 사실이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오전에 베이글과 커피 한잔 픽업해서 자기 집 거실 컴퓨터로 편안하게 지도해도 된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린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차별성을 갖는 부분은 무엇일까? 스펙이 더 좋은가? 물론 아이비리그 학교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나왔으니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혹은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터이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재능이나 은사가 탁월한 사람인가? 한국에서도 소위 스타 인강(인터넷강의) 강사들이 상상도 못할 고소득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접해 보았다. 그들처럼 학생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유머를 갖춘 명강사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운영하는 학원에 더 집중해야 할텐데 그린은 일대일 개인지도를 통해 어쩌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만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소득 개인강사와 제자훈련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기사를 읽어나가던 중 한 가지 깨달음이 왔다. 이 사람은 소위 언변이 뛰어난 강사는 아니다. 교과 내용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가장 완벽한 강의 노트나 교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의 강점은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현재위치와 특성들을 아주 적절하고도 올바르게 파악해 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사실 모든 학생이 다를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어려운 문제에 막히는 이유도 다를 것이다. 그린은 그런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들 혹은 풀지 못하는 방식들을 지켜보며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도를 해준다. 힘들어 할 때 그에 맞는 격려도 해 줄 것이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동기부여의 선순환을 가져다주는 칭찬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¹³⁰ 결국 학생 각자의 현재 위치와 수준, 그들의 한계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면밀히 살핀 후 그들에게 맞는, 필요한, 그리고 적절한 팁과 문제풀이방식, 피드백과 격려를 통한 최적의 지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¹³¹

EPIC 원리를 적용한 제자훈련 모델을 만들면서 이 예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한 실제운영 방법으로 적용이 되었다. 즉, 온라인 상으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지도와 나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여러다른 통신기술 및 SNS 플랫폼의 발달과 특별히 디지털 언어가 젊은 세대에게는 모국어가 되어버린 현실

¹³⁰ 취재하는 기자에게 문제를 풀어보라 말하며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짐작 가능하다. 이후 이 기자는 자기가 취재 중 연습삼아 풀었고 지도 받았던 비슷한 문제를 Khan Academy 에서 찾아 풀어보았다. 옆에서 주는 팁들을 5 개 모두 사용했지만 여전히 풀기 어려웠다고 한다. 사람마다 선호도나 효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자 본인은 Green 에게서 받았던 개인적인 지도와 피드백이 훨씬 더 편하고 효과적이었다고 쓰고 있다.

¹³¹ “국립국어원,” 비슷한 것으로 ‘원 포인트 레슨 (One Point Lesson)’ 같을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스포츠나 기술 등을 지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잘못된 형성된 습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식의 교습.” 우리 말로는 요점교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Accessed September 12, 2018, https://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front=BD2362463F17E4786052C28667F52BF3?mn_id=34&refine_seq=26906&pageIndex=31.

가운데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최대한 소셜 미디어나 최신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혹은 앱을 사용한 사역을 강조하고 또 시도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도구와 수단일 뿐이다. 마치 Skype 때문에 그린의 성공적인 개인교습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성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Skype 를 통한 개인교습에 모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나 열매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뿐이다. 중요한 틀일지는 몰라도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그린의 사람에 대한 공감력과 이해력,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 아닐까?

하지만 그의 Skype 사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 점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Skype 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Skype 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함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제한이나 어려움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러가지 한계를 넘어서는데 좋은 해결책이 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이브리드 모델,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상호교류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 주었다. 사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일 뿐 아니라 미래적인 교육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가장 좋은 예가 가까이에 있다. 바로 필자가 포틀랜드 신학대학원(Portland Seminary of George Fox University)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목회학 박사(Hybrid Doctor of Ministry)과정이다.

하이브리드 목회학 박사과정 Hybrid D.Min. Course

대학교들과 신학교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수업¹³²을 제공해 왔다. 아예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학위나 코스들도 이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커리큘럼 과정과 형식에 균형있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예는 아직은 드문데 그 중 성공적인 한 예가 죠지 폭스 대학(George Fox University)내 포틀랜드 신학대학원(Portland Seminary)의 목회학박사과정(Doctor of Ministry)이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1) 책임교수의 지도(Lead-mentor directed) 2) 온라인 및 융통성 있는 방식(Online and flexible) 3) 동일집단 바탕으로 진행(Cohort-based) 4) 오프라인 수업들 (Advances). 먼저 책임교수의 지도가 중요한 축이 된다. 포틀랜드 신학대학원의 목회학박사과정에는 3 가지 다른 전공들(concentrations)¹³³이 있고 저마다 다른 책임교수들이 있다. 각 교수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그들의 전반적인 책임하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격과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필자의 책임교수는 레너드 스윙으로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이며,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EPIC 모델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Zoom 이라는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 주 한 번씩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 수업과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은 미국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사역하는 이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된다. 동일집단 방식은 십 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한 그룹을 이루어 같은 구성으로 3 년여 간 서로 꾸준한 만남과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Advances 라 부르는 오프라인 수업을 매년 한 차례씩 집중적으로 가져 책임교수와 담당 어드바이저, 그리고 동료학생들과의

¹³² 온라인수업(online classes),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이러닝(e-learning) 등으로 불려진다.

¹³³ 리더쉽과 세계적 관점들(Leadership and Global Perspectives), 리더쉽과 영성형성(Leadership and Spiritual Formation), 그리고 기호학, 교회와 문화(Semiotics, Church & Culture).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나눔과 상호교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어 좋은 멘토교수의 지도와 더불어 양질의 자원과 지원을 통해 평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배움과 연구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가능케 해 준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여 시공간적 제약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과 수 많은 책임들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지털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된 젊은세대에게 그들이 공감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도구를 수단으로 제공함으로 거부감없이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게 된다.

결론: EPIC 원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제자훈련 커리큘럼

가나안 성도 현상이 한국교회에게 던져온 도전들이 있다. 단순히 신앙을 쳐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탕자들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들이 던져오는 질문들은 묵직하고 날카로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떠나간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떠나갈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든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하고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고 교회생활에 익숙하며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교회사역에 동참해 온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가운데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예수를 찾으려는(leave the church to find Jesus)’ 안타까운 현실도 반영됨을 보게 되었다. 물론 교회로 더 많이 끌어 모으고, 더 오래 정착시켜

교회 성장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소모품으로 성도들이 취급되던 때도 있었다. 그렇기에 그런 폐단을 없애고 성경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평신도들을 깨우고 그들을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세우기 위한 시도가 20 세기 중반부터 대학교 캠퍼스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에 있어왔다. 하지만 제자훈련 반세기를 지나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와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는 원인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가운데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과 부작용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 중, 시대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다다르고, 관계를 맺고, 섬기고, 또한 돕고자 하는 대상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기독교후기사회의 몰락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받으며 자라온 젊은세대가 자리 잡고 있음 또한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변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을 그들에게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새롭고도 적용가능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질문 속에서 EPIC 특징들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자훈련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EPIC 은 포스트모더니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특징들로 경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이미지 중심적, 상호적(Image-driven/Interactive), 관계적 및 공동체적(Connected/Communal)인 면을 이야기한다. 이 렌즈를 통해서 지금의 젊은세대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특징들이 포스트모던적인 것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이셨던 모델과도 맞닿아 있음을 깨달아 1 세기의 모델을 21 세기에 모습으로 적용해 보고자 시도하게 된 것이다.

레너드 스위트는 그의 책 *넛지전도(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에서 교회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종교기관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 지적한다. 사람들을 만지기(touch) 보다 오히려 특정 이슈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take a stand)’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표결에 부치는(take a vote)’것에만 몰두해 왔다는 것이다. 세상은 움직이며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마치 얼음뎡¹³⁴ 놀이 중 ‘얼음’을 외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즉, 누군가가 움직여도 괜찮다는 사인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예수는 돌아다니시며 얼어붙어 있는 사람을 계속 터치하여 그들로 자유롭게 다니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의 손길이 닿은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¹³⁵ 이런 터치는 그 정의상 접촉을 전제한다. 올바른 교리가 정립되어 있거나 심지어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접촉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기만 할 수 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이자 모델이 되어야 한다면 성육신하신 그 분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관계하신 모습을 올바르게 보고 또 제대로 따라야 한다.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한 인간으로 하신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¹³⁴ 어린 시절 많이 하던 놀이. 술래잡기와 비슷하지만 술래에게 잡히기 전에 ‘얼음’을 외치면 술래가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술래 아닌 다른 친구가 와서 ‘뎡’을 외치며 터치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게임.

¹³⁵ Leonard Sweet,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s, CO: David C. Cook, 2010), 242.

5:19)”고 하셨다. 예수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였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8)”고 하신 말의 의미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는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늘 기도하러 가셨고 잡히시던 날 밤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눅 22:39)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분의 뜻대로만 순종하고자 하였고, 그를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분의 제자인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예수의 제자훈련을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하고, 인도자는 경청하는 자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삶을 나누도록 격려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시켜 적용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냄으로 제자로서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도움과 관계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이 목회학박사과정의 동일집단(cohort)에서 함께 공부했던 학우 중에 제니 하롭(Jennie Harrop)이 쓴 목회학박사논문인 ‘The Jesus Quotient: IQ→EQ→AQ’¹³⁶에서 그녀는 AQ로 우리의 방향과 관심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잘 아는 것처럼, IQ는 지능지수이고 EQ는 감성지수를 뜻한다. 그리고 감성지수는 자기자신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인 AQ, 즉 청중지수(Audience Quotient)에 대한 관심과 그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녀가 정의하는 AQ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청중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측정하고,

¹³⁶ Harrop, Jennie A., "The Jesus Quotient: IQ → EQ → AQ" (2018). Doctor of Ministry. 267. <https://digitalcommons.georgefox.edu/dmin/267>.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전달에도 민감하고,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¹³⁷ 이처럼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들려져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한 나눔 공동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경험시켜 주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그런 환경 조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 인도자는 멘토와 코치 혹은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각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과 훈련생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어야 한다. 피터 스카지로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그는 제 11 장 ‘출발, 제자 훈련의 새로운 영역으로’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 멘토링, 2) 인내, 그리고 3) 기도이다.¹³⁸ 즉, 그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새로운 제자훈련으로의 전환도 결국엔 옆에서 함께 그 과정을 나누고, 들으며, 멘토로서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제자훈련을 위해 현실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멘토링과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형성과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격려하는 분위기형성이 본질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논문의 Artific 를 통해 실제적인 적용사례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¹³⁷ Ibid., 56.

¹³⁸ 피터 스카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서울: 이레서원, 2006), 318-320.

SECTION 4: 결과물 기술(ARTIFACT DESCRIPTION)

제목에서도 보여주듯이 본 논문의 결과물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 모델의 실제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제자훈련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시대적인 변화와 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존의 제자훈련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 내에서 ‘가나안 성도’로 지칭되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인식과 현실반영을 살펴보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몇 가지로 살펴보았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대표 혹은 심화되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한 확인과 새로운 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방향 및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것이 본 논문의 결과물(Artifact)이 되었다.

이 결과물은 새로운 제자훈련의 실제적용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보완 발전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제안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이 모델의 기본적인 축은 멘토링 혹은 코칭관계에 있으며, 방법적인 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온라인 만남은 주로 Zoom 인터넷 화상회의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매주 1 회씩 이루어졌고, 오프라인 모임은 일년에 한 차례 Alignment 라는 이름으로 Oregon 주 Lincoln City 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알쓸신잡’ 혹은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일회적 미팅도 시도해 보았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경우, 기존의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기보다 여러가지 자료들 중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하고 상황에 맞게 재구성 및 추가하여 필수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개인의 현재 신앙적 성숙도와 상황적 변수들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자료들 및 도구들을 소개하고 연결시켜 주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만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두었고, 그 안에서 포럼참석, 동영상시청, 그리고 자료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SECTION 5: ARTIFACT SPECIFICATION

목표

1. 자원자들에 대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제자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2. 필자를 멘토 혹은 코치로 하는 멘토링/코칭 세션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규정한다.
3. 최소한의 필수과정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도구들(tools)을 갖추도록 한다.
4. 일방적인 강의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제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실수를 통해 학습(learn through trial and error)이 격려되는 안전한 분위기와 문화형성에 주력한다.
5. 개인적인 멘토링/코칭을 통해 훈련방향과 성격이 각 개인에 맞춰 정해지도록 한다.

대상자들: 자원을 통해 받은 한인청년들. 대부분 남가주 및 북가주에 거주하는 문화적 1.5 세대들. 7 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

범위 및 내용

1. 온라인 만남
 - 2016 년 10 월부터 2017 년 4 월까지 약 6 개월간에 걸쳐 매주 일요일 저녁 9 시와 수요일 저녁 9 시 두 차례에 걸쳐 Zoom 으로 만남.

-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제임스 브라운 스미스 저)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눔

2. 오프라인 만남

- 2016 년 5 월 20 일~23 일, 2017 년 5 월 19~22 일, 2018 년 5 월 18~21 일 각각 3 박 4 일간 Oregon 주 Lincoln City 에 있는 Devil's Lake 주변 Vacation House 들을 3 개씩 빌려서 모임을 가짐.
- 평균 15~20 명의 참석자들과 6~7 명의 봉사자들이 참석
- Alignment 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Oregon 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영, 혼, 육, 관계, 비전 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맞추어지는(getting aligned)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웹사이트 활용

- TalkingBush.org 라는 사이트를 통해 훈련에 참석하는 이들을 위한 자료제공 및 교제와 나눔, 토론과 토의의 장소로 활용토록 함.

4. 커리큘럼 개발

- 기본적인 도구를 갖추기 위해 필수 커리큘럼을 교재로 제작
-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
- 이 중 기도와 관계된 교재를 만듦.

예산: 로고제작 (\$500), 웹사이트 제작 (\$500), Zoom 일년 가입 (\$149.90),
얼라인먼트(평균 대략 \$6000)

졸업 후 고려: 기본커리큘럼 개발을 완료하고 각각에 맞는 교재를 제작하여
출간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본격적인 제자훈련
자원자를 모집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2019 년 상반기 중 기도에 대한 교재를 한국에서 출간한다.

SECTION 6: POSTSCRIPT

본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필자의 개인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었다. 10 여년간 미국한인교회에서 대부분 문화적, 정서적으로 1.5 세에 해당하는 청년들(한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영락교회 한어청년부를 맡아 500~600 에 달하는 많은 한어권 청년들을 접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다. 사임 후 오레곤주 바닷가에 위치한 링컨시티에서 15~20 명의 장년들(대부분이 50~60 대)로 구성된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청년사역은 자연스레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청년들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렇게 1~2 년이 지나는 동안 내가 사역했던 대상들 가운데 이런 저런 이유들(교회 내부적인 분열, 교역자와의 갈등,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 교회 자체에 대한 고민 등)로 인해 소위 ‘가나안 성도’가 된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소식을 접하며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오레곤으로 올라 온 이후에도 삼삼오오 거리적으로도 멀고, 찾아오기도 불편한 링컨시티까지 찾아오는 청년들을 보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는등의 특별히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함께 바다를 구경하고 나무 사이로 걸으며 집에서 함께 머물며 식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격려를 얻고 돌아가는 이들을 지켜보며 오레곤 외딴 바닷가에 있는 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외부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꾸준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들을 갖춰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 고민과 시도 끝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결과물로 시험해 본 열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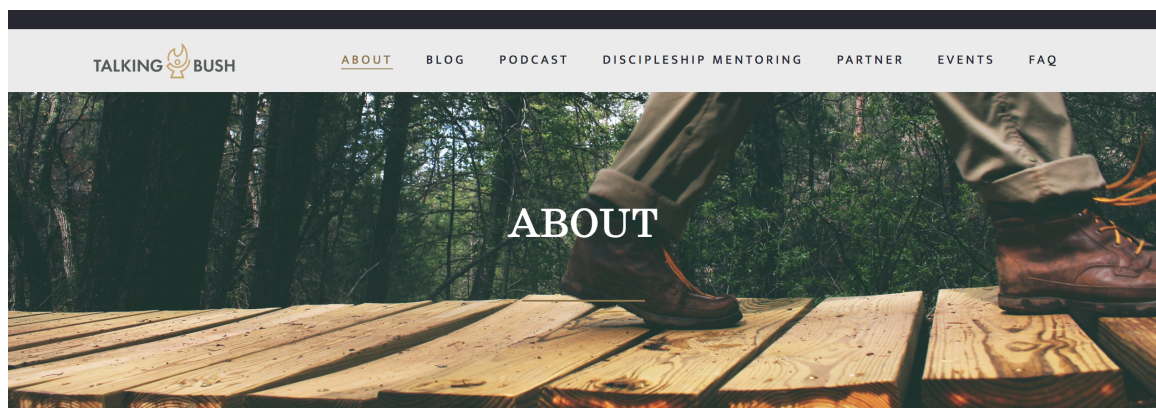
물론 현실적인 상황과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한 것이기에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고찰이나 형식적으로 체계 잡힌 틀을 갖추는데에는 부족함이 많이 보였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실행가능한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실험과 고찰을 통해 좀 더 균형 잡히고 완성도 있는 훈련 커리큘럼과, 참가자들의 피드백과 인도자의 평가 분석을 통한 더 효과적인 형식과 접근법을 더욱 다듬어 나갈 수 있을리라 기대한다.

APPENDIX A: ARTIFACT

TalkingBush Website



Figure 2 메인화면



ABOUT 'TALKING BUSH MINISTRY'

Figure 3 About 메뉴



AN EXPLANATION OF WHAT A BLOG GOES HERE.



Figure 4 블로그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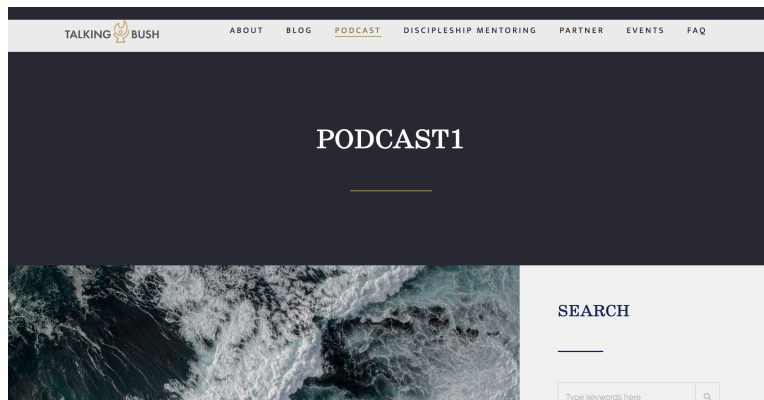


Figure 5 팟캐스트 메뉴



 BECOME A MEMBER OF THE DISCIPLESHIP PROGRAM

Figure 6 제자훈련 멤버 로그인



Figure 7 이벤트 메뉴

로고의 의미: Talking Bush 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던 불붙은 떨기나무(출 3)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의 사명과 비전이 확인되고 맞추어졌던 것에 주목한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대하여 원래 작성하셨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며,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align)될 수 있는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

웹사이트의 목적: 일차적으로는 훈련 참여자들 온라인 상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한 참여자들 사이에 나눔과 토의를 가질 수 있는 포럼등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멤버들만 로그인 할 수 있는 섹션을 통해 각 그룹과 나누기 원하는 자료들을 업로드/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티칭 동영상들(teaching clips)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주제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타 블로그 및 팟캐스트 등을 통해 멤버외의 사람들과도 여러가지 생각해 볼 이슈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통찰들을 나누고자 한다. 이벤트 섹션을 통해서도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등에 대해서도 공지를 하게 된다.

TalkingBush Pod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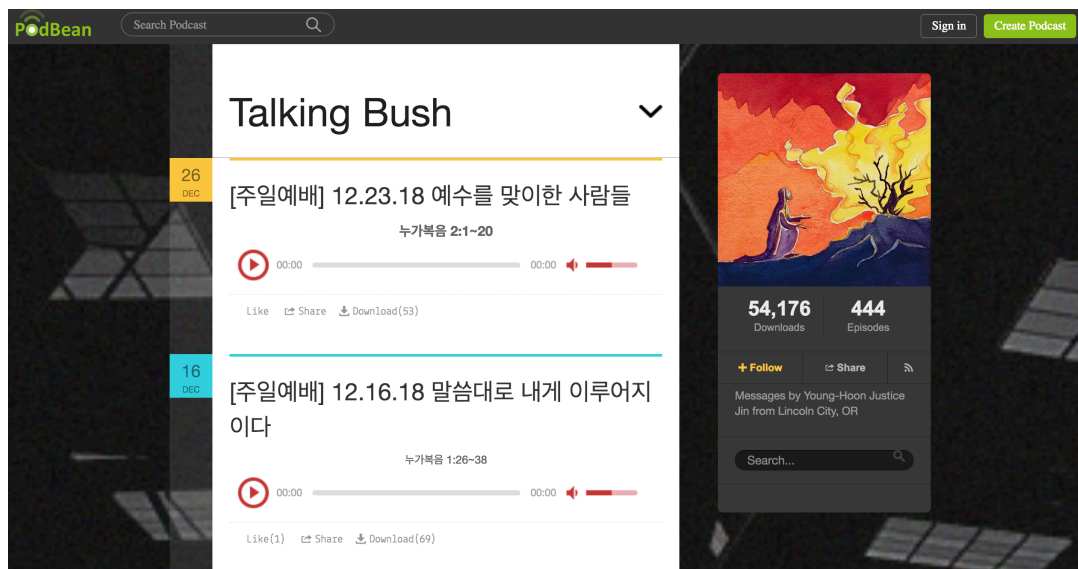


Figure 8 팟캐스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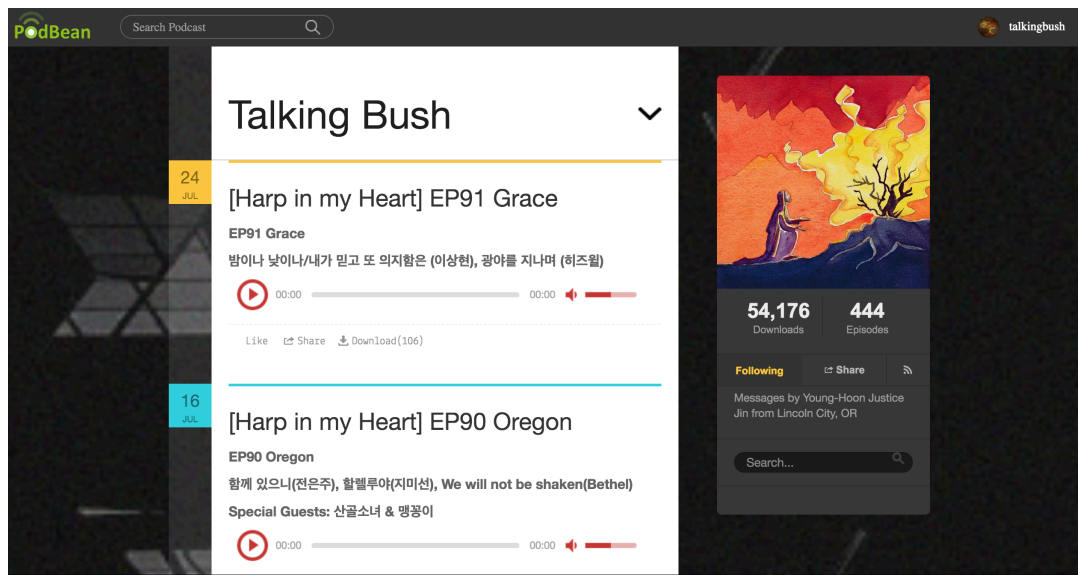


Figure 9 Harp in My 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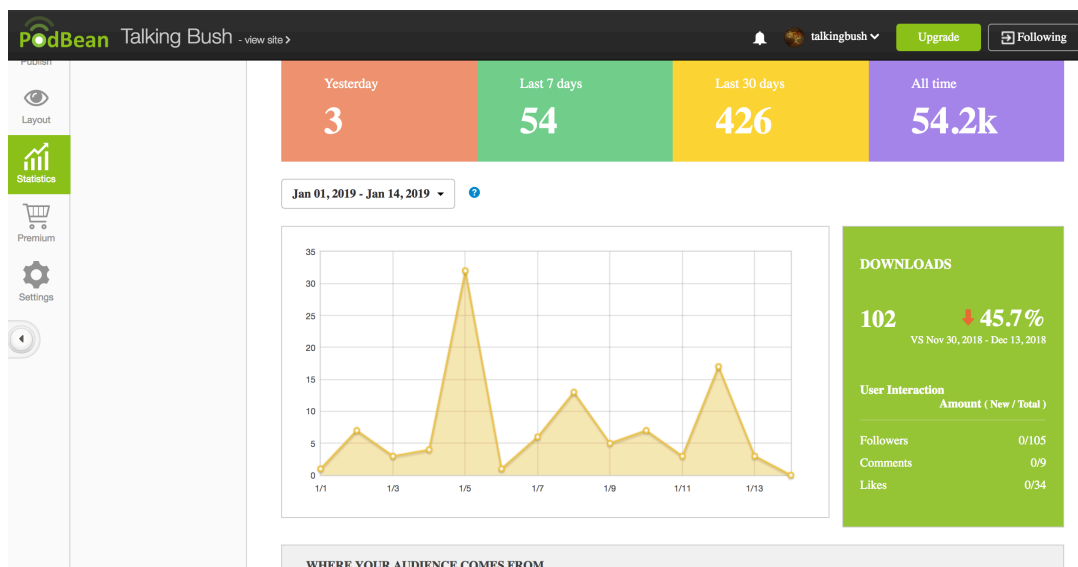


Figure 10 통계화면

지금까지는 주로 설교를 올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찬양들에 대한 소개를 했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던 찬양들의 배경과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이것을 통해 찬양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과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팟캐스팅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러 관점들을

제공하여 기독교 변증학적 사고와 열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마리 및 통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 Page)

TalkingBush Ministries 와 Alignment Gathering 에 대해 소개하고 자료를 나누며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가지려고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들이다.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전에 활용했던 것으로, 앞으로도 웹사이트와 연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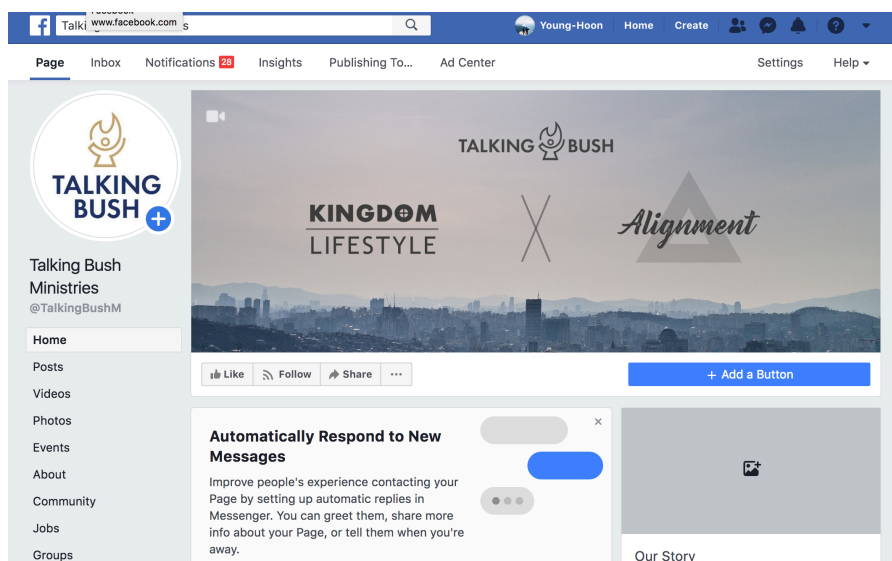


Figure 11 TalkingBush Facebook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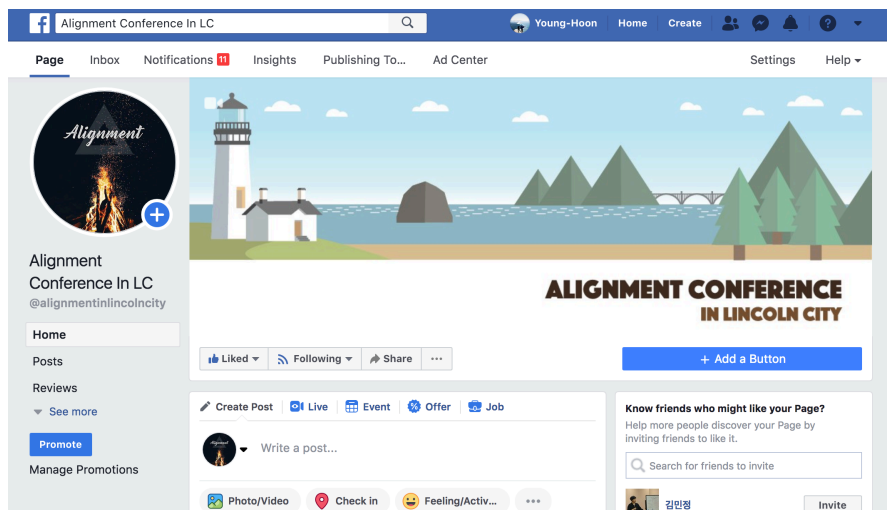


Figure 12 Alignment Facebook Page

Alignment Gathering

Alignment Gathering 은 매년 5 월 Oregon 주 Lincoln City 에서 3 박 4 일간 가지는 모임의 이름이다. 신청인원은 20 명 내외로 한정하여 충분한 나눔과 교제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되 아기들이 있는 가정도 신청을 받았다. 장소를 Lincoln City 로 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쉼과 휴식을 충분히 가지며 그 분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Alignment Gathering 이 다른 수련회나 세미나, 혹은 기타 기독교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형식과 내용적인 면에서의 유연성과 자유를 충분히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는 정해진 주제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며 짜여진 순서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Alignment 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느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유기적인 찬양과 자유로운 나눔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더 의도적으로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필자와 한 두 명의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설교나 강의를 하기보다 참여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각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분별하고 격려하며 돕는 안내자와 멘토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3 번의 Alignment (2016, 2017, 2018)와 한국에서 1 번의 Alignment (2017)를 가졌으며, 매번마다 그 성격과 방향, 그리고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경험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최측에서 성격과 방향을 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더 무게와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상수(absolute constant)이신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늘 변하기 마련인 여러 변수들(variables)에 따라 강조하시거나 일하시는 방향이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다. 즉, 참여자 개개인에 대한 포커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그 프로그램의 정해지고 짜여진 형식과 방향에 참여자들이 맞추는 것이라 한다면 Alignment 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참석자들이 어떤 이들이며,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필요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모임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것 또한 EPIC 의 특성들을 자연스레 반영한 형태와 지향점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멘토와 가이드로서의 영적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Figure 13 Alignment 2017



Figure 14 Alignment 2017



Figure 15 Alignment Korea



Figure 16 Alignment Korea



Figure 17 Alignment 2018



Figure 18 Alignment 2018



Figure 19 Check in



Figure 20 2016 Gathering



Figure 21 Hiking



Figure 22 Hiking



Figure 23 Hiking with kids



Figure 24 2016 Venue



Figure 25 2017 Indoor Gathering



Figure 26 2017 Hiking



Figure 27 2017 Outdoor Worship



Figure 28 2017 Kayaking



Figure 29 2017 Prayer Wal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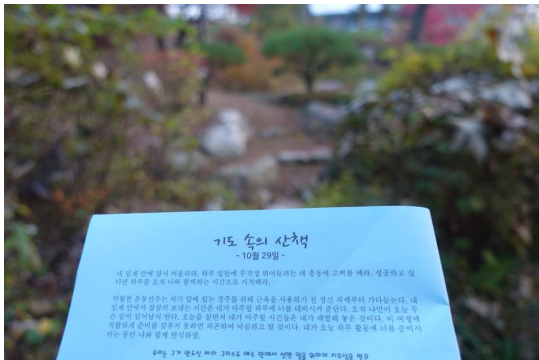


Figure 30 Prayer Walking



Figure 31 2017 Korea



Figure 32 2017 Korea



Figure 33 2017 Korea



Figure 34 2018 Outdoor Worship



Figure 35 2018 Indoor Gathering



Figure 36 2018 Beach

Alignment Booklet



Alignment 2017 참식자에게

Oregon Coast에서 두 번째로 가지게 되는 이번 Gathering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칭을 Conference에서 Gathering으로 바꾼 데에는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방적인 전달이나 가르침 보다 참여자들의 풍성한 나눔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일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나눔 주제들에 대해 몇몇 목회자들이 설명과 소개는 하였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진실하고 진지한 고민과 나눔,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며 각자 할 방향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번 시간을 통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리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어름다운 오래전의 자연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리고 불러주신 우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영, 혼, 육과 관계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정렬(aligned)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크고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며,
May 2017
진여를 목사가

ALIGNMENT GATHERING

- Orientation -

Contact

진영훈 목 사 : 310-709-0816
이상현 전도사 : 310-613-6123

Spiritual Directors

권민정 목사, 박광리 목사, 진영훈 목사

Event Address (행사장소)

랭컨시티 한인교회:
1461 NE 6th Dr.
Lincoln City, OR 97367

House 1: (Brannholm)
1351 NE East Devils Lake Rd,
Otis, OR 97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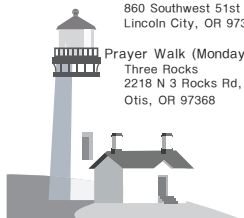
House 2: (Alder House)
2941 Northeast Loop Dr,
Otis, OR 97368

House 3: (Heron cove)
4870 NE Loop Dr,
Otis, OR 97368

Hiking:
Knoll Open Space (따로 다렉선 니갈 예정)

Prayer Walk (Sunday):
Siletz Bay
860 Southwest 51st Street,
Lincoln City, OR 97367

Prayer Walk (Monday)
Three Rocks
2218 N 3 Rocks Rd,
Otis, OR 97368



ALIGNMENT GATHERING

- Schedule -

5/19 ~ 5/22 Lincoln City, OR

첫째날 5월 19일(금)	셋째날 5월 21일(토)
5pm @ Lincoln City Korean Church - 등록 및 저녁식사 - 숙소배정 및 오리엔테이션	7:30am @ Siletz Bay - Prayer Walk
7pm @ House 1 (Brannholm) - 첫모임	9am @ 각 숙소 - 아침식사
	10:45am @ Lincoln City Korean Church - 주일예배
둘째날 5월 20일(토)	12pm - 점심식사
6am @ Lincoln City Korean Church - 새벽예배	2pm - 오후모임
8am - 아침식사	4:30pm @ House 2 (Alder House) - 저녁식사 및 친교
9am - 점심식사 준비	7pm @ House 1 (Brannholm) - 저녁모임
9:30am @Knoll Open Space - 하이킹 및 야외세션	넷째날 5월 22일(일)
12pm - 점심식사	7:30am @Three Rocks - Prayer Walk
2pm @ House 1 (Brannholm) - 오후모임	9am @ 각 숙소 - 아침식사 및 숙소정리
5pm - 저녁식사	10am @ Lincoln City Korean Church - 마지막모임
7pm @ House 1 (Brannholm) - 저녁모임	1pm - 점심식사



PRAYER WALK

- May 21-

나, 곧 우주를 지은 이가 너와 함께 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넘치는 풍성함을 주겠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아라.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너의 생각이다. 생각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문제를 물려준다. 네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유일한 해결책은 초점을 문제에서 내 일제로 바꾸는 데 있다. 네 모든 노력을 멈추고 내가 행할 일을 바라보아라. 나는 여호와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아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롬 8:31-32)

오직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거룩하시리로다 (미 7:1)

I,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m with you and for you. What more could you need? When you feel some lack, it is because you are not connecting with Me at a deep level. I offer abundant Life; your part is to trust Me, refusing to worry about anything.

It is not so much adverse events that make you anxious as it is your thoughts about those events. Your mind engages in efforts to take control of a situation, to bring about the result you desire. Your thoughts close in on the problem like ravenous wolves. Determined to make things go your way, you forget that I am in charge of your life. The only remedy is to switch your focus from the problem to My Presence. Stop all your striving, and watch to see what I will do. I am the Lord!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i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Romans 8:31-32

But as for me, I watch in hope for the Lord, I wait for God my Savior: my God will hear me. - Micah 7:7



PRAYER WALK

- May 22 -

네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라. 후회는 이내 분노로 돌변하게 마련이다. 네 모든 환경을 내가 다스린다. 네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해라. 네 인생에 내가 행하는 일을 기뻐해라.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그리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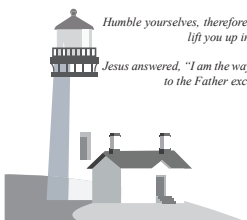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생을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세상일에 놀라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 내게 중심을 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네 시선을 나에게 고정해 두는 일이다. 내가 생각의 중심에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내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에 내가 할 일을 행하라 (행전 5: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When things don't go as you would like, accept the situation immediately. If you indulge in feelings of regret, they can easily spill over the line into resentment. Remember that I am sovereign over your circumstances, and humble yourself under My mighty hand. Rejoice in what I am doing in your life, even though it is beyond your understanding.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n Me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both for this life and for the life yet to come. Don't let the impact of the world shatter your thinking or draw you away from focusing on Me. The ultimate challenge is to keep fixing your eyes on Me, no matter what is going on around you. When I am central in your thinking, you are able to view circumstances from My perspective.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1 Peter 5: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John 14:6

PRAISE AND WORSHIP

Index

- | | |
|-------------------------------|-----------------------|
| 22 - As It Is in Heaven | 62 - 놀 어쉬은 마음 |
| 11 - Build My Life | 40 - 머라나타 |
| 10 - Christ Be All Around Me | 28 - 버길 수 없네 |
| 12 - Come and Fill This Place | 43 - 심치기를 잠으신 |
| 4 - Every Giant Will Fall | 35 - 악 이크니님의 은혜로 |
| 7 - Good Good Father | 34 - 악바 악바지 |
| 5 - Great Is the Lord | 51 - 악가에 모인 우리 |
| 19 - Jesus We Love You | 46 - 악오악악 들어가지 |
| 15 - Kyrie Eleison | 29 - 영광을 들리세 |
| 14 - Met By Love | 47 - 예수 나의 모든 것 |
| 20 - No Longer Slave | 59 -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
| 18 - Nothing I Hold On To | 55 - 온 맘 다해 |
| 13 - One and Only | 25 -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
| 3 - Praise Will Be My Song | 49 -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
| 1 - Seek First | 41 - 우물거의 여인처럼 |
| 21 - Shekinah Glory | 58 - 이 땅에 오직 주 밖에 없네 |
| 6 - Song of Moses | 61 -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
| 16 - There Is a Cloud | 31 -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
| 17 - This We Know | 53 - 주 음성 의어는 |
| 9 - Unto Your Name | 24 - 주께 가까이 |
| 8 - What A Beautiful Name | 23 -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
| 2 - Where You Are | 60 - 주님 나리 오실 때까지 |
| 42 -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 54 -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
| 27 -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52 - 주님이 어 손을 |
| 26 - 나는 예배드립니다. | 56 -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
| 38 -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 45 - 주의 도를 버리고 |
| 36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32 - 주의 사랑을 주의 선의심을 |
| 44 -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 48 -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
| 33 - 내 모습 어대랴 | 30 - 창조의 여비지 |
| 50 - 내 영혼의 그옥이 귀은데서 | 37 -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
| 39 - 너와는 가만히 있어 | 57 -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



1. Seek First

V
Peace that passes, my understanding
Love that conquers, my fear and regret
Joy unending, eternal pleasure
In Your presence, my risen King

C
And I will seek first, Your kingdom
I will seek first, Your righteousness
And everything I need, You will provide for me
My heart is to seek first, Your kingdom

B
You're all I really want
You're all I really need
Father every breath I've got
you have given it to me

2. Where You Are

V
I can't get enough
No I can't get enough
Of Your amazing love
No I can't get enough

I can't walk away
No I can't walk away
For I have seen Your face
No I can't walk away

C
I just want to be where You are
I just want to be near Your heart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B
Oh Oh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3. Praise Will Be My Song

V1
When all I have is just a whisper
You breathe in me a new song
You take me back and I'll remember
The joy of my first love

C
Praise will be my song
How can I contain it?
I cannot contain this love

V2
For what we lacked
Your blood has covered
What we get is what You paid for
'Cause through Your death our lives reborn
The joy of our salvation

B
I'll shout out
I will sing of Your love for me
As You reach out
I can feel You all around

4. Every Giant Will Fall

V1
I can see the Promised Land
Though there's pain within the plan
There is victory in the end
Your love is my battle cry

V2
When my fears, like Jericho
Build their walls around my soul
When my heart is overthrown
Your love is my battle cry
The anthem for all my life

C
Every giant will fall, the mountains will move
Every chain of the past, You've broken in two
Over fear, over lies, we're singing the truth
That nothing is impossible with You

V3
There is hope within the fight
In the wars that rage inside
Though the shadows steal the light
Your love is my battle cry
The anthem for all my life

B
No greater name, no higher name
No stronger name than Jesus
You overcame, broke every chain
Forever reign, King Jesus

5. Great Is the Lord

V
Splendor, in majesty
Strength and beauty be
Unto your name, Ancient of days
You're Holy

We tremble before your throne
Our hearts prepare you room
We come and adore, ruined before your glory

C
Great is the Lord most worthy of all praise
Great is the Lord most worthy of all praise

B1
You are Holy
You are Holy
Crowned with wonders, majesty

B2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At the end of all days
I will sing
I will shout
You are worthy of praise

6. Song of Moses

V1
Oh the Lord, our strength and song
Highest praise to Him belongs
Christ the Lord, the Conquering King
Your Name we raise, Your triumphs sing

C
O Praise the Lord, our mighty warrior
Praise the Lord, the glorious One
By His hand we stand in victory
By His Name we overcome

V2
Though the storms of hell pursue
In darkest night we worship You
You divide the raging sea
From death to life You safely lead

V3
All the saints and angels bow
Hosts of heaven crying out
Glory, glory to the King
You reign for all eternity

B
The Lord,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Alignment 후기

Alignment 2017

1. 나에게 2017 Alignment 는 _____ 였다. 그 이유는?

- **참가자 A** : 천국. 예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셔서 바로옆에 계신 느낌이었다
- **참가자 B** : 2017 년 최고의 시간. 스스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나눴을때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많은 위로가 있었다.
- **참가자 C** : 길을 찾아주는 장소. 이번 모임을 통해 나 자신의 많은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참가자 D** : 꿈을 컴뽀하는 시간.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속에서 살고 싶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되서 외딴 집에 혼자 살아도 자연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 곳곳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하시는지 들으며 그렇게 key 가 되어주는 어른으로 늙고 싶었는데.. 도심에서 살다보면 그런 시간들이 가능키나 할까라는 마음도 있고 그냥 이상적인 바램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자연을 밟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분들 보고 오니 꿈에 한발자국 더 다가온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 **참가자 E** : 시작. 의미있는 시기, 장소, 사람들과 함께하여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 **참가자 F** : God With US ? 이번 alignment 에션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다.
- **참가자 G** : 함께. 기도하며 답을 듣지못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혼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함께 모여서 질문할 때 '다들 비슷한 고민들과 질문들을 하며 살고 있구나.' 하고 느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벗어났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교회에서 떨어져나온 후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의 연속이었고, 매주 생각이 바뀌는 걸 경험하면서 좀 지치기도 했는데 생각의 중심이 잡히게 됐어요.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많이 느끼게 되었고, '함께'라는 의미가 비단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 **참가자 H** : 오랜 숙원. 그리워 하던 곳이었다.
- **참가자 I** : A glimpse of heaven and a glimpse of Jesus' time on earth. I feel like when we get to heaven--it would be just like the gathering but probably better and more magical than we can imagine. But, Alignment Gathering felt like I was in heaven with Jesus's disciples and His people freely praising, worshiping, asking questions, and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Enjoying God's creations and His people and freely basking in His presence. Isn't this what Heaven will be like--but better? I, also, felt like it was a glimpse of Jesus's life on Earth. Crowds coming from far places to hear Jesus speak and see Him working through miracles and asking Jesus questions. 진목사님, 김민정 목사님, 박광리 목사님-- were portraying Jesus's heart with unconditional love and support for our questions. And the rest of us who came to the gathering were the crowds from different areas of the country--coming to hear the good news, encouragement, to receive healing (whether it may be physical or emotional), and just to be near Jesus.

- **참가자 J**: 다시 꿈꿀수 있는 초대장. 우리 가정에 뉴시즌에 대한 기대를 확인시켜주셨으므로. 오는 7 월에 남편이 씨애틀로 coast guard 를 입대하며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와 아가는 텍사스에서 남은 군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발령지를 기다리며 마음에 다소 염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Alignment 를 통해 마음에 큰편안함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첫 아이의 발달과정으로 인한 불안함과 우울증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희에게 좋은것으로 준비해 주셨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용기로 선포하고 말할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새직업과 발령지 또저의 커리에조차 비록 안개처럼 확실하지 않은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의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수있는 기대와 꿈, 평안으로 채워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대화를 나눠보지못한 분들 까지도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더라 했네요. 특히 주일저녁 야외에서의 레이크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싶을정도로 따로인듯 하나된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 **참가자 K**: Move onto the Next Chapter. 나도 모르는 무의식가운데 한계를 그으며 움츠려 들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게 다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자연을 즐기며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우리 함께 했던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만져 주시고, 이제 예전처럼 함께 할 수는 없겠지 라며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는 나에게 (physically 함께 하지 않아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 계속 함께 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 자신 뿐 아니라, 각자에게 허락해주시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무한든든) 그것을 계속해서 응원하며 함께 지켜보고 싶은 기대를 주신 것 같아요. 능히 그럴만한 능력도 성품도 가지신 하나님께 모두를 맡겨 드리며 나도 넥스트 스테이지로 고고씽! :)
- **참가자 L**: Rest. 안식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
- **참가자 M**: 자연스러움.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내가 나로 있어도 편안 했기 때문에
- **참가자 N**: 시작, 쉼. 삶에서 무엇인가가 시작된것같고, 일상이 일상같지 않고 오랜만에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생긴것 같아서
- **참가자 O**: 호흡.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깊은 숨을 들어 마쉬었을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기함에 축축함과 청량함이 충만하였는데 흡사 하나님께서 캘리에서의 환경에 지쳐가던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제가 가는 곳에서 숨쉬고 호흡하던 순간들 하나하나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것 같았습니다.
- **참가자 P**: 색다른 만남
- **참가자 Q**: 초대
- **참가자 R**: 짧은 쉼표. Alignment 는 여느 수련회나 집회같이 큰 임팩트를 주는 시간은 아니었다. 애초에 그것을 바라고 가지도 않았지만... 하지만 그에 비교할수 없는 더 큰 의미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 모임은 나의 일상과 내게 익숙한 곳을 벗어나 잠시 내 삶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었다. 그곳에서 그동안 나의 일상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존재의 크심을 새삼 다시한번 깨달을수 있었다. 광대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품에서 좋은 공기를 크게,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 듯 평강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 **참가자 S**: 휴식, 쉼, "자연속에서 평안을 찾을수있어서..."
- **참가자 T**: 천국이 있다면 이런느낌, 이런 곳이다 라고 맛볼 수 있었던 모임.
- **참가자 U**: "Retract to Align ("더" 뒤로가기)." 첫째, 개인적으로 진영훈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새롭고 특별한 여정, 혹은 챕터를 시작했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두 분의 초빙 목사님들을 통해 그 여정의 시작보다 앞서 있었던 여정에 초대된 듯한 신비로움이 있었다. 마치, 영화의 Prequel 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어쩌면, 지금의 내 여정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세 분이 아닌가 싶었다. 이런 점에서, 시공간적으로 ""더 뒤로 가있는 것""에 대한 흥미로움과, 특별함, 그리고 감사 속에서 Alignment 를 임했다. 둘째, 하나님과 가장 Align 된 생각을 원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예: 예수님의 삶), 나의 생각을 더 뒤로 보내보면서 원점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가장 큰 깨달음은 첫번째 Prayer Walk 때였다. "네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어 버린다. 유일한 해결책은 초점을 문제에서 내 임재로 바꾸는데 있다. 네 모든 노력을 멈추고 내가 행할 일을 바라보아라. 나는 여호와다!" 내게는 지속된 시간동안 풀리고 있지 않은 문제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창업한 회사가 첫단계 이후로 왕성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를 갖는 것이다. 살면서 이토록 오랜 시간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없었기에 (교만함), 이 두 가지 문제는 더욱 더 생소한 답답함으로 다가왔었다. 이 두 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첫번째 Prayer Walk 때 내 앞에 꺼내 놓으셨다. 생각의 흐름은 의외로 간단하게 흘렀다.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그동안 문제를 풀기 위해 온갖 (내) 방식대로 솔루션을 찾고, 기획하고, 시험해 왔었다. 그리고 실패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또한, 냉철하게 얘기하자면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임재에만 초점을 맞춰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1 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하면 임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다... 정작 나는 멈춰서서 여호와임을 믿고 아무렇게든 임재에 초점을 맞춰보기도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초점을 맞추기에 대한 기획으로 이미 넘어가 있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느라 결국은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흥내조차 내보지 못하고 시간이 끝났다. 하물며 일상 속에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간이 흐르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음을 느꼈다. 그렇다. 진짜 ""내 방식""은 내가 생각했던 내 방식보다 더 뒤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방식보다 더 뒤로 가야만, 임재가 있었다. 그간 유독 위의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았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임재를 신경쓰시는 부분들이란 듯 싶다. 그렇게 이번 alignment 는 내게 있어, 더 뒤로 가야만 align 이 될 수 있었던 깨달음을 주었다.

- **참가자 V:**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씬 / a glimpse of heaven.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임하는 자유와 기쁨을 맛볼수있는 시간이었다. 첫날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도 기다리신것 같은, 오래전 내 캘린더에 잡아 놓으신것 같은 행복한 약속같은 시간이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모습의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다른 인생의 시즌을 걷고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정말 한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받는 시간이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메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씬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꿈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가정과 육아에 대해서 고민하며 각자의 일상의 짐을 지고있는데, 참 지쳐있는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씬을 얻을수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있다는 것이. 이때까지 겪었던 아픔과 고난과 죄를 대신 지셨다는것이 참 고맙고 감격스러웠다. 이안에서 이러한 씬과 평화와 새로운 소망을 가질수있는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참 감사했고, 아름다웠다.
- **참가자 W:** Remind, Rehabilitate, and Recall.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주시는지를 리마인드 했고, 한국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 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세울수 있게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하나님한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 **참가자 X:** 회복과 시작. 찬양과 말씀, 나눔을 통해 찬양의 회복과 주님이 주신 진리들에 대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참가자 Y:** 산소마스크. 똑같은 일상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필요했던 생각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 **참가자 A** : 토요일
- **참가자 B** : 새벽기도아침시간 묵상하면서 걷던 순간에 또 다른 자유와 여유를 느낄수 있었다. 처음 느껴봐서인지 여운이 굉장히 길었다. 아직까지도 눈감으면 그때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 **참가자 C** : 월요일 아침 Prayer Walk 과 주일저녁 집회
- **참가자 D** : Prayer walk - 혼자 자연을 걸으며 하나님께 진솔한 질문들을 던져본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묻고 질문하던 시간들 :)
- **참가자 E** : 주일 말씀과 설교 그리고 헌금 특송 찬양
- **참가자 F** : 목사님들과 Q&A 시간. 다들 사람들의 고민들과 좋은 답변을 들을수 있어서.
- **참가자 G** : 호숫가에서 찬양하고 생선 굽고, 나눴던 시간
- **참가자 H** : **를 안고 업고 하이킹을 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올라갈 땐 돌아갈까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탁 트인 전망에 비록 고야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힘들었던 걸 잊게 되었습니다.
- **참가자 I** : Devil's Lake 에서 bonfire 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특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개사를 하면서 부르는 시간. It was beautiful to hear one person at a time declaring their heart for the Lord.
- **참가자 J** : 개인적으로는 딸 ***를 위한 축복의 기도시간이 가장 좋았고요. 지난 6 달동안 새로운 생명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신 하나님께서 Alignment 에 오신 모든분들의 입술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부모로써의 기도를 구체화 시켜주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참가자 K** : 매순간 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 이름과는 너무 느낌 달랐던 데블즈 레이크에서의 찬양 시간 및 캠프 파이어 ㅋㅋ 그리고 호수가 널리 보이는 넓은 창문을 가진 여자 숙소에서의 게더링 시간이 아른아른하네요
- **참가자 L** : 나무 아래에서 찬양하던 것
- **참가자 M** : 갈릴리 바닷가 에서...ㅋㅋ 호수 앞에서 함께 또 각자 연합했을 때
- **참가자 N** : 개인적으로 얼라인먼트 하루 전날 밤. 동산위에서 찬양했던순간. 그리고 마지막날 저녁 야외, 특별히 "데빌스레이크 에서" 찬양을 부르며 각자의 고백을 들었던 순간
- **참가자 O** : 저랑 **형이랑 보트를 타고 노를저어 호수 횡단(?)을 했던 기억인데.....왜 그랬을까 싶기도 했는데 중간 쯤 가서 힘들어 고개를 돌리니 사방이 초록색과 그 밑의 아기자기한 집들로 이루어져 있음에 놀랐을 때인것 같아요
- **참가자 P** : 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예: 찬양과 기도시간)이 아닌 세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나눈 discussion 을 통해서 말씀해주신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픈 디스커션을 통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나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그것에 대한 목사님들의 의견들을 들었던게 가장 좋았습니다.
- **참가자 Q** : 둘째날 저녁 목사님들과 청년들이 질의응답했던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참가자 R** : 목사님들과의 대화시간, 자연속에 있었던 시간들
- **참가자 S** : 아침산책
- **참가자 T** :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먼곳에서 각자의 삶을 잠시 뒤로한채 모인 사람들의 마음들을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서로 관계하는 모습을 보고계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을때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잠깐 나누었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 봤던 사람들 에게 저에겐 너무 생소한 가족과 같이 놀러왔다는 느낌에 또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 **참가자 U:** Prayer Walk.
- **참가자 V:** 솔직히 말하면 좋았던 여러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서 (다소 올드한 표현이지만!! ㅋㅋㅋㅋ) 가장 좋았던 시간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본다면, 1. ****와 *** 등 아가들을 바라보며 축복의 말을 건넸을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를 바라보실때 뭐라하실까? 하나님의 시선과 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응원의 말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씨앗을 심는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주일날 바닷가에서 가졌던 morning prayer walk. 이른 아침에 그렇게 안개로 둘러싸인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걸어본 이가 몇 있을까도 싶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대화를 걸고 같이 걷고 듣고 하는 시간이 참 intimate 하게 느껴졌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매일 쫓기는 바쁜 아침으로 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어나면 하나님께 인사하고 대화하며 시작하는 아침을 가지고 있다. 그치만 더 나아가 그때의 시간처럼 내 아침의 일부를 commit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싶다. 여기 돌아와 다시 쫓기는 아침을 좀 보내고 있기에 (도전) 3. 주일날 김민정목사님의 설교. 많은 부분이 은혜가 되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것.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것을 느꼈다. 4. 질문 나누는 시간. 옹고그른, 바보같은, 더 중요한, 혹은 덜 중요한 질문 하나없이 함께 들어주고 또 다시 그 질문에 질문하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 시간이 참 좋았다. 마지막날 저녁에 야외에서 고기굽고 있을때 이층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박목사님 언니 오빠들이 질문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순간 지나가며 내 귀에 들렸던 그 이야기가 내게도 중요하고 personal 한 토픽이었기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참 많이 격려가 되고 공감가는 순간이었다 5. 순간순간 주어진 자유의 시간 모두 하고 싶은거 하는 시간이 좋았다. 마지막날밤 여자숙소에 돌아와 거실에 있는데 한 언니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되었다. 참 casual 하고 재미나고 편안한 대화였는데, 그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시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다. 내가 요즘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향에 대한거였는데 많이 나를 돌아보게되었다. 나에게 중요한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6. 첫째날 아침 예배당에서 둥그렇게 앉아 가진 새벽예배시간 7. 시간시간마다 진목사님이 어땠냐고 디브리핑하게 하신것. 그 순간을 그냥 넘기는게 아니라 내가 느낀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process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8. 찬양의 시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나의 왕. 다시 선포하고 기억하게 해준 시간.
- **참가자 W:** 모든 시간이 좋았다(도깨비 대사 중) 개인적으로 찬양 세션과 주일 오후에 했던 약간의 실습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쉼어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 **참가자 X:** 저녁마다 드린 예, 시간이 널널해서 할수 있었던 말씀 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 **참가자 Y:** 어느 한 순간이라기보다는 봉사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중간중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3. 가장 좋았던 것은?

- **참가자 A:** 찬양하는 시간과 목사님 사모님 목소리
- **참가자 B:** 모든 순서들이 좋았다. 그 중 하나를 꼽자면 Gathering 후에 육체적 피로가 없어서 너무 신기하고 색달랐다. 보통 수련회를 참석하고 내려갈때면 육체적 피로가 몰려들고 했는데 모임의 특성상 칼같은 스케줄이 없어선지 맑은 정신으로 말씀듣고 찬양하는 시간들이었다.
- **참가자 C:** 세 분 목사님들과의 토론/대화시간
- **참가자 D:** NATURE :) 마지막 prayer walk 에서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 말해주게 기억이나요 자연은 더 이빠보이기위해 나뭇가지를 뺏어보려고 노력하거나 멋져보이기 위해 색을 푸르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연 깊숙이까지 찾아찾아 온다고 .. 분명

사람도 하나님이 자연보다 아름답게 빚으셨는데 사람들은 더 멋져보이기 위해 노력하는거 같으며 우리도 우리 있는 그대로가 자연처럼 아름답다고요.. 진짜 자연 옆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누리는 시간들이었어요

- **참가자 E** : 질문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과 자연속에서의 기도
- **참가자 F** : 위의 답변과 같이 목사님들과 참석자들과 여러 대화와 질문들을 들을수 있었던 시간.
- **참가자 G** : 모여 앉아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각자의 insight 를 나눴던 시간
- **참가자 H** : 일상에서 벗어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참가자 I** : 저는 processing 하는 시간들이 길고, 무작정 질문을 하라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편인데요.. 목사님들과 Q&A 시간들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다른 언니오빠들이 하고-- 목사님들에 point of view 도 듣고, 또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전달이 되었을때. 너무 위로가 되었던거 같아요. 나만 그리고 우리의 부부만 struggling 하는 부분들이 아니구나..우리만 이런 고민을 갖고 힘들어하는게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가장 필요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 **참가자 J** : 자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시간도 너무 좋았어요. 산 바다 강까지 매번 이리도 좋은 코스를 어찌나 잘 찾아주셨는지 한걸음 한걸음 감탄과 휴식 또 회복의 시간이었네요. 매일 할수 있는 morning prayer walk 도 오레곤에서만 느낄수 있는 여유가 더해지니 영육정신까지 물같이 되는 느낌이라랄까요. 토요일 새벽 찬양과 주일 설교 말씀도 필요하고 준비된 시간 같았어요. 식사 메뉴가 한식만이 아니어서 더 다양하고 좋았던거 같아요. 숙소 선정도 대박!
- **참가자 K** : Conference 에서 gathering 으로 이름을 바꾸신 그 의도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정해진 듯 정해지지 않은 포맷이 좋았습니다.
- **참가자 L** : 많은 것들중...아름다운 호수가에 있던 집에서 드렸던 예배...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깊은 이야기들 여자들끼리 나누었던 것들
- **참가자 M** : 그냥 편안히 자연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 **참가자 N** : 함께함
- **참가자 O** : 토요일 오전에 갔었던 하이킹이 너무나 기억에 남네요. 영화에서나 보던 나무를 뒤덮은 이끼, 울창한 숲, 나즈막히 내려앉은 안개등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참가자 P** : 2 번 답과 동일
- **참가자 Q** : 셋째날 저녁 각자 모두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며 또 좋은날씨와 모든 상황들이 주님께서 그 순간들을 선물로 저희에게 주시고 싶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알게 하셔서 소속되게 하시고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 **참가자 R** : 주일예배 김민정 목사님의 설교, 자연속에 느꼈던 하나님의 크신 품, 자유로운 분의기에 오고갈던 Q&A + 전체대화시간, 공동체의 귀함을 다시한번 깨달았던것, 아주 잠깐씩이었지만 이동거리를 사람들을 위해 운전할 수 있었던것. 강압적이고 뻣뻣한 스케줄이 아닌 여유로운 스케줄.
- **참가자 S** : Devil's lake 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피쉬 먹었던 것
- **참가자 T** : 여자숙소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서로 오고가는 이야기 속에 많은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했던부분이 좋았습니다.
- **참가자 U** : 억지스럽지 않은 편안함, 여백, 자유로움, 조용함.
- **참가자 V** : 가장 좋았던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언니 부부와 함께 예배한것. 특히 형부랑 가족이 되고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쉼어하고 하는 시간을 가진게 좋았다. 가족으로 함께 이 곳 가운데

있는게 너무 특별한것같았다. 나 뿐만아니라, 아기와 아내 남편과 오신분들, 여러 아이들과 어른, 노인, 젊은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게 alignment 의 참 좋은 부분중 하나인 것 같다.

- **참가자 W:**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참가자 X:** 1)프로그램이라고 적혀있는 순서가 뭔지 궁금했는데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교제여서 정말 좋았습니다.2)간식.3)고구마앤누룽지~
- **참가자 Y:** 세 목사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한분 수동적인 서포팅이란 느낌보단 파트너란 다이나믹 속에 전하고자 하시는 단 한분 하나님을 배울수있어서 좋았습니다.

4. 가장 아쉬웠던 것은?

- **참가자 A:**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것
- **참가자 B:** 작년 아쉬웠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번 모임후 장점으로 바뀐 것 같다. 지난번에는 진목사님, 상현전도사님이 엘에이로 내려오셔서 Gathering 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오레곤에서만 느끼고 경험할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선별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과 정성이 꼭 필요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 느꼈다.
- **참가자 C:** 시간적 제약, 숙소 사정으로 10 시에 끝내야했던 스케줄
- **참가자 D:** 하루 더 휴가내서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지요. 티켓팅할때는 다음날 바로 일해야하니까 너무 늦게 도착하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티켓팅을 한건데 새벽에 도착하더라도 몇 시간 더 있을걸 이란 마음이 들더라고요.
- **참가자 E:** 가장 좋았던 부분인 이야기 하는 시간에서 주제가 대다수가 관심이 있는 몇가지 다양한 주제 (정치,사회,문화,인간관계, 성품,가치관 등 생활 주제와 이를 대하는 신앙생활 및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아갈 방향 등)로 사전에 공유가 되고 정해져서 깊이 나누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참가자 F:** 제가 늦게 와서.....다음번에 제 시간에 올수 있었으면. 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했던거.
- **참가자 G:**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몸이 많이 아파서 더 신나게 못 놀아서 아쉬워요.
- **참가자 H:** 체력이 뒷받쳐주지 않아 아침에 바닷가에 가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 **참가자 I:**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숙소들이 조금 떨어져있어서 아쉬웠어요. 저번 Alignment 때 (of course 인원이 더 적어서 그랬지만) 한숙소에서 지내고한게 너무 좋은 기억/추억들이 있고, 저녁늦게 까지 자유롭게 나눌수있어서 좋았어요.
- **참가자 J:** 영어권 남편을 위한 통역을 옆에서 해주지 못했던점이 가장 아쉬웠어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좀더 자유롭게 풀어놓지 못해 아쉬웠고요.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많았는데 제대로 인물사진이 없어서도 아쉬웠네요. 키보드에 pads/synth 소리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 **참가자 K:** 저의 체력과 π.π 짧은 일정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언제나 말이죠. 모두들과 조금씩은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아무래도 서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이 그때 할라고 하셨다던 treasure hunt? 같이 자연스럽게 서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경험할 수 있는 선물같은 은혜의 시간도 좋을것 같아요
- **참가자 L:** 일찍 떠나야 하던 비행기 시간

- **참가자 M** : 모든 분들의 인생과 신앙, 상황 등을 듣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몇몇 분들과 나눴지만 알다시피 신앙이야기가 워낙 오래걸리는 일이라서^^;~ 진목사님과도 이야기 못나눠서 아쉬웠네요~
- **참가자 N** : 없음
- **참가자 O** : 흠....굳이 꼽자면 남자 기숙사에 음식 및 식수가 없었던것 이랄까요?
- **참가자 P** : 저희는 주최측하고 숙소를 같이 쓰다보니 다른 참가자들과 친해질 기회가 조금 모자랐던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밤 아이스크림 친교는 매우 좋았습니다만...
- **참가자 Q** : 자신의 삶과 생각들을 나누면서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저도 얼라이먼트라는 기회를 통해 저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조금이라도 오픈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굳어져버린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 밖으로 표출되어지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얼라이먼트보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예요
- **참가자 R** : 짧게 느껴졌던 Q&A + 전체 대화시간. 숙제해온 것을 Alignment 마지막 날쯤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다들올게 있다면 다시 점검해보고) 몇 가지를 서로 나눠도 좋았을것같다.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것 같다. 설교를 바란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모양 다른 방법으로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을것 같다.
- **참가자 S** : 없어요
- **참가자 T** :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가는것이 제일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일수도 있지만 세 목사님과 이야기 시간이 너무 짧았던거 같아요. (저보다 경험과 지혜가 많은분들 말씀 듣는것을 너무나 좋아해서요.)
- **참가자 U** : 아쉬웠던 점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라도 적고 싶은데, 정말 모르겠다. 편안했다. 그게 제일 좋았고, 다른 걸 억지로 바꾸면 편안함이 깨질 것 같다. 그냥 이번 Alignment 가 편안했다는 얘기고, 다음번엔 또 전혀 달라도 좋다 ^^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좋을 것 같다.
- **참가자 V** : 아쉬웠던것은 마지막날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목사님들에게 질문하고 이야기들은 시간이있었는데, 내게도 슬며시 떠오른 질문들을 이야기 못한것. 내 질문들은 사소하고 바보같은 것이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것 같다. 목사님도 떠오르는걸 이야기해 주셨을것 같다. 첫날에 아쉬웠던건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가게되서 내 마음이 준비가 안됐다고 느꼈는데, 어느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 온전히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 **참가자 W** : 풀타임으로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여서 느껴지는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뵙는 분들과 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못한것이 아쉬웠습니다
- **참가자 X** : 전혀 없었습니다.
- **참가자 Y** : 아쉬웠던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5. 다음 Alignment 를 위해 건의하고 싶은 것은?

- **참가자 A** : 없음
- **참가자 B** : 많은 Hotel/Motel 방들을 빌린다면 거기 호텔에 있는 컨퍼런스 룸을 굉장히 저렴하게 빌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을 준비하실때 꼭 미리 알려주셔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못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가자 C** : 시간 제한 없는 모임, 하루정도 더 일찍 시작하는것은 어떨지 (목요일?) 마음이 열리려는 분위기에 다들 떠나야 했던 상황

- **참가자 D** : 한국어권으로서 정말 개인적인건데;; 한국어 찬양을 더 많이 하면 좋을거 같다는 아주 별거아닌 건의입니다. 이번 찬양 선곡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굳이 쥐어짜 건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신랑은 영어찬양이 더 좋대요. 그러니 정말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 **참가자 E** : 첫 참석이어 건의 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계속 참여하여 건의 할 것이 생기면 바로 말하겠습니다.
- **참가자 F** : 지금 딱히 생각나는건 없네요.
- **참가자 G** : 작년과 올해를 경험하면서 25명 정도가 정말 좋은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랬을 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더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가자 H** : 없음
- **참가자 I** : 이번 Alignment 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꼭꼭꼭---계속했으면 좋겠어요. PLEASE!! :)
- **참가자 J** : 영어권 강사분을 한분 정도라도 청빙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것 같고요.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교포/유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화의 주제가 미국생활에서 공감할수 있으면 더 좋을것 같아요.
- **참가자 K** : 당장은 아니더라도...앞으로 장소의 구매없이 타주에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 오래곤도 아직 못다본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이 기회에 다른 아름다운 곳들도 고고고
- **참가자 L** : 넥스트만 있다면 어떤 모습이어도 좋겠다 :)
- **참가자 M** :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더 소그룹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너무 커지다보면 결국 기존 집회처럼 너무 체계적으로 가야될까봐 겁나요~
- **참가자 N** : 또 해요
- **참가자 O** : 이번에 가졌던 자매와 형제들의 고충이나 고민을 따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보고 싶은 질문들도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길어질꺼 같아 다 여쭙보지 못한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같은 부분은 사모님이나 주변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것 같아서 그 근처에서 캐더링을 해서 먹는건 어떨지 조심스레 여쭙어 봅니다.
- **참가자 P** : 다음번이 꼭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프로그램에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진행하셔도 좋을것 같아요
- **참가자 Q** : 없음
- **참가자 R** : 인원이 아주 살짝 더 적어도 좋을것 같다.
- **참가자 S** : 없어요
- **참가자 T** : 딱히 없는거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 **참가자 U** : 조만간 zoom 으로라도 한번 더 2017 멤버들과 gathering 을 하면 좋겠습니다!
- **참가자 V** :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진목사님, 이전도사님 다같이 함께함이 좋았다. 다음번에도 어떤 게스트분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 이야기, 만남을 이어간다면 좋을것같다.
- **참가자 W** :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서 피곤하시겠지만 그리고 더 큰 생각이 있으신것을 알지만 여유시간을 좀 줄이고 좀더 많은시간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참가자 X** : 1) 다음엔 어느나라에서 하게될지 모르니까 일정과 장소를 미리 공유해주시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2) 참여 전에 미리 묵상할만한거나 서적을 숙제로 주셔도 해결수 있을 것 같아요~
- **참가자 Y** : 만일 더 긴 시간 속에 더 많은 멤버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각자 은사로 나누는 조별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수련회들이나 집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lignment 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서?

- **참가자 A** : 네, 필요합니다.
- **참가자 B** : 네, 필요합니다. 매년 수련회에서는 회개를 강요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줬던 장소라면, 이번 Alignment Gathering 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법을 성경적으로, 성숙하게 가르쳐주는 모임이라 생각됩니다. 저와 **에게는 이번 모임후 영적으로 깊게 대화할 것들이 많이 생겨난것을 볼때 너무 유익된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에는 이렇게 깊게 영적으로 다름을 이해하고 나눔을 가졌던 시간이 부족했던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참가자 C** : 네, 필요합니다. 수련회와 다른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정해진 강사도 정해져 있지 않는 Organic 하는 모임은 한인 청년들을 향해 없기에
- **참가자 D** : 네, 필요합니다. 자연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회복하는게 말그대로 align 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많은 말씀들과 사역자들을 접할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채 doing 에 대해서만 요구되어지는 공동체 생활, 수련회, 설교들과 이번 alignment gathering 는 달랐다고 생각해요.
- **참가자 E** : 네, 필요합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여러 모습과 방법을 시도하는 Alignment, 자연속에서 하는 Alignment 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 **참가자 F** : 네, 필요합니다. 2 번 참석하면서 계속 느끼는건. Alignment 에서 느낄수가 있었던 장점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많이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오레곤에서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이 주는 힐링과 에너지.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presence 을 더 느낄수 있는 장점. 두번째는 이번에 더욱더 느낀건데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님들과 참석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더욱 친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들. 저도 2 번 참석하면 다 같은 모르고 신앙 생활을 같이한 추억 없었지만 정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같은 모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다른 참석자들로 alignment 에 분위기(?)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 준거 같아요. 그냥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은혜가 되었던거 같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사랑 공동체는 집회나 수련회에서 경험하기 힘든거 같아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그리고 참석자들이 그 동안 쌓아 놓은 좋은 추억들이 제가 느낀 ""사랑""을 가능하게 했던거 같아요.
- **참가자 G** : 네, 필요합니다. 수련회나 집회와는 확실히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lignment 의 성격도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자유함 속에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살면서 생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참가자 H** : 네, 필요합니다. Alignment 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좋습니다.
- **참가자 I** : 네,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던...어떤 수련회/conference 를 참석해도 이런 gathering 그리고 이런 experience 는 없어요. This was something I wanted to look forward to every year. Meeting new people, spending time with people I already know, growing with my family in this type of setting and looking forward to this gathering as a family each year--was something I wanted to do every year! :)
- **참가자 J** : 네,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섬기는 교회나 공동체에서도 완전 나다운 나로 가면을 벗는다는것이 쉽지 않을수있고요. 때로는 '아 떠나고싶다'는 생각이 들때 외지 특히 자연에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추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 **참가자 K** : 네, 필요합니다. Alignment 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포맷 (정해진듯 정해지지 않은)이 참 매력적이고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나 집회가 가지고 있는

포맷의 모습들이 (비유로 따지자면...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이 나오는 느낌?)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이 Alignment (아무도 정해진 시간에 먹으라고 이 때 안먹으면 음식치운다고 하지는 않는데 potluck 처럼 계속 차려진 부페음식을 자연스럽게 서로 접시들고 걸어나다니며 먹고 대화하는 느낌? 계속해서 atmosphere 에 flow out 되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 **참가자 L :** 네, 필요합니다. 저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하는 시간
- **참가자 M :** 네, 필요합니다. 기존 집회들은 프로그램과 인위적인 감정을 끌어냈다면 Alignment 는 성령님이 흐르시는대로 두는 것 같아서 여태껏 접해본 집회들은 그 날은 내 감정때문에 뜨겁고 며칠간 은혜롭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 Alignment 는 그냥 마음 안에 쥐도 새도 모르게 성령님이 조용히 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다. 내면으로부터의 평안함과 담대함, 안전감을 느끼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가자 N :** 네, 필요합니다. 수련회들이나 집회는 무엇을 끊임없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있습니다. 뭔가 쥐어 짜는듯이. 못만난것 같으면 화도 나고 내가 무슨 문제가있나...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만나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얼라인먼트에서는 뭔가 짜여지지 않았지만 divine orchestration 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되고 신경쓰지 않게되고 그냥 나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있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initiate 하는 것들에 반응하게 되는. 그게 자연을 통해서던 사람들을 통해서던 뭔가 자연스러움/자유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것같구요. 내가 strive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써 ready to ... speak, meet, change... whatever may be needed in my life, He's ready.
- **참가자 O :** 네, 필요합니다.
- **참가자 P :** 네, 필요합니다. 수련회같이 프로그램이 짜여져있고 주제가 정해져있는 모임들은 갔다오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얼라인먼트는 쉽이 있으면서 또 얻어가는게 많아서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차별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참가자 Q :** 네, 필요합니다. 요즘 어딜가도 비슷한 스타일의 집회와 모임 가운데 오레곤과 얼라인먼트 만이 줄수있는 독특함 속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함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말처럼 얼라인먼트 되어지는걸 느낍니다.저같은 경우에는 그 궤도가 크지않지만 차츰 좁혀지면서 삶속으로 돌아와 살아가면서 시간이지나 뒤돌아봤을때는 얼라인먼트의 본래 목적과 많이 가까워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 **참가자 R :** 네, 필요합니다. 위에 작성했던 이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련회나, 집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Alignment 는 포맷, 분위기, 취지 모두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 (더해서, 목사님들의 신학에 바탕된 이야기와 생각들) 을 듣는 곳이 마땅치 않은데, Alignment 분위기가 그것또한 가능하게 되는것같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한다. 김민정목사님과 박광리 목사님의 방문 때문에 이번만 그랬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번 모임처럼 평소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과 고민들을 꺼내놓을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청년들에게는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재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어줄것 같다. 색다른 환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생각의 재정리, 이 두 더해짐이 삶의 alignment 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었지만 다 함께 하는 대화시간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흡사 L'Abri 공동체가 아주 조금은 이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평소에 교회나 집회 등등을 통해 그저 주어지고 받아드리기만 하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느낄때가 많다. 또한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가 더해진다해도 100%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다. 교회나 수련회, 집회 등 을

통해 갖는 예배와 모임은 너무도 귀하고 필요하지만, 구조상 어쩔수없이 정형화된 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질문 고민을 편하게 나눌곳은 많이 마땅치 않다. 때때로 색다른 아웃렛이 필요하다 느낀다. 특히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들이 때론 의심할바없는 온전한 받아드림으로, 때론 지성으로 날카롭게 다가가는 여러 질문으로, 다양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과,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바라보며 다가가는게 되고, 그렇기에 그것을 자유롭게 나눌수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하지만 주위에 그런 공동체가 많이 없다고 느꼈고 그렇기에 평소 'Abri' 같은 공동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Alignment 취지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Alignment 에서 그런것이 가능한 공동체의 느낌을 조금 받았고 그렇기에 이 Gathering 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로움속에서 마음껏 같이 찬양하고, 각자 여러모양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나누는 이 모임이 참 좋고 필요한것 같다. 또한 위에 작성한, Alignment 에서 느낀 많은 좋은것에는 lincoln city 에 넓게 펼쳐진 하늘과 자연이 큰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곳 자연이 주는 특별한 환경이 Alignment 를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것 같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낄수 있었다.

- **참가자 S:** 네, 필요합니다. 수련회와는 달리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 **참가자 T:** 네, 필요합니다. 틀에 짜여진 곳에서 한번쯤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따라가는 수련회나 집회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 활짝 열어놓는 곳이 필요합니다.
- **참가자 U:** 네, 필요합니다. 수련회나 집외, 여러 프로그램들과 다르다. Alignment 만의 무엇이 있다.
- **참가자 V:** 네,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이미 열려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오레곤까지 찾아가는 commitment 를 가진 갈급함이나, 기대나,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 안에서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너무나 pure 한 자연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은 특별하다. 삶에서 멈추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매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의 일하시는 여백가운데 가만히, 또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해주는 시간이 유니크한것같다. 3 박 4 일 내내 내게 중요한 질문할 공간과 시간을 준다는것, 그것이 또 특별한 점인것같다.
- **참가자 W:** 네, 필요합니다.
- **참가자 X:** 네, 필요합니다. 저에게 집회는 이것 밖에 없네요~
- **참가자 Y:** 네, 필요합니다. 틀에 박히지않은 시스템에서 자연속에서 자유롭게 사색하고 익숙하지않은 다른모습일지라도 안전한 예배가 가능하구나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7. 좀 더 자주 Alignment 를 가지게 된다면 봉사자로 섬겨줄 의향이 있는지?

- **참가자 A :** 아니요
- **참가자 B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C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D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E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F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G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H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I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J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K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L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M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N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O : 네, 필요합니다.
- 참가자 P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Q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R : 아니요, 섬기는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 참가자 S : 아니요, 섬기는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 참가자 T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U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V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W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X : 아니요, 섬기는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 참가자 Y : 네, 섬기고 싶습니다.

8. Alignment 이후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참가자 A : 공동체
- 참가자 B : 하나님을 더 알고자하는 의지;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참가자 C : 기도생활, Alignment 같은 모임
- 참가자 D : 공동체
- 참가자 E : 공동체
- 참가자 F : 공동체 와 follow-up 둘 다 필요할듯 해서 서로 연결된거도 같고.
- 참가자 G : follow-up
- 참가자 H : 내 삶을 뒤돌아 보는 시간.
- 참가자 I : 기도생활
- 참가자 J :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깊이있는 기도생활
- 참가자 K :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기도생활과 공동체 그리고 follow up 다 필요한거 같은데
- 참가자 L : 기도생활
- 참가자 M : 하나님의 다양하고 세밀한 음성 듣기
- 참가자 N : 일상에서의 용기
- 참가자 O : 공동체
- 참가자 P : 기도생활
- 참가자 Q : 공동체
- 참가자 R : 기도와 말씀 묵상
- 참가자 S : 기도생활
- 참가자 T :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 참가자 U : LA 에서도 Alignment 에서의 여백을 찾는 것
- 참가자 V : 공동체

- 참가자 W: follow-up
- 참가자 X: follow-up
- 참가자 Y: follow-up

Alignment 2018

1. 나에게 2018 Alignment 는 _____ 였다. 그 이유는?

- 참가자 A : 환대
- 참가자 B : 도전
- 참가자 C : 휴식과 채움
- 참가자 D : Blessing (축복)
- 참가자 E : Confirmation. 하나님께서 아직도 날 사용하시리란 맘이 크게 들었습니다.
- 참가자 F : Big picture, 저의 삶(그리고 사역의) 여정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을 빅픽처로 확인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 참가자 G : 씬. 잘 잤어요. ^^
- 참가자 H : 새로움. 이전의 교회 수련회나 모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gathering 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서.
- 참가자 I : 천국(본향)으로의 초대. 크신 주님 안에서 하늘가족이 모여 함께하며 쉬며 누리는 선물같은 시간이었기에
- 참가자 J : 행복, 언제나 기쁨입니다
- 참가자 K : 일상. 주인이여서 그랬을까요...전에는 오래곤에 간다는 "여행" "설렘" "이벤트" 였었는데 이번에 저에게는 그냥 또다른 주말이었습니다. 좀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주말.
- 참가자 L : Refreshing
- 참가자 M : Reflect and reconnect with God. I had to remind myself of God's given purpose for my life.
- 참가자 N : 예상치 못한 선물. 오레곤에서 열리는 얼라인먼트는 나는 참석할 수 없는, 아주 먼 이야기였는데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 참가자 O :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시간. 작년의 두 얼라인먼트와는 다르게 구름끼고 조금은 어두운 하늘이 대부분이었던 이번 얼라인먼트에 역시나 많은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실히 알수 있었기 때문에.

2.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 참가자 A : 청년의 모습이 아닌 애엄마의 모습으로 와도 나를 나라는 사람으로 반겨주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환대함만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도 따뜻한 만남이었습니다
- 참가자 B : 직장맘으로서 아이를 full day 로 보는 날이 많지 않아서 3박 4일 아이와 함께한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 참가자 C : 자유함 속에서 다른 생각 (일이나 아이들 액티비티) 방해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어서.
- 참가자 D : 갈 수 없을뻔한 고비를 기회로 바꿔주셨다. Alignment Gathering 모임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모임 기간 내내 상처입은 마음을 위로 받았다. 마지막날 또 다른 시험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어주셨다. 희망을 말씀해 주셨고, 회복을 약속받았고, 나를 전심으로 만나주시고, 내 아프고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끊임없이 확인 시켜주시고, 들어주셨다.

- **참가자 E** : 첫날 첫시간에 찬양했던 시간
- **참가자 F** : 바닷가에서 수평선자락에 석양을 바라보며 함께 자유롭게 찬양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
- **참가자 G** : 토요일에 목사님께서 나누어주신 말씀
- **참가자 H** : 하이킹, 하이킹 끝나고 모닥불 앞에서 찬양하고 이야기 나눈것, 마지막날 prayer walk
- **참가자 I** : 호숫가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찬양할 때
- **참가자 J** : 저녁노을
- **참가자 K** : Driftcreek 을 하이킹하며 오고갔던 대화와 만남들
- **참가자 L** : Being away from my daily lifestyle
- **참가자 M** : The praise touched me deeply and I found my joy again.
- **참가자 N** : 저녁 바닷가 산책 마시멜로 구워먹어서 그랬나봐요
- **참가자 O** : 마지막 말씀뽑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얼라인먼트 동안에 하나님께 이야기했던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기억하고계셨고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고 삶으로 돌아가 살아갈 용기를 주셨다.

3. 가장 좋았던 것은?

- **참가자 A** : 노을이 지는 바다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참 좋은 사람들과 모닥불에 둘러 찬양을 하던 장면이 사진처럼 슬로우 비디오처럼 떠오릅니다
- **참가자 B** : **언니와의 심야토크, 하이킹 중 암전했던 아들, 기저귀에서까지 나오던 모래, 아이의 성장한 모습을 본 것
- **참가자 C** : 둘째날 바닷가의 하늘과 그를 배경으로 목청껏 찬양한것과 하이킹 중 지나간 흔들다리
- **참가자 D** : 남편과 아침에 걸었던 순간. 육아에 지쳐, 일상에 지쳐 못해봤던 짧은 동행
- **참가자 E** : 전체적으로 많은 마음의 평안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참가자 F** : 자주 보지 못하지만 기도로 그리움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 **참가자 G** : 함께한 사람들, 찬양, 하이킹...모두 다 '가장' 좋았네요.
- **참가자 H**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것
- **참가자 I** : 목사님들이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들
- **참가자 J** : 모두 함께 있을수 있다는 것
- **참가자 K** : 새로운 만남, 관계
- **참가자 L** : Campfire , Lake house
- **참가자 M** : When we sat around the fire, eating fish and talking about our experiences. I felt a very strong sense of peace and clarity. 몸은 추웠지만 마음만은 가장 따뜻했습니다.
- **참가자 N** : 얼라인먼트를 통해 만났던 지체들. 어린이를 포함하여 각각의 지체들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 **참가자 O** : 이번 얼라인먼트에도 참여한것.

4. 가장 아쉬웠던 것은?

- 참가자 A : 하이킹
- 참가자 B :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
- 참가자 C : 식사준비 걱정 안하고 피곤할때 들어가서 쉬어도 눈치가 안보였다는 것.
- 참가자 D : 없음
- 참가자 E : 하루 더 있다 올걸..하는 생각
- 참가자 F : 저의 일정이 아쉬웠네요
- 참가자 G : 시간...다음엔 한 일년 할까요?
- 참가자 H : 첫날부터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처음이라서 등록한 후에 등록이 된건지 또 그 다음엔 뭘 해야되는지 몰라서 조금 헤맸어요 (회비를 어디로 내야하고 이런것들).
- 참가자 I : 3박 4일이 짧다는 것,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을
- 참가자 J :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것
- 참가자 K : 새로운 만남, 관계
- 참가자 L : I didn't have time to spend with peers and my time to learn
- 참가자 M : I wish I opened up to everyone earlier. I wish it was longer.
- 참가자 N : 별로 없습니다
- 참가자 O : 매번 느끼는거지만 너무 짧다. 짧다고 생각하는만큼 아쉽지만 아쉬운만큼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 잘 알라인 되기를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위한 얼라인먼트이니까.

5. 다음번 Alignment 를 위해 건의하고 싶은 것은?

- 참가자 A : 기도의 시간, 찬양과 기도를 숨넘어갈 정도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 참가자 B : 없음
- 참가자 C : 전문 베이비시터? 이번에 모든 프로그램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 참가자 D : 나눔시간; 전체 나눔보다 개인적인 소그룹 나눔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동 시간이 있어서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너무 장소를 옮겨 다녀서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었다.
- 참가자 E : 텐트에서 자 볼까요?
- 참가자 F : 함께 참여한 지체들끼리 순간순간 받은 은혜와 깨달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prompts 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용기얻어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나누고 싶어도 사람들을 잘 알지못해서 혹 주저하는 맘이 있어 나누지못하는 친구들도 있는것 같아요. (introvert 로서의 의견입니다 ^^)
- 참가자 G : 없어요. 저에게 가장 큰 Alignment 는 제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하여 전 하나님께 맡기렵니다!!
- 참가자 H : 네,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존의 수련회나 집회와 확연히 다른 모임이기 때문에
- 참가자 I : 없음
- 참가자 J : 첫날을 더 잘쉬고 아침 산책을 모두 참석하면 어떨지.. 애엄마는 빠더라도. 아침 산책이 좋아요
- 참가자 K : 때에 대해서 꼭 듣고 싶습니다.

- 참가자 L : No
- 참가자 M : 없음
- 참가자 N : 인원 수가 이번처럼 적당한 소규모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가자 O : 지금과 같이. 혹은 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임과 일정이 되기를.

6. 수련회들이나 집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lignment 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서?

- 참가자 A : 네,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언레이먼트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가자 B : 네, 필요합니다. Alignment 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본인의 필요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가자 C : 네, 필요합니다. 오레곤의 자연이 주는 특별함..? 다른 모임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 참가자 D : 네, 필요합니다. LA 를 벗어나 볼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 형식에 매여있지 않은 편안한 새선들, 하이킹 및 가벼운 산책, 일상 탈출, 심
- 참가자 E : 네, 필요합니다. 심...non comparable
- 참가자 F : 네, 필요합니다. 흠 이유가 필요할까요? ^^ 보통 타이트하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련회/집회에 반하여 언레이먼트는 ""자율성""이 허락되면서 본질인 ""예배(및 예배의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고 demonstrate 하는)""를 누릴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참가자 G :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참 좋은 시간이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쉽'이었던 alignment conference 가 진영훈 목사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objective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죠. ^^ 이것은 진심으로 몰라서 남기는 커멘트입니다. 특별히 아니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 참가자 H : 없음
- 참가자 I : 네, 필요합니다. 언레이어먼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 (주님의 깊이 있는 터치) 계속 경험하고 싶어서
- 참가자 J : 네, 필요합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 참가자 K : 네,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gathering 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encourage 해주고 나누는 그럼 모임. 수련회나 집회, 프로그램들에서 스피커에게 일방적으로 받고 듣는 모임이 아닌 서로서로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해주는 얘기를 들을수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참가자 L : 잘 모르겠습니다.
- 참가자 M : 네, 필요합니다. Alignment helped me to align with my Lord again so it is absolutely necessary and helpful.
- 참가자 N : 네, 필요합니다. 수련회나 집회에서는 비교적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하여 기도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 애쓰는 느낌인 것에비하여 언라인먼트에서는 내 의지와 계획이 아닌, 예상치 못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참가자 O : 네, 필요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서로에대해 하나님이 주시는생각을 나누는시간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짧은 이시간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허락해주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모임에서는 이런시간이 없죠. 저 스스로 아직도 많이 불안하기에 이런시간을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더 경험하고싶습니다.

7. 좀 더 자주 Alignment 를 가지게 된다면 봉사자로 섬겨줄 의향이 있는지?

- 참가자 A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B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C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D : 아니요, 섬기는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 참가자 E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F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G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H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I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J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K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L : 아니요, 섬기는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 참가자 M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N : 네, 섬기고 싶습니다.
- 참가자 O : 네, 섬기고 싶습니다.

8. Alignment 이후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참가자 A : 공동체
- 참가자 B : 기도생활
- 참가자 C : 기도생활
- 참가자 D : Follow-up
- 참가자 E : 기도생활
- 참가자 F : 복수선택: 기도, 말씀생활 뿐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특수 주제에 대한 자료추천및 follow up mentoring 이 필요합니다
- 참가자 G : 말씀을 더욱 열심히 묵상해야겠습니다
- 참가자 H : 공동체
- 참가자 I :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멘토와의 지속적인 나눔의 끈
- 참가자 J : Follow-up
- 참가자 K : 공동체
- 참가자 L : 말씀 묵상하는 방법
- 참가자 M : 기도생활
- 참가자 N : 기도생활
- 참가자 O : 스스로 말씀 읽는 것과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

9. 진영훈 목사나 이상현 전도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박광리, 김민정 목사 포함)

- 참가자 A : 사랑해요~♡
- 참가자 B :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 참가자 C :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영적 육적 강건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참가자 D : 진영훈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는 쉼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상현 전도사님, ***를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림이 있는 메세지를 전달 해 주신 두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참가자 E : 사랑합니다~~ 두분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 참가자 F : 언제나 반갑고 마음다해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수고 넘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마음은 언제나 허락하시는데...) 시간으로 허락하시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참가자 G : 감사합니다.
- 참가자 H : 감사합니다! 끝나고도 말씀 드렸지만 저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도 또 가게 해주세요!
- 참가자 I : 영성의 깊이와 넓이를 더 해 가 주시고 지금의 그 순수함이 변하지 않기를
- 참가자 J : 사랑합니다~♡♡♡
- 참가자 K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가자 L : 없음
- 참가자 M : Pastor Jin, you are touching and guiding people. You help restore people's faith in our Lord. Honestly, I'm getting a little emotional now just thinking about Alignment '18, but let's keep that between you and me...haha Bravo to you and your wonderful team. I miss Oregon. Job well done and hope our paths will soon cross again! God Bless!!!
- 참가자 N : 사랑합니다 :)
- 참가자 O : 마음을 표현하기에 부끄럽고 타이밍도 잡기 어려워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사모님께도요!

Zoom 온라인 미팅



Figure 37 Group 1 Zoom S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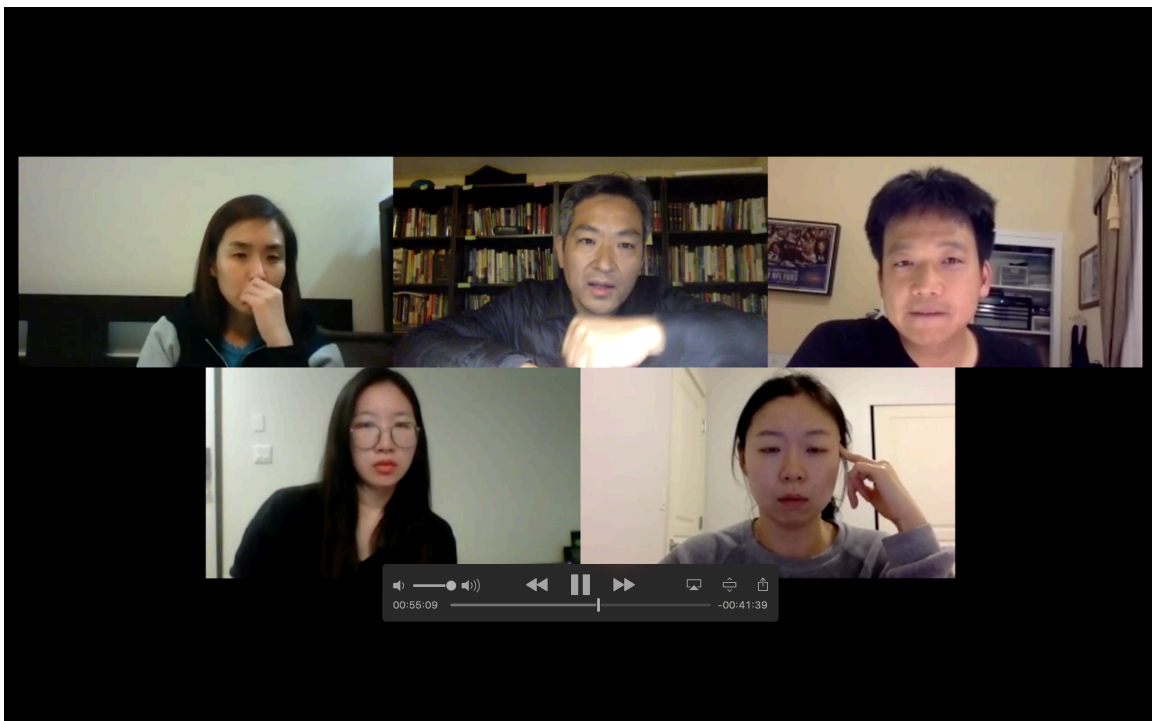


Figure 38 Group 2 Zoom Session

BIBLIOGRAPHY

- Andy Crouch. "The Emergent Mystique" in *Christianity Today*. Nov. 2004.
- Babin, Pierre. *The New Era in Religious Education*. Minneapolis, MN: Fortress, 1994.
- Barna Group. "Six Reasons Young Christians Leave Church, (2011).
<http://www.barna.org/teens-next-gen-articles/528-six-reasons-young-christians-leave-church>. (accessed October 2, 2018).
- Barrett, Lois Y.. *Treasures in Clay Jars: Patterns in Missional Faithfulness*. Grand Rapids: Eerdmans, 2004.
- Baucham, Voddie, Jr. "Equipping the Generations: a Three-Pronged Approach to Discipleship." *Journal Of Family Ministry* 2, no. 1. 2011.
- Beaudoin, Tom. *Virtual Faith: The Irreverent Spiritual Quest of Generation X*.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 Berkouwer, G. C.. *The Church* translated by James E. Davison. Grand Rapids: Eerdmans, 1976.
- Bethel Church. Bill Johnson quote on the Facebook posting by Bethel Church in Reading, CA.
<https://www.facebook.com/bethel.church.redding/posts/bible-study-without-bible-experience-is-pointless-bill-johnson/145675912130102/>. (accessed Sep. 14, 2018).
- Bickle, Mike. *Growing in Prayer*. Lake Mary, Charisma House, 2014.
- Bonhoeffer, Dietrich, Geoffrey B. Kelly, and John D. Godsey. *Discipleship*.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1.
-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1991.

- Breen, Mike, and Steve Cockram. *Building a Discipling Culture: How to Release a Missional Movement by Discipling People Like Jesus Did*. 2nd ed. Pawleys Island, SC: 3 Dimension Ministries, 2011.
- Bruce, Alexander Balmain. *Training of the Twelve*. Grand Rapids, Mich.: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000.
- Brueggemann, Walter. *Evangelism and Discipleship: the God Who Calls, the God Who Sends*. Grand Rapids: Eerdmans, 2008.
- Byrd, Nathan C. III. "Narrative Discipleship: Guiding Emerging Adults to 'Connect the Dots' of Life and Faith" *CEJ*: Series 3, Vol. 8, No. 2 2011.
- Coleman, Robert Emerson, and Roy J. Fish.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and Discipleship: Two Books in One Volume*. Prince Press ed. Peabody, Mass.: Prince Press, 2000.
- Cooke, Graham. *Crafted Prayer: The Joy of Always Getting Your Prayers Answered*. Vacaville, CA: Brilliant Book House. 2004.
- Cox, Harvey. *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 MA: Addison-Wesley, 1995.
- Dan Kimball. *The Emerging Church: Vintage Christianity for New Generations*. Grand Rapids: Zondervan, 2003.
- Dedmon, Kevin. *Firestarters: Pursuing Passion, Purpose and Power*. Redding: Bethel Church, 2009.
- De Silva, Dawna & Liebscher, Teresa. *SOZO: Saved, Healed, and Delivered*. Shippensburg: Destiny Image, 2016.
- Easum, Bill and Thomas Bandy. *Growing Spiritual Redwood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 *Discipleship Process*. Vol. 48, no. 1. “가나안 성도,” last updated December 15, 2016.

https://librewiki.net/wiki/가나안_성도. (accessed Sep. 15, 2018).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Innovation and Mission for the 21st-century Church*.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2003.

Geiger, Eric, and Michael Kelley. *Transformational Discipleship: How People Really Grow*. Nashville, Tenn.: B & H Publishing Group, 2012.

Gibbs, Eddie. “Signs of an Emerging Church” in *Focus* Spring 2004.

Gibbs, Eddie and Ryan K. Bolger. *Emerging Church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Grenz, Stanley J.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6.

Guder, Darrell L. eds.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_____.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2000.

Harrop, Jennie A.. "The Jesus Quotient: IQ → EQ → AQ" (2018). Doctor of Ministry. 267. <https://digitalcommons.georgefox.edu/dmin/267>. (accessed Oct. 14, 2018).

Hull, Bill.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On Being and Making Followers of Christ*. Colorado Springs: NavPress, 2006.

Idleman, Kyle. *Not a Fan: Becoming a Completely Committed Follower of Jesu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1.

Johnson, Bill. *Hosting the Presence*. Shippensburg: Destiny Image, 2012.

- Kolb, David.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a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4.
- Longenecker, Richard N..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1996.
- Manson, T. W.. *The Teaching of Jesus: Studies of Its Form and Conten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35.
- McCallum, Dennis, and Jessica Lowery. *Organic Discipleship: Mentoring Others into Spiritual Maturity and Leadership*. Revised ed. Houston: New Paradigm Publishing, 2012.
- McLagan, Patricia and Christo Nel, *The Age of Participation: New Governance for the Workplace and the World*.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1995.
- McLaren, Brian D.; McManus, Erwin Raphael. *The Church in Emerging Culture*. Grand Rapids: Zondervan, 2003.
- Meadows, Philip R. "Mission and Discipleship in a Digital Culture." *Mission Studies* 29, no. 2. 2012.
- Miller, Donald. *Blue Like Jazz: Nonreligious Thoughts on Christian Spirituality*. Nashville: T. Nelson, 2003.
- _____. *Reinventing American Protestantism: Christianity in the New Millenniu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Moltmann, Jurge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Margaret Khol trans.. New York: First Fortress Press, 1993.
- Moon, Jay. "Holistic Discipleship: Integrating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Discipleship Process."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48, no. 1. 2012.
- Moss, Caroline. "Meet the Guy Who Makes \$1,000 An Hour Tutoring Kids of

- Fortune 500 CEOs Over Skype” *Business Insider*. Aug. 26, 2014.
https://www.businessinsider.com/anthony-green-tutoring-2014-8?utm_content=bufferc61c5&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com&utm_campaign=buffer. (accessed Oct. 12, 2018).
- Nisbitt, John. “Beyond the Service Economy,” *John Nisbitt’s Trend Letter*. Dec. 15, 1996.
- Ogden, Greg. *Transforming Discipleship: Making Disciples a Few at a Tim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 Ortberg, John. *The Life You’ve Always Wanted: Spiritual Disciplines for Ordinary People*. Grand Rapids, Mich.: Zondervan Pub. House, 1997.
- Platt, David. *Radical: Taking Back Your Faith from the American Dream*. Colorado Springs, Colo.: Multnomah Books, 2010.
- Polanyi, Michael.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Rengstorf, K. 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V*.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67.
- Saccone, Steve. *Protégé: Developing Your Next Generation of Church Leader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2.
- Shenk, Wilbert. “Key Words,” MP620, Lecture Notes, Pasadena, 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 _____. “New Wineskins for New Wine: Toward a Post-Christendom Ecclesiology,” MP620 Lecture Note. Pasadena, 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 _____. “The Culture of Modernity as a Missionary Challenge” in *The Church Between Gospel & Culture: The Emerging Mission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6.

- Smith, C. Christopher & Pattison, John. *Slow Church: Cultivating Community in the Patient Way of Jesu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4.
- Smith, James Bryan. *The Good and Beautiful God: Falling in Love with the God Jesus Know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 _____. *The Good and Beautiful Life: Putting on the Character of Chris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 _____. *The Good and Beautiful Community: Following the Spirit, Extending Grace, Demonstrating Lo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0.
- Snyder, Howard. *Decoding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 _____. *The Problem of Wineskin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5.
- Sweet, Leonard. *11 Genetic Gateways to Spiritual Awaken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_____. *Aquachurch*. Loveland, CO: Group, 1999.
- _____. *Faithquak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_____. *From Tablet to Table: Where Community Is Formed and Identity Is Found*. Colorado Springs: NavPress, 2014.
- _____. *Learn to Dance the Soul Salsa: 17 Surprising Steps for Godly Living in the 21 Century*. Grand Rapids: Zondervan, 2002.
- _____.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s, CO: David C. Cook, 2010.
- _____. *Post-moder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 _____. *Quantum Spirituality: A Postmodern Apologetic*. Dayton, OH: Whaleprints, 1994.
- _____. *SoulT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Grand Rapids: Zondervan, 1999.
- _____. edit. *The Church in Emerging Culture*. Grand Rapids: Zondervan, 2003.
- _____. *The Jesus Prescription for a Healthy Lif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Pastors. *Korean Christianity Analysis Report*. Seoul: URD Pub, 2018.
- Thompson, Marianne Meye. "Reflecting on the Gospel" in *Theology, News and Notes*. Spring: 2-3, 2004.
- Viola, Frank. *Jesus now: Unveiling the Present-Day Ministry of Christ*.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14.
- Walls, Andrew F.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7th printing. New York: Orbis Books, 2003.
- _____. "Eusebius Tries Again." In *Enlarging the Story: Perspectives on Writing Christian History*. Wilbert R. Shenk, eds. Pp. 1-21. New York: Orbis Books, 2002.
- Warren, Rick. *Rick Warren's Bible Study Method*.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Webber, Robert E. *The Younger Evangelicals: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New World*. Grand Rapids: Bakers Books, 2000.
- _____. *Ancient-Future Evangelism: Making Your Church a Faith-Forming Communit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 Wilkins, Michael J.. *Following the Master: Discipleship in the Steps of Jesus*.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92.
- Willard, Dallas.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 _____. *The Divine Conspirac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 1998.
- _____. *The Great Omission: Reclaiming Jesus's Essential Teachings on Discipleship*. San Francisco, Calif.: HarperSanFrancisco, 2006.
- 고직한.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홍성사, 2003.

국립국어원. '원포인트레슨.'

<https://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front=BD2362463F>

[17E4786052C28667F52BF3?mn_id=34&refine_seq=26906&pageIndex=31](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61).
(accessed Nov. 6, 2018).

김지방.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제자훈련.’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6.

나무위키. ‘N 포세대’ 최종수정시간 2018 년 12 월 21 일.
<https://namu.wiki/w/N%ED%8F%AC%EC%84%B8%EB%8C%80>.
(accessed Nov. 14, 2018).

남기평 외 5 일.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 서울: 동연, 2017.

두란노편집,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 2012.

디이트리히 본회퍼, *나를 따르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데이빗 왓슨. *제자도*. 서울: 두란노, 2004.
_____. *제자훈련*.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2.

마이클 그리피스. *예수의 모범*. 서울: 요단출판사, 1987.

마이클 윌킨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신*. 서울: 은성, 1995.
_____. *제자도 신학: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 황영철 역. 국제제자훈련원,
2015.

박양식, *길 잃은 교회와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인 부족: 미션얼족의 출현과 전망을 중심으로*. 서울: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정기세미나, 2013.

박요셉. “대학생 중 개신교인 15%, 그중 28.3%는 ‘가나안’” *뉴스앤조이*. October 31, 20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61>.
(accessed November 2, 2018).

박용규. *한국 복음주의의 태동*. 신학지남 256 호, 1998 년 가을.

변태창, *작은목자훈련*.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1.

브라이언 맥라렌. *저 건너편의 교회*. 서울: 낮은 울타리, 2002.

송인규, *가나안 성도 신앙생활 탐구* 'Part 2 교회는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2018 년 11 월 30 일.

_____. *제자도와 제자훈련 커리큘럼*.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9.

_____.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6.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4.

_____. '가나안 성도와 새로운 신앙의 방향' posted on 2013 년 5 월 16 일.
<http://ichungeoram.com/7134>.

영 2080. 2018 년 12 월 30 일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y2080/>.

옥한흠.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_____. *아무도 줄 수 없는 나의 구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_____. *작은 예수가 되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_____.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국제제자훈련원, 2009.

이중표. *제자훈련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국제제자훈련원, 1999.

정인찬 편, *성서대백과 제 8 권*. 서울: 기독지혜사, 1981.

정재영. *가나안 성도 신앙생활 탐구* 'Part 1 가나안 성도 신앙의식 및 신앙생활 조사발표' 2018 년 11 월 30 일.

_____. *탈현대 시대에 소속 없는 신앙인, 가나안족*. 서울: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정기세미나, 2013.

_____. "늘어가는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8 년 8 월 31 일.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2636/.

장열,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한인교계 위기감" 미주중앙일보. posted Apr. 14, 2015,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07675.
(accessed Sep. 21, 2018).

조성돈, 정재영 교수팀의 공개세미나 “가나안 성도, 갈 길을 잃은 현대인의 영성,”
명동: 청어람, 2013 년 4 월 25 일.

피터 스카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서울: 이레서원, 2006.

허남기. “한국 교회 제자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교회 203 호, 1993.